

보험동향 2014년 봄호

Ⅰ 총괄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Ⅱ 경제금융 동향	경제총괄 전용식 (연구위원) 세계경제 이아름 (연구원) 국내경제 채원영 (연구원) 금융경제 이해랑 (연구원)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보험총괄 전용식 (연구위원) 생명보험 김진억 (수석담당역) 이해랑 (연구원) 손해보험 최 원 (선임연구원) 채원영 (연구원) 〈부 록〉 FY2012 민영의료보험 실적현황 (조용운 연구위원)
Ⅳ 해외보험시장 동향	미 국 이해랑 (연구원) 영 국 김진억 (수석담당역) 일 본 이아름 (연구원) 중 국 이소양 (연구원) 〈부 록〉 터키 보험시장의 현황 (이아름 연구원)

■ 목차

I. 테마진단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 동향과 시사점 / 1

세계 100대 은행과 국내 은행의 수익성 비교와 시사점 / 20

I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39

2. 국내경제 / 56

3. 금융경제 / 71

III.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 77

2. 생명보험 / 80

3. 손해보험 / 94

〈부 록〉 FY2012 민영의료보험 실적현황 / 116

IV. 해외보험시장 동향

1. 미국 동향 / 125

2. 영국 동향 / 133

3. 일본 동향 / 143

4. 중국 동향 / 151

〈부 록〉 터키 보험시장의 현황 / 162

부록 I. 통계표 / 169

부록 II. 글로벌 이슈 발간 목록 / 176

I. 테마진단

◆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 동향과 시사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1. 검토 배경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일본정부의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로 복지재정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확산됨.

○ 2014년 정부 일반회계(세출예산) 중에서 사회보장비의 지출이 1999년 대비 약 2배*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재정의 수지 적자부분을 국채발행으로 보전하는 악순환이 반복됨.

*1999년 16조 1,000억 엔 → 2014년 30조 5,000억 엔으로 14조 4,000억 엔 증가

- 국채발행 규모가 증가하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30%를 상회, 정부재정이 위기에 직면할지 모른다는 인식이 확산됨.

〈표 1〉 일본정부의 일반회계(세출예산) 중 사회보장비 추이

(단위: 조 엔, %)

1999년	2005년	2012년	2014년(예산안)
16.1 (19.7)	20.4 (24.8)	26.4 (29.2)	30.5 (31.8)

주: ()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보장비 비중임.
자료: 日本財務省(2014. 2).

- 또한 보험료 및 조세수입에 의한 복지재원조달보다 국공채 발행과 같은 손쉬운 차입예산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고 있어 후세대 부담가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 201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95.8조 엔)은 조세수입 50.0조 엔(52.1% 비중), 국공채발행 41.2조 엔(43.0% 비중), 기타 4.6조 엔으로 구성됨.
-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아베정권은 소비세 인상¹⁾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토대로 연금, 의료, 개호, 아동 등 4개 분야의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함.
-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연금제도의 개혁은 2012년에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관련 법²⁾과 2013년 8월 사회보장 국민회의가 정부에 제출한 사회보장개혁보고서(개혁의 방향성 제시)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우리현실에서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사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향후 연금제도의 개혁방향을 모색하는데 매우 중요함.
- 따라서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노후소득보장개혁) 내용과 동향, 특징 등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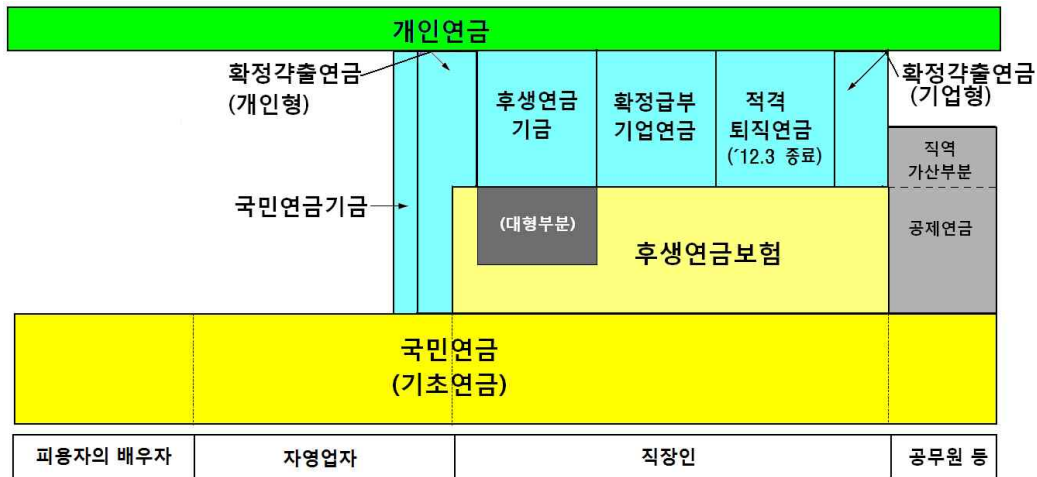
2. 일본의 연금체계 현황 및 구조

- 일본의 연금체계는 국민연금(1층), 후생연금보험(2층) 등의 공적연금기반 위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이 보완하는 다층체계임.

1) 2014년 4월부터 소비세율이 기존 5%에서 8%로 인상되며 2015년 4월에는 10%로 인상됨.

2) 연금개혁관련법은 연금기능강화법과 피용자연금 일원화법을 의미함.

〈그림 1〉 일본의 노후소득보장 체계



자료: 厚生労働白書(2013).

- 공적연금제도는 기초연금제도인 국민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인 후생연금보험, 그리고 특수직역연금인 공제연금으로 구성됨.
- 1층의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으로 모든 현역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자산과 무관하게 정액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충족시키면 정액급여를 지급함.
 - 적용대상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교직원, 근로자의 배우자, 학생 등임.
 - 기초연금재원은 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고지원금이며, 2012년 4월 말 현재 월 14,980엔의 정액보험료가 부과되고 2017년 이후부터 16,900엔으로 고정됨.
- 2층의 후생연금보험과 공제연금은 민간근로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비례연금으로 모든 가입자의 소득에 대해 동일 보험료율이 적용되며, 이를 토대로 기간에 비례하여 연금급여가 지급됨.
 - 후생연금보험 재원은 보험료와 적립금의 운용수입으로 충당되며 기초연금과 달리 국고보조는 존재하지 않음.
 - 공제연금제도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등 특수직역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득비례부분과 퇴직수당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로 개혁조치에 따라 후생연금보험으로 통합됨.

〈표 2〉 일본의 사적연금 체계

퇴직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기금
후생연금기금		개인연금보험	(자영업자 대상 연금제도)
적격퇴직연금(2012.3 종료)		연금식적립 상해보험	
확정급부기업연금		개인연금신탁	
확정각출형 기업연금	규약형	연금형예금	
	기금형	증권형연금	
개인형 확정각출연금		재형연금저축	
비적격 퇴직연금		-	

자료: 企業年金聯合(2012. 3)을 기초로 작성함.

○ 3층의 후생연금기금, 확정기여연금 등은 개인 및 기업의 선택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각 제도별로 가입대상이 구분되어 있으며 보험료 및 연금 급여가 상이함.

■ 일본의 국민연금과 후생연금보험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원화된 공적연금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퇴직급여제도는 법률상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임의 제도로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일본의 연금체계가 복잡한 이유는 노후에도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영업자와 노동시장으로부터 완전히 은퇴하는 샐러리맨의 노후생활을 지탱하기 위한 필요 연금수준이 다르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임.

3.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내용과 동향

가. 2012년 이전 연금개혁

■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인구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부담증가와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함.

-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장기적인 불황에 빠지면서 연금보험료 징수율이 감소하고 저출산에 따른 보험료 납입인구가 줄면서 연금재정이 갈수록 악화됨.
- 이에 1960년대 초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지 32년 후인 1994년부터 대대적인 공적연금의 개혁을 추진함.
- 2000년에는 후생연금(소득비례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2013년 60세 → 2025년 65세)하고 후생연금의 급여율을 전년수준에 비해 5%로 인하하며 연금급여를 물가에 연동하는 연금개혁이 이루어짐.
- 2004년에는 평균수명의 증가를 연금액에 반영하는 거시 경제슬라이드 방식으로 전환, 연금급여수준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사실상의 준(準) 확정기여형 제도를 도입함.
- 또한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보험료의 점진적 인상, 5년마다 재정검증 실시, 기초연금 급부지출의 국고부담비율을 기존의 1/3에서 2009년까지 1/2로 상향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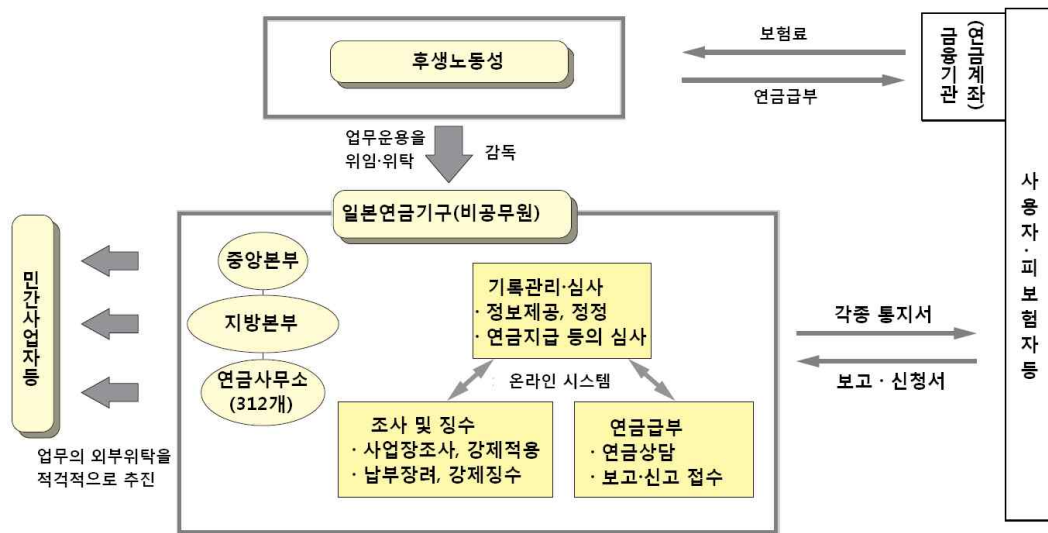
〈표 3〉 2012년 이전의 공적연금개혁

연도	개혁 주요 내용
1994	2001년부터 기초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 결정
2000	• 후생연금보험의 급여율 인하 • 소득비례연금 수급개시연령의 단계적 상향조정
2004	• 연금수준(소득비례연금) 점진적 인하 • 국민/후생연금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 • 경제슬라이드의 도입 등 준 DC화
2007	• 고령 소득자 후생연금의 지급정지제도 시행 • 이혼 시 후생연금분할제 도입 • 노령후생연금 연기지급제도 시행
2010	사회보험청을 일본연금기구로 재편

자료: 厚生労働白書(2013) 등에 의해 작성됨.

- 2007년에는 70세 이후 소득활동 시 후생연금의 지급정지제도시행, 이혼 시 후생연금 분할제 도입, 노령후생연금 연기지급제도(66세 이후 수령하도록 신청가능)를 도입하는 개혁을 추진함.

〈그림 2〉 일본연금기구의 업무체계



자료: 厚生労働白書(2013).

- 또한 2010년에는 사회보험청의 공적연금 방만 운영, 연금기록관리 및 정보관리의 소홀 등으로 유령연금지급 사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회보험청을 폐지하고 공법인(公法人)성격의 일본연금기구를 설치함.
- 일본연금기구는 법률에 따라 정부가 위탁하는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공적연금제도의 재정 및 운영책임은 정부가 맡음.

■ 이에 반해 사적연금의 개혁은 공적연금 개혁에 따른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 후생연금기금의 수익률 악화에 따른 적립금 부족문제 확대, 능력·성과주의 중심으로의 고용 및 급여체계 변화 등으로 이루어짐.

- 2001년 개혁을 통해 기존 적격퇴직연금을 보완한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2002년에 기업이 대신했던 공적연금 기능의 일부를 정부로 환원하는 공적연금 대행제도의 의무화를 폐지함.

〈표 4〉 2012년 이전의 사적연금 개혁

연도	개혁 주요 내용
2001년	확정각출연금법 제정
2002년	• 퇴직급여충당금 폐지 • 캐시밸런스 플랜 도입 •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정 • 후생연금기금 대행제도 국가로 환원 • 다수가 확정급여퇴직연금(기금형)으로 이행
2010년	• 일본연금기구 출범 • 확정각출연금 부담금 한도 상향 조정
2012년	• 적격퇴직연금제도 폐지 • 확정각출연금 매칭기여 허용

자료: 厚生労働白書(2013)를 요약 정리함.

- 또한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퇴직연금제도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퇴직금 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을 2002년 완전 폐지하였으며 2010년에는 확정각출연금 부담금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사적연금 개혁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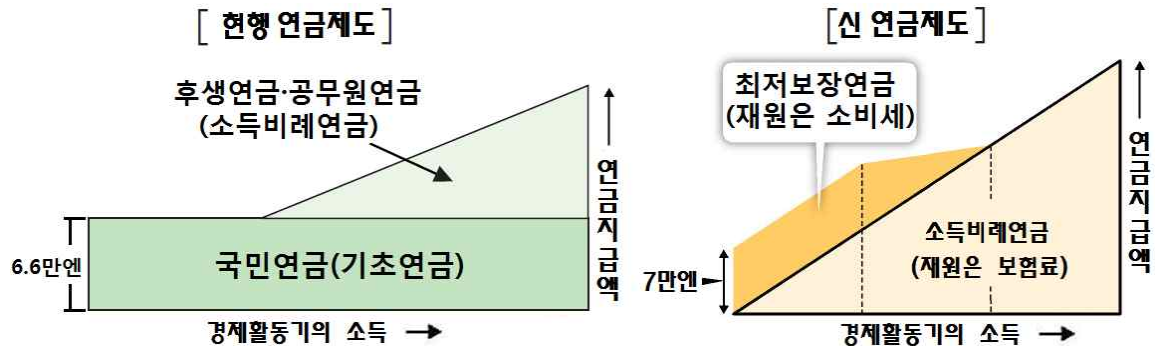
나. 2012년 이후 연금개혁

1) 취약 계층 보호 관련 개혁

■ 최저 보장 연금제도의 도입추진

-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후생연금(소득비례연금)과 최저보장연금을 조합 시킨 스웨덴방식의 새로운 연금제도 도입을 장기적인 개혁과제로 검토함.

〈그림 3〉 현행 일본의 연금제도와 신 연금제도의 비교



자료: 日本經濟新聞 신문기사(2013. 2. 11).

- 2013년 8월 사회보장국민회의가 최저보장연금제도 도입을 아베정권에 적극 제안함에 따라 향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최저보장연금은 조세방식으로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모든 수급자에게 최대 7만 엔을 지급하여 소득비례연금과 최저보장연금을 합쳐 최소 약 7만 엔 이상의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생애 평균 연간소득을 기준(보험료 납부액)으로 연간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급부액을 전액 지급하고 연간소득이 일정기준을 상회할 경우 단계적으로 경감된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임.

■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연금급부가산

- 일본은 「연금생활자 지원금부금 지급에 관한 법률(2012.11.16)」에 근거하여 연금제도의 최저보장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고령자 등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저소득자와 장애인에 대한 연금급부 가산을 2015년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임.
- 저소득계층(연금을 포함한 총합소득 77만 엔 이하)의 노령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준액(5천 엔)에 납입기간을 곱한 금액을 생활지원금부금으로 지급하며, 적용대상자는 약 5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 다만 급부금지급으로 총합소득이 77만 엔을 상회하는 일정범위의 수급자에게는 이보다 적은 금액의 생활지원금부금이 지급됨.
- 또한 일정한 장애기초연금 또는 유족기초연금의 수급자에게는 월 5천 엔(1급 장애인의 경우 월 6.25천 엔)의 장애연금생활지원금부금 또는 유족연금생활지원금부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적용대상자는 약 190만 명으로 추정됨³⁾.

■ 보험료 납입 면제 및 연금수급 자격기간 단축

- 노령기초연금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일반 국내거주자가 원칙적으로 2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여 65세에 도달한 경우에 지급하므로 저소득 등의 사유로 보험료납입이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면제제도를 통해 최소가입기간 충족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일본에서는 25년의 납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무연금자가 약 118만명에 이르고 있어 노후에 빈곤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됨.
- 이에 일본정부는 무연금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무연금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 기간을 2015년 10월부터 현재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할 예정임.

■ 단시간 근로자의 후생연금과 건강보험 적용

- 일본정부는 2016년 10월부터 파트타임 등 단시간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 격차해소와 모순점 개선을 위해 후생연금과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에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함.
- 일본에서 종전의 단시간 근로자는 후생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가입 적격요건인 주당 30시간 이상, 연간 120만 엔 이상의 소득요건에 미달하여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임.
- 그러나 그 동안 일본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대 보험 등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단시간 근로자를 위주로 고용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음.
- 또한 사용자가 4대 보험료를 경감하고자 배우자가 있는 주부의 경우 주당 30시간 이하 및 연간급여 120만 엔 미만의 범위로 고용하고 있음.
- 따라서 2016년 10월부터 파트타임 주부 등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장래 노령기초연금에 추가하여 노령후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 급부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3) 厚生労働省(2012. 8), p. 16.

연금제도를 개혁함.

- 새로운 적용요건은 ①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일 것, ② 월 임금이 8.8만 엔이상(연간소득 106만 엔 이상)일 것, ③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④ 학생은 적용제 외, ⑤ 종업원 수가 501인 이상의 사업장 등임.

■ 유족기초연금의 남녀차별 해소 및 출산 휴가기간 중 보험료부담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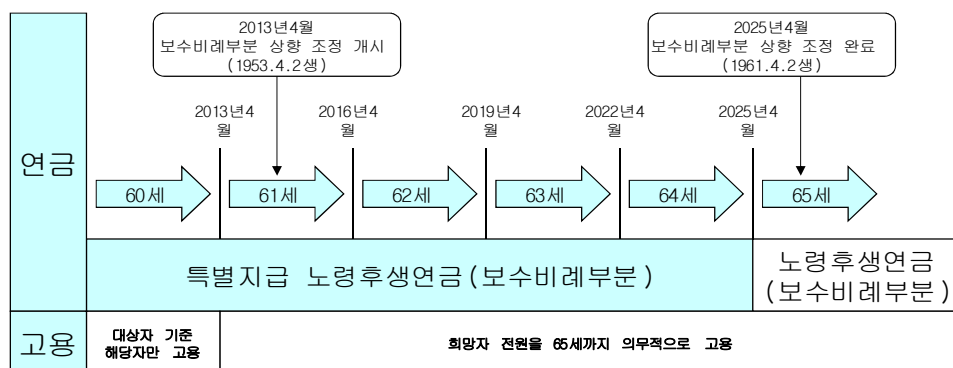
- 남녀 간의 형평성차원에서 2014년 4월부터 유족기초연금 대상자를 종전의 모자가정에서 부자가정으로 확대함.
- 2014년 4월 이전에는 기초연금가입자 사망 시 유족기초연금이 모자가정에는 지급되는 반면, 부자가정에는 지급되지 않고 있어 유족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남녀 간 차이가 발생함.
- 또한 출산을 개선과 미래세대를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후생연금의 피보험자에 대해 출산휴직기간의 후생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2014년 4월부터 면제함.

2) 연금재정 안정화 관련 개혁

■ 후생연금 지급개시연령의 추가적인 상향 조정 등

- 사회보장 국민회의는 저출산·고령화 진전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의 파탄 등을 우려하여 후생연금 지급개시연령을 66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그림 4〉 후생연금 지급개시연령 상향 조정과 고령자의 고용



자료: 厚生労働省 홈페이지.

- 이미 국민연금(정액부분)은 2001년부터 지급개시연령이 3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되어 2013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되고 있음.
 - 후생연금(보수비례부분)도 2013년 4월부터 지급개시연령이 상향조정되어 남성의 경우 2025년 4월부터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후생연금을 받을 자격이 존재함.
 - 그럼에도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를 감안할 때 연금재정의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후생연금의 연금개시연령 상향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후생연금의 연금개시연령과 연계된 고용을 통해 후생연금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개혁과제로 제안하기 이룸.
- 또한 사회보장국민회의는 고소득자의 연금급부에 대한 과세 강화를 장기적인 계획과 제로 제안함.
-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금수입이 연 700만 엔일 때 183.5만 엔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공제부분을 축소하여 보다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제안됨.

■ 후생연금중심으로 공적연금 일원화

- 공적연금 간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국회를 통과한 「피용자연금 일원화법」에 의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가입하는 공제연금을 2015년 10월부터 후생연금으로 일원화함.
- 이는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일본의 공제연금이 종료되어 직장인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으로 통합화되는 것을 의미함.
 - 공무원 등은 2015년 10월부터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기초연금)과 후생연금(소득비례부분)의 강제가입 적용대상이 되어 일반 직장인과 동등한 수준의 보험료와 연금급여가 적용됨.
 -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의 제도 간 격차는 기본적으로 후생연금에 맞추어 개선하고, 공제연금(2011년 15.862%)의 보험료율은 2018년(단, 사학연금은 2027년 이후)까지 후생연금(2011년 16.412%)의 2017년 목표보험료율 18.3%로 통일함.

〈표 5〉 후생연금과 공제연금 간의 차이 개선내용

구분	후생연금	공제연금	개선내용
피보험자의 연령 제한	70세까지	없음	후생연금으로 통일
유족연금의 급부 범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형제 등의 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유가족이 없을 경우 상속인	후생연금으로 통일
보험요율	2017년 18.3%에 고정	2018년까지 매년 0.35%씩 인상	후생연금으로 통일
연금수급 기간 중에 다른 공적연금 가입시	65세까지: 28만 엔(임금+연금) 초과 시 일부 또는 전부 지급 정지 65세 이후: 46만 엔(임금+연금) 초과 시 일부 또는 전부 지급 정지	28만 엔(임금+연금)* 초과 시 일부 또는 전부 지급정지 * 단, 공제연금수급자가 민간기업에 취업 시 46만 엔 초과 시	후생연금으로 통일
장애연금 지급요건	보험료 납입기간 2/3경과 요건	보험료 납입기간 요건 없음	후생연금으로 통일
지급개시 연령 성별 차등적용	여성이 5년 단위 늦게 상향조정	남성과 여성 동일 일정	현행 유지
직역 가산금	없음	존재	후생연금으로 통일

자료: 厚生労働省(2012, 2).

- 또한 공제연금의 3층 부분(직역가산)은 폐지하고, 공적연금의 가입연령제한, 유족연금의 승계 등은 후생연금 수준으로 통일하여 공무원과 직장인의 공적연금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

- 공적연금 일원화의 목적은 공무원이 가입하는 공제연금과 직장인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을 통합하여 공적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있음.

3) 사적 연금 역할 관련 개혁

■ 퇴직급여 보조금 지원제도의 도입

- 중소·영세기업들이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업에

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퇴직급여 보조금지원제도를 도입함.

-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는 중소기업자의 상호공제와 국가 지원으로 퇴직급여제도를 확립하고 중소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중소기업 진흥이 목적임.
- 중소기업 퇴직금 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업종은 주로 소매업, 서비스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영세기업을 대상이며,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함.

〈표 6〉 중소기업퇴직금공제 적용대상 사업장 규모

업종 구분	상용근로자		자본금 · 출자금
소매업	50인 이하	또는	5천만 엔 이하
서비스업	100인 이하		5천만 엔 이하
도매업	100인 이하		1억 엔 이하
기타(제조 · 건설업 등)	300인 이하		3억 이하

자료: 中小企業退職金控除機構(2012).

- 퇴직금공제에 가입한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공제보험료 부담의 2분의 1(상한 5,000엔)을 가입 후 4개월째부터 1년간 국가가 지원하며 단기근로자(월 공제보험료 4,000엔 이하)는 추가적으로 지원함.
- 중소기업이 근로자퇴직금공제기구(운영주체)와 퇴직금공제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공제보험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동 공제기구에서 퇴직금이 직접 지불되는 구조임.
- 또한 동일업종 내에서 여러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취약계층의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특정업종 퇴직급여 공제제도를 시행함.
- 퇴직급여 공제는 건설업 · 청주제조업 · 임업사업장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건설업퇴직급여공제, 임업퇴직급여공제 등이 이에 해당함.

■ 미국식 IRA 제도의 도입추진

- 일본은 2001년 퇴직연금 개혁에 따라 2002년부터 기업형 확정각출연금 및 개인형 확정각출연금을 도입 ·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형 확정각출연금의 경우 시행 11년이 지났으나 가입자 수가 20만 명 미만에 그치는 등 가입률이 매우 낮은 수준임.

- 현행 개인형 확정각출연금의 문제점으로는 가입자격의 제한과 연금자산의 통산성, 세제혜택의 미흡 등을 들 수 있음.
-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제외한 계층은 개인형 확정각출연금에 가입할 수 없으며 기금형 가입자가 직장이동 시 개인형 확정각출연금으로 연금자산을 통산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 또한 각 퇴직연금별로 세제혜택에 차이가 있어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간, 퇴직연금가입자 간 세제혜택에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 이에 아베정권은 전 국민으로의 사적연금가입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확대를 위해 미국식 IRA제도를 검토하여 개인형 연금적립 비과세제도(일본판 IRA제도)를 2014년부터 도입할 예정임.
- 일본판 IRA제도는 일본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20세 이상 65세 미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가입절차는 가입자가 금융기관의 영업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과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전용계좌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구조임.
- 가입금액은 연간 120만 엔을 한도로 하고 세제혜택은 기여 시 과세, 운용 및 급여단계에서 비과세를 적용하므로 개인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융자산에 발생하는 이자 및 수익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함.

■ 퇴직연금의 보급·확대 조치 모색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후생연금기금에서 신 퇴직연금제도로의 원활한 이행지원, 60세 미만의 중도인출요건 완화, 사업주 각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업원의 매칭 각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함.

〈표 7〉 퇴직연금의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구 분	개선 방향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가입유도	후생연금기금에서 신퇴직연금제도 이행 지원, 60세 미만의 중도인출요건 완화 등
확정각출연금의 유연한 설계	각출한도액의 인상, 매칭각출의 완전자유화, 제도설계 관련 수속요건 완화 등
퇴직연금 지속가능성 향상	특별법인세 철폐, DB형의 급부감액요건 완화, 과거근무채무 상각방법의 탄력화 등
개인의 자조노력에 정부지원	개인형 DC에 대한 중도인출요건 완화 및 각출한도액의 인상 등

- 또한 노사가 합의하여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확정각출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퇴직급부의 제도설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함.
- 확정각출연금에서 각출한도 상한액(연간 61.2만 엔)을 대폭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각출상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함.
- 특히 연기금 운용 수익에 대한 특별법인세를 폐지하고 확정급부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무채무 상각방법을 탄력화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더불어 개인형 확정각출연금의 가입자 범위를 DB형 가입자, 전업주부, 공무원 등으로 확대하고 자산이전 및 가입수속을 간소화하여 제도의 통산성을 확대하고자 함.

4. 일본 연금제도 개혁의 제반 특징

- 일본은 연금재정 안정화를 통한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장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파라메타적 연금개혁 중심에서 패러다임적 연금개혁으로 전환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 일본의 연금개혁 초기는 공적연금 단일화 등과 같은 개혁보다 연금급부 인하, 연금지급 개시연령 인상, 연금보험료 인상과 같이 보험료와 급부수준을 조정하는 연금정책을 주로 추진하였음.
- 부분적 연금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경향이 현저함.
- 2012년 이후부터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부분으로 분리된 공적연금제도의 통합을 적극 검토하고 스웨덴식 최저소득보장연금제도 도입을 계획하는 등 패러다임적 연금개혁

혁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 또한, 공적연금 제도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유도하고 자 공제연금과 근로자의 공적연금을 과감하게 통합하기에 이룸.

■ 또한 저성장 경제 및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 다양화 등의 시장환경에 부합하기 위하여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추진됨.

- 즉, 적격퇴직연금(2012)과 후생연금기금(2022년)을 폐지하는 등 경제성장기 연금모델을 과감히 개혁하는 한편, 노동시장 및 급여 유연화에 부응하는 확정각출연금과 확정급부기업연금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사적연금기능 제고에 중점을 둠.
- 최근에는 사적연금 활성화에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예: 특별법인세 폐지, 캐시밸런스 플랜의 탄력화, 집단운용형 DC 도입)를 완화하여 사적연금가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짐.

■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보장기능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특징을 보임.

- 공적연금부문에서는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저소득·장애인에게 추가적인 연금급부를 지급하고 단시간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사회보장격차 해소를 위해 후생연금과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소득보장대책이 마련됨.
- 사적연금부문에서는 영세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나 단시간 근로자 및 주부 등에게 연금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사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함.
- 최근 아베정권은 소득세 인상 후 세제역진성을 고려하여 저소득계층에 현금지급을 추진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5.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의 공적 및 사적 연금 도입 시 주요 벤치마킹이 되었던 일본의 연금개혁은 향후 우리나라가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겪어야만 하는 연금문제의 선행사례로서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첫째, 일본이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공·사 간 유기적인 연금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거울삼아 공사연금 간의 역할분담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연금체계 전반에 관한 개혁 로드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임.
 - 즉, 저출산·고령화가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연금재정악화)을 간과하여 적기에 연금개혁이 이루어지 못했던 일본 사례는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즉, 정부의 차입예산을 통하여 연금재원을 확보하는 일본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공적연금제도 운영을 위해 연금개혁의 기본 틀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둘째,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본적인 연금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임.
 - 즉,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악화와 제도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역 연금의 저부담·고급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개혁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공무원과 근로자 간의 공적연금 형평성 개선사례는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직종 간의 연금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셋째, 공사연금의 개혁과정에서 나타나는 노후소득의 사각지대(저소득 취약계층)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중심으로 연금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영세사업장(4인 이하),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유인책 등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일본에서는 최근 연금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 단시간 근로자 등을 위한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연금세제 혜택 강화, 연금자산운용 규제의 완화, 미국식 IRA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 검토가 요구됨.

〈참 고 문 헌〉

內閣府(2013. 7), 平成25年度 年次經濟財政報告(經濟財政白書).

財務省(2012. 8), 社會保障の安定財源の確保等を図る税制の抜本的な改革を行うための消費
税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等の法律案 成立.

_____ (2014. 2), 日本の財政關係資料.

厚生労働省(2010), 公的年金財政狀況報告 附屬資料.

_____ (2013. 8), 平成25年版 厚生労働白書.

_____ (2012. 2), 被用者年金制度の一元化等を図るための厚生年金保険法等の一部を改正
する法律案.

_____ (2012. 8), 公的年金制度の財政基盤及び最低保障機能の強化等のための國民年金法
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_____ (2013. 12), 持続可能な社會保障制度の確立を図るための改革の推進に関する法律概要.

獨立行政法人勤勞者退職金共済機構(2013. 3), 平成4事業年度 事業報告書.

社會保障制度改革報告書(確かな社會保障を將來世代に伝えるための道筋)(2013. 8).

森信 茂樹・河本 敏夫(2011. 3), 「日本版IRA」(個人型年金積立金非課税制度)導入の提言, 財
務省財務總合政策研究所.

小野 正(2011. 11. 26), 非正規労働者と企業年金, 日本年金學會シンポジウム.

_____ (2013. 5), 企業年金の課題とその將來像, 日本年金學會誌, 制31號.

山口 修(2013. 12), 公的年金の現状と課題, 日本年金學會誌, 制32號.

山田千秀(2011), 企業年金等の擴充に向けて, 厚生労働委員會調査室.

中嶋 邦夫(2012. 4. 25), 2012年 年金關連法案のポイント, ニッセイ基礎研究所.

堀江奈保子(2009. 8), 廢止まで2 年半となった適格退職年金, みずほ總合研究所.

石田成則(2010), 公私役割分担の考え方と年金政策, 厚生労働省.

企業年金聯合(2012. 3), 企業年金に関する基礎資料.

日本經濟新聞(2013. 2. 11).

◆ 세계 100대 은행과 국내 은행의 수익성 비교와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1. 메가뱅크의 필요성 논란

90년대 말부터 제기된 대형은행의 필요성 논란이 최근 해외 대형플랜트 건설 수주실패를 겪으면서 다시 제기되었음.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맞는 대형은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임. 세계 100대 은행의 국가별 경제규모 대비 자산규모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은행들의 GDP대비 총자산 비중은 세계 100대 은행 평균과 근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익성은 자산규모가 비슷한 해외 은행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해외사업비중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국내 시장의 성장 정체를 보완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인식되는 해외사업의 경우 우리나라 은행이 중국, 싱가포르, 호주 등에 비해서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금은 은행의 양적인 규모보다는 수익성과 성장가능성 등 질적인 측면을 발전시키기 위한 성과 중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추진되어야 함.

■ 90년대 말부터 제기된 대형은행의 필요성은 2011년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구체화된 바 있음.

○ IMF 외환위기 발생 후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33개 은행 중 10개가 정리되었고 이후 대우사태와 세계적인 대형화 추세에 따라 은행 대형화가 추진되었음.

- 한빛·평화·경남·광주은행, 한아름 중금을 합병한 우리금융그룹(2001. 4),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을 합병한 KB금융(2001. 11),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이 합병한 하나금융(2002. 12), 신한·조흥·제주은행을 합병한 신한금융그룹(2003. 6)이 설립되었음.⁴⁾

○ 이후 국내 금융산업의 자산규모는 2010년 말 기준 예금은행 1,717조 7,000억 원, 생명보험 408조 5,000억 원, 손해보험 99조 원, 증권 200조 원 등으로 은행 편중 현상이 심화됨.

4) 박덕배(2011. 6. 3), 「국내 메가뱅크 육성과 은행산업의 방향」, 초대형은행 국민에게 득인가 실인가? 국회 공청회 자료.

- 2011년 5월, 우리금융그룹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다른 금융지주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정부는 “메가뱅크” 설립을 모색하였으나 관련 법령 개정추진이 무산된 바 있음.
- 당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의 4를 개정하여 공적자금 및 정부자금이 투입된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할 경우에 한해 지분취득 요건을 50%까지 완화하여 기존처럼 지분을 100%까지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논의되었음.⁵⁾
- 법령이 개정될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중간지주회사 지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금융지주회사 설립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법령을 개정하지 못했음.⁶⁾

■ 우리금융그룹과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합병 추진 배경은 해외 대형 플랜트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형은행이 필요하다는 점임.

-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으로부터 원전사업을 수주(186억 달러 규모)할 당시 국내 금융기관의 사업자금 지급보증 조건 이행 여부가 수주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었고, 2011년 터키 원전사업(220억 달러 규모) 수주 실패 원인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능력이 논란이 되었음.⁷⁾
- 대형 플랜트 건설 사업형태가 전환되면서 수주기관의 자금조달 능력이 중요해짐.
-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발주하는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선호함.
- 터키 원전사업은 일본 미쓰비시은행의 컨소시엄이 수주하였는데 일본 은행들의 글로벌 신디케이트론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경쟁력은 세계 상위권임.⁸⁾

5) 박덕배(2011. 6. 3), 「국내 메가뱅크 육성과 은행산업의 방향」, 초대형은행 국민에게 득인가 실인가? 국회 공청회 자료.

6) 금융지주회사법 제1조에서는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7) 매일경제 사설(2013. 5. 5)은, “2009년 UAE 원전 수주 때는 자산규모 50위 이내의 대형은행 보증서를 받아오라는 요구에 영국 SC은행에 수수료를 주며 손을 벌린 뒤 국내 금융회사 대형화 필요성을 절감한 바 있다”라고 기술하며, 대형원전 수주와 금융경쟁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음. 특히 터키 원전수주의 경우 터키 정부가 이례적으로 정부의 보증 없이 사업자가 자체 재원을 조달할 것을 요구했는데, 한국 컨소시엄은 5.3% 조달금리를 제시했지만, 일본은 경쟁국에 비해 1~2%p 낮은 조달금리를 제시했다고 함.

■ 해외 대형 플랜트 수주 실패 이후 경제규모 세계 15위에 부합하는 대형은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각된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GDP기준 경제규모 15위)보다 경제규모가 적은 스웨덴(GDP기준 44위, 총자산 8,937억 달러의 노르디아은행)의 경우 세계 50대 은행을 보유하고 있음.

- 세계 50대 은행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100대 은행에는 우리나라 6개 은행들이 포함됨.

○ GDP규모 20위권 국가 가운데 기본자본 기준 세계 100대 은행이 없는 국가들로는 멕시코, 터키, 인도네시아 등임.

■ 본 연구에서는 경제규모와 대형은행의 국가별 분포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과 해외사업 비중을 해외 은행들과 비교하여, 수익성 관점에서 대형은행 필요성에 대한 논란을 검토하고자 함.

○ 영국의 뱅커지(The Banker)가 선정한 기본자본 기준 세계 100대 은행의 국가 경제규모와 자산규모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은행의 규모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고자 함.

○ 우리나라 은행들과 자산규모가 비슷한 해외 은행들, 그리고 미국 상업은행과의 수익성을 비교하여 수익성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외사업비중과 향후 성장가능성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함.

8) 일본의 4대 대형은행들의 글로벌 신디케이트론 시장 리그테이블 순위는 2003년 이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의 2011년 신디케이트론 금액은 전년 대비 232% 급증한 1,48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미쓰비시 UFJ는 1,3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0% 증가했음. 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셜 그룹도 지난해 1,000억 달러의 실적을 기록하여 2010년 대비 229% 증가율을 보였음.

2. 경제규모와 은행의 규모

기본자본 기준 세계 100대 은행의 자산규모 합계와 해당 은행의 국가 경제규모를 비교한 결과, 세계 100대 은행의 GDP대비 총자산 비중은 평균 1.41배로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경우 1.38배로 나타났음. 국가별 자산규모 1위인 대형은행의 자산비중을 해당 국가의 경제규모에 비해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자산규모 1위 은행의 자산비중은 미국 자산규모 1위인 대형은행의 GDP대비 자산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13년 뱅커지 선정 세계 100대 은행을 국가별로 구분해 보면 영미권 55개(미국 16개, EU 35개, 호주 4개), 아시아 국가 22개(중국 13개, 일본 7개, 싱가포르 2개) 등이 있음.

○ 우리나라 은행들의 순위는 기본자본 기준으로 KB금융지주가 68위, 자산기준으로 우리금융지주가 79위를 기록하였음.

- 기본자본(Tier 1 Capital) 기준으로 2013년 세계 100대 은행에 포함된 국내은행들은 KB지주, 산은지주, 우리지주, 신한지주, 하나지주, 농협지주이며 이들의 자산총계는 1조 5천억 달러 수준임.

- 이중 신규 편입된 하나지주를 제외한 세계 100대 은행에 포함된 국내 은행들의 총자산 증가율은 2012년 기준 16.3% 수준임.

■ 우리나라 6개 대형은행들의 총자산 규모는 GDP대비 1.38배로 세계 100대 은행 평균 1.41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기본자본 기준 세계 100대 은행의 국가별 자산총계의 국가별 GDP대비 비중을 비교한 결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호주 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EU의 역내통합과 유럽 은행들의 지역 내 사업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유럽 은행들의 경우 유니버설뱅크이기 때문에 은행자산과 보험자산, 증권업 관련 자산을 모두 보유하기 때문일 수도 있음.⁹⁾

9) 프랑스의 BNP Paribas, Credit Agricole, Societe General, 영국의 RBS, 로이드뱅크그룹, HSBC 등은 보험 사업을 병행하는 금융그룹이며, 스위스의 UBS, Credit Suisse 등은 투자은행을 겸업하는 금융그룹임.

-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의 GDP대비 대형 은행의 총자산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각국 자산규모 1위 은행의 GDP대비 자산비중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0.23배로 브라질, 러시아, 인도와 유사하고 미국의 0.15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기본자본 기준 68위인 KB지주의 GDP대비 자산비중은 0.20배이고 우리금융지주의 자산규모는 GDP의 0.23배임.
- 미국 최대 은행인 JPMorgan Chase의 GDP대비 자산규모 비중은 0.15배이고 EU 지역 최대 은행인 도이치뱅크의 자산규모는 EU GDP의 0.15배, 독일 GDP의 0.77배 수준임.

■ GDP대비 자산비중이 최소 0.24배(러시아)에서 최대 3.77배(스위스)까지 분포하는 원인은 해외사업 비중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미국 은행 중 세계 50대 은행에 포함된 은행 중 JPMorgan Chase와뱅크오브아메리카의 경우 2010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각각 22%, 17%의 수익을 해외에서 창출하고 있음.
- 영국 HSBC의 경우 해외 시장 영업이익 비중이 2010년 78% 수준이며, RBS의 경우도 약 40%를 해외에서 창출하고 있음. 일본 미쓰비시UFJ의 경우 매출액의 31%를 해외에서 창출하고 있음.
- 2009년 기준으로 프랑스의 BNP파리바의 경우 해외자산 비중이 53.5%, 이탈리아 최대 은행인 UniCredit의 경우도 해외자산 비중이 58.7%에 이름.¹⁰⁾
 - 미국, 영국과 유럽 국가들의 문화적 동질성으로 지역 다각화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스위스의 경우 UBS와 크레딧스위스는 투자은행 사업비중이 크지만 UBS은행의 해외사업 비중은 2009년 자산기준으로 73.7%이며 크레딧스위스 자산관리사업의 해외사업 비중은 86%에 이름.
- 반면 중국 공상은행(ICBC)의 경우 2013년 해외자산 규모는 총자산의 6%인 1,697억 달러로 우리나라 대형은행 총자산의 11% 수준이고, 우리나라 은행의 해외자산비중은 2013년 상반기 기준 4.3%에 불과하나 자산비중은 GDP대비 1.38배임.

10) 산은경제연구소(2009), 『세계 50대 은행의 국가별 분포 현황 및 시사점』.

〈표 1〉 세계 100대 은행의 국가별 분포와 GDP대비 자산비중

(단위: 개, 십억 달러, 배, %)

	국가별 은행 수	은행의 자산총계(A)	국가별 1위 은행자산(B)	국가별 GDP(C)	GDP대비 자산총계 비중 (A/C)	GDP대비 국가별 1위 은행 자산 비중 (B/C)
중국	13	13,379.9	2,798.9	8,221.0	1.63	0.34
미국	16	11,947.4	2,359.1	16,244.6	0.74	0.15
EU	35	25,918.8	2,516.2	16,673.0	1.55	0.15 ¹⁾
영국	6	9,521.9	2,692.5	2,476.7	3.84	1.09
프랑스	5	9,180.6	2,516.2	2,613.9	3.51	0.96
독일	5	4,853.0	2,654.8	3,429.5	1.42	0.77
스페인	4	3,183.8	1,675.0	1,323.5	2.41	1.27
네덜란드	3	2,618.9	1,106.0	770.9	3.40	1.43
이탈리아	2	2,111.2	1,222.7	2,014.1	1.05	0.61
스웨덴	4	1,921.9	893.7	523.8	3.67	1.71
벨기에	2	810.2	338.9	483.9	1.67	0.70
덴마크	1	615.9	615.9	314.9	1.96	1.96
오스트리아	2	461.7	282.1	394.9	1.17	0.71
아일랜드	1	161.6	161.6	210.9	0.77	0.77
일본	7	8,763.2	2,709.4	5,960.3	1.47	0.45
캐나다	6	3,423.7	825.8	1,821.4	1.88	0.45
호주	4	2,910.9	793.8	1,541.7	1.89	0.51
스위스	2	2,381.1	1,007.9	631.2	3.77	1.60
브라질	4	1,788.6	555.0	2,253.1	0.79	0.25
한국	6	1,561.3	263.4	1,129.5	1.38	0.23 ²⁾
러시아	2	741.2	497.1	2,029.8	0.37	0.24
싱가포르	2	495.0	288.4	276.5	1.79	1.04
노르웨이	1	406.6	406.6	499.6	0.81	0.81
인도	1	389.4	389.4	1,841.7	0.21	0.21
말레이시아	1	161.8	161.8	304.7	0.53	0.53
합계/평균	100	83,790.8	-	57,312.1	1.41 ³⁾	-

주: 1) EU의 경제통합을 고려한 EU역내 자산기준 최대은행의 GDP대비 자산비중임.

2) 자산규모가 가장 큰 우리금융지주의 자산규모를 사용함.

3) GDP대비 자산총계 비중의 평균임.

자료: The Banker(2013), IMF.

■ 세계 100대 은행들의 경영성과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적었던 호주와 중국, 캐나다 은행들의 자산이익률(ROA)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은행들의 ROA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스위스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UBS, Credit Suisse 등이 포함되어 있어 ROA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대출비중이 높은 이탈리아, 스페인 은행들의 경우 부실채권비율(Non Performing Loan)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표 2〉 세계 100대 은행의 규모와 수익성¹⁾

(단위: 개, 십억 달러, %)

국가	은행 수	평균자산	대출비중	ROA	부실대출비율
중국	13	1,029.23	53.33	1.51	0.82
미국	16	746.71	46.76	1.33	2.50
영국	6	1,586.98	46.09	0.25	4.68
프랑스	5	1,836.11	46.80	0.29	3.77
독일	5	970.60	44.47	0.17	2.67
스페인	4	795.95	67.17	-0.40	6.81
네덜란드	3	872.98	73.87	0.36	2.50
이탈리아	2	1,055.61	60.19	0.19	7.22
스웨덴	4	480.47	61.67	0.73	-1.73
벨기에	2	405.08	55.08	-0.23	3.10
덴마크	1	615.87	54.36	0.25	4.00
오스트리아	2	230.84	63.01	0.57	9.50
아일랜드	1	161.63	74.73	-3.13	20.70
일본	7	1,251.88	5.53	0.51	-6.94
캐나다	6	570.61	55.53	1.06	0.74
호주	4	727.73	72.62	1.19	1.15
스위스	2	1,190.57	25.14	0.05	0.82
브라질	4	447.14	51.40	1.48	2.87
한국	6	260.21	64.24	0.68	1.46
러시아	2	370.61	75.42	2.27	4.30
싱가포르	2	247.52	68.43	1.32	1.35
노르웨이	1	406.62	58.90	0.78	2.18
인도	1	389.43	65.28	1.30	2.10
말레이시아	1	161.83	64.22	1.60	1.78
합계/평균	100	700.51	56.43	0.59	3.26

주: 1) 부실대출비율은 대출 잔액 대비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대출(Non Performing Loan, NPL)비율임.

자료: The Banker(2013).

3. 국내 은행의 수익성과 해외사업 비중 비교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을 2013년 뱅커지 선정 자산순위 70위권에서 120위권 은행들과 비교해보면,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스웨덴 은행들에 비해 우리나라 은행들의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규모와 사업구조가 우리나라 은행들과 유사한 미국 중형은행그룹에 비해서도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향후 성장가능성을 반영하는 해외사업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일본, 싱가포르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뱅커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은행에 포함된 우리나라 은행들과 자산규모와 사업구조가 유사한 해외 은행들의 수익성을 비교한 결과,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스웨덴 은행의 평균 ROA에 비해 우리나라 은행의 ROA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3〉 참조).¹¹⁾

- 자산규모, 총자산대비 대출비중도 유사한 싱가포르 은행들의 자산이익률이 1.36%로 우리나라 은행들 0.68%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싱가포르 United Overseas Bank의 해외사업 비중은 순이익 대비 32.8%이며 DBS의 경우 싱가포르 지역의 순이익 비중은 62%이며 홍콩,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나머지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미국과 캐나다 은행들의 경우 대출비중이 우리나라에 비해 다소 낮지만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 은행들의 대출비중은 50% 수준이고 평균 해외자산도 총자산 대비 17% 수준임(〈표 4〉 참조).

- 캐나다 은행 가운데 89위인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자산규모 3,937.4억 달러)와 94위인 Desjardin Bank(자산규모 1,976.9억 달러)의 경우 해외사업 비중이 미미하나 2012년 ROA는 각각 1.03%와 1.06%를 기록함.¹²⁾

11) 자산규모 71위부터 120위까지 32개 해외 은행들과 ROA를 비교하였음. 자산규모가 가장 큰 은행은 신한금융그룹 3,197억 달러로 자산기준 76위, 가장 작은 은행은 KDB금융그룹으로 1,792억 달러로 자산기준 111위임. 사업구조는 총자산대비 대출비중으로 비교하였음.

12) 캐나다 은행 가운데 56위인 Bank of Montreal(자산규모 5,259억 달러)의 ROA는 0.98%인데 미국 중심의 해외사업비중은 2013년 순이익 대비 15% 수준이며, ROA 0.98%인 51위인 Toronto Dominion

- 금융위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스웨덴의 Swedbank는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해외시장의 경우 동유럽 국가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에서 수익의 15%를 창출하고 있음.

〈표 3〉 자산규모 71~120위 은행의 국가별 분포와 현황

(단위: 개, 십억 달러, %)

국가	은행 수	평균자산	대출비중	ROA	부실대출비율
미국	7	254.3	50.2	1.26	1.87
스위스	2	173.8	76.4	0.43	0.25
이탈리아	3	212.5	73.3	-0.75	8.00
독일	3	244.3	63.8	0.05	4.90
중국	4	210.6	55.0	1.36	0.94
벨기에	2	309.9	61.5	0.33	5.30
오스트리아	2	230.8	63.0	0.57	9.50
캐나다	2	187.9	57.7	1.08	0.65
싱가포르	2	247.5	68.4	1.32	1.35
스페인	2	210.5	72.9	-1.21	9.16
한국	7	249.4	63.4	0.68	1.45
스웨덴	1	283.9	68.7	1.00	n.a.
합계/평균	37	234.6	64.5	0.52	3.94

주: 자산규모 71~120위권 은행 중 우리나라 은행들과 자산규모가 유사한 은행 30개와 비교함.

- 반면,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은행들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실대출(Non Performing Loan)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은행들의 해외사업비중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총자산대비 부실대출비율은 9.16%, 8.00%로 마이너스 ROA를 기록하였으며 벨기에와 오스트리아의 경우, 각각 5.30%와 9.50%의 부실대출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기록함.¹³⁾

Bank(자산규모 8,118억 4,000만 달러)의 경우 2013년 순이익 대비 22.9%의 미국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유럽지역에서도 기업금융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13) 독일의 Norddeutsche Landesbank, Helaba Bank, HSH Nordbank 등은 항공기, 선박 등과 관련된 기

- 스페인의 Caixabank는 동유럽, 중국, 북아프리카 은행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지 고객 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Banco Popular Espanol와 Banco Sabadel 등의 해외사업 비중도 미미한 것으로 보임.
- 반면 오스트리아의 Erste Group의 경우 해외사업비중은 2013년 순이자수익 기준으로 51%, RBI 그룹의 경우 자산기준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음.
-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은행을 비교할 경우 해외사업비중의 차이가 수익성 격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미국 은행들의 자산이익률(ROA)과 예대마진(Net Interest Margin)을 비교한 결과 자산규모가 작은 미국 은행들에 비해 국내 대형은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4〉 참조).¹⁴⁾

- 국내 대형은행들의 순이자마진이 평균 2.27%인데 비해 미국 은행그룹의 경우 중형은행 3.81%, 대형은행 3.24%로 나타남.
- 순이자마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각국의 금리차, 시장경쟁구조, 소비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 등이 있어,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우리나라 6대 은행들의 ROA는 평균 0.68%로 미국 대형은행 평균 0.99%, 중형은행 1.0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ROE의 경우 우리나라 은행 평균은 10.3%로 미국 대형은행 8.8%, 중형은행 8.64%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업고객에 대한 대출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어 우리나라 은행과 비교가 용이하지 않음.

14) 미국 연방예금보험에 가입한 상업은행 중 자산규모 100억 달러 이상(이하 대형은행, 89개) 은행과 자산규모 1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미만의 은행(이하 중형은행, 446개)이 비교 대상임. 2012년 말 기준으로 89개 미국 대형은행의 총자산은 11조 400억 달러이며 446개 미국 중형은행의 총자산은 1조 1,638억 7,000만 달러로 국내 6대 은행의 총자산 1조 521억 9,000만 달러와 근사한 수준임. 총자산대비 대출비중이 61.5%로 국내 은행 65.8%와 유사하고 해외사업 비중이 0.2%로 국내 은행 4.3%보다 적어 예대마진을 비교하는데 용이한 것으로 보임. 국가별 은행산업 총자산 비중으로는 미국 대형은행 그룹이 80.2%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6개 대형은행이 66%를 차지하고 있음.

〈표 4〉 국내 은행과 미국 상업은행의 자산, 부채, 수익성 비교

(단위: 개, 십억 달러, %)

	미국 중형은행	미국 대형은행	국내 6개 은행지주
	총자산 10억 달러 이상 100억 달러 미만	총자산 100억 달러 이상	6개 금융그룹
은행 수	446	89	6
자산	1,168.4	11,045.6	1,521.9
산업 비중	(10.1) ¹⁾	(80.2)	(66.1)
대출	720.4 (61.7)	5,468.1 (49.5)	1,001.4 (65.8)
유가증권	255.6 (21.8)	2,225.6 (20.1)	313.6 (20.6)
해외 자산	2.3 (0.19)	1,875.2 (17.0)	654 ²⁾ (4.3)
부채	1,030.9	9,806.8	1,392.2
예금	914.4 (83.8)	8,105.8 (82.6)	865.3 (62.2)
자본	137.5	1,238.8	129.7
Tier 1	115.8 (9.9)	917.4 (8.3)	105.2 (8.5)
RoE	8.80	8.64	10.3
RoA	1.02	0.99	0.68
NIM	3.81	3.24	2.27

주: 1) 2012년 말 기준이며 괄호는 미국 상업은행 총자산 대비 비중을 나타냄.

2) 국내 6대 은행의 해외자산은 국내은행 은행계정 총자산의 4.3%를 적용한 금액임.

자료: FDIC, 금융감독원.

■ 수익비중에서도 미국 상업은행들의 비이자수익¹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5〉 참조).

○ 미국 상업은행들의 비이자수익 비중이 34%로 우리나라 은행들의 21.3% 수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¹⁶⁾

- 미국 상업은행들의 비이자수익은 트레이딩 손익 및 수수료, 예금계좌유지 서비스, 신탁(Fiduciary Activity) 수수료, 판매수수료 등으로 구성되는데, 대형은행들은 트레

15) 비이자수익 비중은 총수익(비이자수익과 이자수익의 합) 대비 비이자수익 비중으로 계산되었음.

16) 국내 은행의 비이자수익 비중은 BOK이슈리뷰(2013. 4-6)에서 재인용함.

이딩 관련 수수료 비중이 높고 중소형 은행들은 예금계좌유지 서비스 수수료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 대형은행들이 신수익원 확보를 위해 이자율 스왑, 외환 선물/선도 시장 등 파생상품 트레이딩에 참여하면서 비이자수입 구성이 다양화되었음.
- 2012년 비이자수입 대비 트레이딩 관련 수수료 비중이 8.2% 수준임.¹⁷⁾

〈표 5〉 미국 상업은행의 수익구조 비교

(단위: 개, 십억 달러, %)

	미국 상업은행	미국 총자산 10억 달러 이상 은행
은행 수	6,096	535
이자수익	444.9	397.4
이자비용	57.2	49.5
비이자수익	227.4	215.8
신탁	27.5	26.4
예금계좌 유지	32.5	29.6
트레이딩 관련	17.9	17.8
기타 비이자수익	149.5	141.9
비이자수익 비중	34	35
비이자비용	388.5	352.1

자료: FDIC.

■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우 IMF위기 이후 인수·합병으로 자산규모 측면에서는 대형화되었으나 수익창출 측면의 핵심 역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자산수익률(ROA), 예대마진(NIM)도 낮고 비이자수익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익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미국 은행산업의 경우 투자은행사업 분리, 이자율 규제, 수익성 악화 등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으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것으로 판단됨.

17) 미국 상업은행의 트레이딩 관련 비이자수입 비중은 80년대 후반 20% 수준이었고 90년대 초반에는 25% 수준까지 확대되었으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축되었음.

4. 국내 은행의 규모와 수익성 비교 결과

국내 은행의 자산규모는 GDP대비 기준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수익성은 해외 은행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해외사업비중도 중국 은행들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시장 의존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임. 예대마진, 자산이익률이 낮다는 점은 은행의 자금조달-운용 등 핵심역량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함. 핵심역량이 취약한 원인은 과거 경제개발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반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시장을 개척해 왔고 지역 다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동력을 확대해왔음.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대형은행들은 은행업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는 조달-운용 수익, 수익원 다변화 측면에서 해외 은행들에 비해 경쟁력이 뒤쳐지는 것으로 보이고, 해외사업비중이 낮아 향후 성장 전망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임.

가. 핵심역량 부재와 낮은 수익성

- 우리나라의 제조업 발전과는 달리 금융산업의 경우, 자금조달과 운용이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 금융의 본질인 리스크 관리 및 평가 역량 개발은 뒤쳐졌음.
 - 경제개발계획 시기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역할은 정부가 들여온 차관을 정해진 금리에 따라 기업에게 배분하는 역할이었음.
 - 80년대 후반 금리자유화가 시작되며 금융산업 발전에 관심이 확대되긴 했으나 90년대 후반 IMF금융위기로 인한 은행들의 구조조정으로 핵심역량 강화가 추진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 반면 삼성전자는 기술력, 디자인 역량 등을 바탕으로 전세계 전자제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음.¹⁸⁾

18) 1969년 설립된 삼성전자는 같은 해 제정된 전자공업진흥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자금 및 인력,

- 설립 이후 수출을 통해 세계시장을 무대로 경쟁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과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였음.
- 반도체의 경우 1994년 8월 세계최초로 256메가 D램, 이후 1996년 10월 1기가 D램을 개발하였고 이 과정에서 169건의 특허를 국내 외에 출원하였음.
- 휴대폰의 경우 95년 10월 디지털 CDM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이후 국내 시장점유율을 50% 이상 확대하였고 96년 9월에는 미국 스프린트사에 6억 달러 규모의 CDMA를 수출하였음.
- 디스플레이의 경우 88년 9월 국내기업으로는 최초로 헝가리에 컬러 TV 공장을 설립 하였고 92년에는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도 하였음.
- 생산의 국제화 및 해외시장을 확대하며 2000년대 들어 다국적기업으로 성장을 본격화하였음.

■ 대공황 이후 글래스 스티걸법으로 투자은행 업무가 금지된 미국의 상업은행들은 금융역량 강화, 사업다각화 등을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음.

- 1934년 글래스 스티걸 법 제정 이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분리되고 투자은행이 급성장하며 미국 은행산업은 공공기관과 같은 성장정체에 빠졌음.
- 이후 50년대 신용카드 개발, 58년 리볼빙 신용카드 도입, 1973년 CMA 등을 개발하며 소매금융사업을 중심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였음.
- 1812년 설립된 씨티은행은 1921년 업계 최초로 복리계좌 상품을 개발하였고, 1928년 무보증 개인대출 상품, 1935년 월 균등상환 상품, 1961년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 등을 개발하였고 1965년 신용카드사업을 시작하며 소매금융역량을 강화하였음.
- 80년대 초 미국의 대형 상업은행들은 파생상품 트레이딩에 진출하여 비이자수익을 확대하였음.
- 80년대 이후 지속된 경쟁 심화, 머니 무브¹⁹⁾, 기업의 자금조달 패턴 변화, 비금융회사

그리고 해외사업 지원을 받았으나 90년대 들어 기술개발과 해외시장개척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왔음.

19) 머니무브는 60년대 본격화되었는데, 물가 및 금리 상승과 금리변동성 확대, 이자상한제(Regulation Q)

의 금융산업 진출 등으로 경영환경이 급변하였는데, 이러한 변화에서 생존하기 위해 해외진출이 본격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대형화가 이루어졌음.

나. 지역다각화 부진과 성장가능성

- 국내 대형은행의 GDP대비 총자산 비중이 높지만 해외사업 비중이 낮다는 점은 국내시장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의미하고, 국내시장의 성장이 정체될 경우 향후 성장성과 수익성이 둔화될 우려가 있음.
- 국내 은행들의 해외사업비중은 중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해외사업비중과 수익성 간 강한 인과관계를 본고의 분석에서 발견하기는 어려웠으나 최근 미국과 영국의 대형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자국 시장의 성장둔화를 해외사업 확대에 대응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의 대형은행들은 지역다각화를 확대하여 자국시장의 성장둔화를 보완하며 수익성을 회복하고 있음.
 - JPMorgan Chase와 씨티그룹의 2013년 해외자산 비중은 총자산 대비 36.4%와 44.6%로 2008년 말 32.1%와 42.1%에서 소폭 확대되었음.
 - JPMorgan Chase의 경우 유럽 비중을 확대하고 있고 씨티그룹은 아시아와 유럽지역의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 두 은행의 2013년 경영성과의 경우 순이자마진은 2009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자산 순이익률은 2009년에 비해 개선되었음.
 - HSBC의 경우 홍콩 및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도입으로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이 크게 줄어들었음. 기업대출 비중은 45년 45%에 달했으나 95년 30%, 2008년 25%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가계대출 비중은 45년 28%에서 2009년 75%까지 증가하였음.

〈표 6〉 JPMorgan Chase와 씨티그룹의 경영성과

(단위: %)

연도	JPMorgan Chase		Citigroup	
	순이자마진	ROA	순이자마진	ROA
2009년	2.43	0.82	3.52	-0.47
2013년	2.85	0.91	3.76	1.07

자료: FDIC.

-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 은행들에 비해서도 지역다각화가 부진한 상황임.
 - 중국 은행들의 경우 정부의 해외진출 장려정책을 배경으로 자원개발회사, 건설회사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서비스 지원 강화 차원에서 해외진출이 시작되었음.
 - 중국 공상은행(ICBC)의 경우 2000년 7월 홍콩의 Union Bank of Hong Kong 지분 매입을 시작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지역에 지점 설립과 지역 은행의 지분을 매입하며 지역다각화를 가속화하고 있음.
 - 중국 건설은행(CCB)의 경우 미국, 호주,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인수 합병을 통해 활발히 진출하고 있음.
 - 일본의 MUFG의 경우 북미, 유럽, 남미지역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확대하며 일본 사업비중을 2008년 매출액 기준 76%에서 2010년 69%로 축소하였음.
 - 2008년 미국 Union Bank 인수, 2010년 RBS PF사업 인수 등 지역 및 사업 다각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싱가포르 은행들의 경우도 자국 시장 경쟁심화와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해외진출 전략에 따라 아시아 주변국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음.²⁰⁾
 - UOB(해외사업 비중은 순이익 대비 32.8%)는 2004년 이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진출을 확대하였고 DBS(해외사업비중 순이익 대비 38%)의 경우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 등으로 인수합병을 통한 진출을 확대하고 있음.

20) KB금융그룹 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싱가포르의 경우 은행산업 전체 자산에서 외국계은행의 비중이 54.8%를 차지하고 있고 싱가포르 은행인 DBS(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UOB(United Overseas Bank), OCBC(Overseas Chinese Banking Corporation) 등이 나머지 시장을 분할하고 있음.

5. 결론 및 시사점

수익성 제고를 위한 핵심역량 강화와 지역다변화를 통한 성장여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영의 자율성과 일관된 경영정책 추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지금은 대형화보다는 수익성 제고와 성장여력 확보를 통해 금융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세계 100대 은행에 포함된 국내 은행들의 자산규모는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대형은행들의 GDP대비 총자산 비중은 1.38배로 세계 평균 1.41배와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수익성과 성장여력은 경쟁국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자산규모를 늘리는 것보다는 핵심역량 확보와 해외진출을 통한 성장가능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채 대형화를 추구한 일본 은행들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규모 확대와 수익성 간에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음.²¹⁾²²⁾
 -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의 경우 90년대까지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여 이를 통해 국내 및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였음.
 - 대공황 이후 투자은행 업무와 상업은행 업무가 분리된 이후, 전통적 상업은행 업무 쇠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상업은행들은 신용카드 등 상품개발을 통한 소매금융을 확대하였고 지역다각화를 통해 수익원을 다변화하였음.
 - 영국의 경우 70년대 이후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에서 생존하기 위해 사업다각화 및 지역다각화를 확대하였음.

21) Ju-ichi Yamanaka(1992. 6), "Institutional Behavior of Japanese Commercial Banks: An Empirical Perspective", The Hoover Institution, Stanford University.

22) Constantine C. Markides(1995), "Diversification, Refocusing, and Economic Performance", MIT Press, Cambridge MA.

- 금융회사의 핵심역량 확보와 해외진출을 통한 성장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성과 중심의 경영여건이 확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하에서 금융회사 경영의 전문성·자율성·일관성 등이 제고되어야 함.

〈참 고 문 헌〉

각사 연차보고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박진근(2009. 5. 25),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한국경제연구원.

손진식 · 김수진(2011), 「국내 은행의 영업형태와 위험성 및 수익성간의 관계」, BOK 이슈 리뷰, 한국은행.

이건희(2005), 「삼성그룹 글로벌 CEO 이견희 회장의 시대별 기업 활동과 경영전략」, 『유라시아연구』 제3권 제1호.

정지홍 · 박기준, 「일본의 원전 세일즈 활동으로 살펴본 원전수출 영향 및 대응방안」, CEO Report, KEPCO 경제경영연구원.

한국산업은행(2010. 9), 「세계 50대 은행의 국가별 분포 현황 및 시사점」, 금융경제 이슈.

한국은행 보도참고자료(2013. 7. 7), “세계 1000대 은행과 우리나라 은행”.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3. 2), 『싱가포르 은행들의 해외진출 현황 및 전략』, 경영정보리포트.

Constantine C. Markides(1995), "Diversification, Refocusing, and Economic Performance", MIT Press, Cambridge MA.

Ju-ichi Yamanaka(1992. 6), "Institutional Behavior of Japanese Commercial Banks: An Empirical Perspective", The Hoover Institution, Stanford University.

Thomson Reuters, "Global Syndicated Loans Review", 2013. 1분기.

I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2013년 4/4분기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 및 일본의 경우 둔화된 반면 유로 지역의 경우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음. 반면 중국 등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둔화 추세를 지속함.

■ 2013년 4/4분기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은 모두 둔화됨.

- 미국의 경우 전분기보다 1.5%p 하락한 2.6% 성장하였으며 일본도 전기대비 0.1%p 하락한 0.2% 성장함.
- 중국은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3/4분기보다 0.6%p 하락한 1.7% 성장함.
- 반면 유로 지역의 경우, 4/4분기 0.2% 성장하며 3/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지속함.

〈표 1〉 세계경제 성장률¹⁾

(단위: 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 ¹⁾	1.3	1.1	1.4	1.3	3.2	1.0	1.5	1.3	1.1	3.0
선진국 ¹⁾	0.9	0.5	0.7	0.6	1.4	0.6	1.0	0.9	0.8	1.3
신흥국 ¹⁾	0.6	0.0	0.2	0.0	5.0	0.3	0.6	0.6	0.5	4.7
미국 ²⁾	3.7	1.2	2.8	0.1	2.8	1.1	2.5	4.1	2.6	1.9
유로 ³⁾	-0.1	-0.3	-0.1	-0.5	-0.7	-0.2	0.3	0.1	0.2	-0.4
일본 ⁴⁾	0.9	-0.5	-0.8	0.1	1.4	1.1	0.9	0.3	0.2	1.5
중국 ⁵⁾	1.4	2.1	2.0	1.9	7.8	1.5	1.8	2.3	1.7	7.7

주: 1) 분기 경제성장률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가율, 연간 경제성장률은 원계열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83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타이완 외 32개국 / 신흥국: 멕시코, 이란 외 149개국.

3) 분기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4, 4).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4, 3).

3) Eurostat(2014, 4).

4) 일본 내각부(2014, 3).

5) 중국 국가통계국(2014, 4).

■ 2013년 4/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와 유사한 100.1을 기록함.

- 미국, 유로지역, 일본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중국은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99.4를 나타냄.

〈표 2〉 OECD 경기선행지수¹⁾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 ²⁾	100.0	99.8	99.7	99.7	99.8	99.8	99.9	100.0	100.1	99.9
선진국 ³⁾	99.8	99.7	99.5	99.6	99.7	99.9	100.2	100.4	100.6	100.3
미국	100.0	99.8	99.7	99.9	99.9	100.3	100.5	100.7	100.7	100.6
유로	99.6	99.3	98.9	98.9	99.2	99.3	99.7	100.2	100.8	100.0
일본	99.9	99.7	99.4	99.4	99.6	99.8	100.3	100.7	101.1	100.5
중국	99.9	99.9	99.9	100.0	99.9	99.9	99.5	99.5	99.4	99.6

주: 1) 2007.1=100, 월간자료를 분기는 3개월, 연간은 12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OECD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3) OECD 국가.

자료: OECD.

■ 2013년 4/4분기 세계 무역규모는 선진국과 신흥국 경기 둔화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함.

- 선진국의 4/4분기 전년동기대비 무역규모 증가율은 2013년 3/4분기 1.2%에서 0.8%p 하락한 0.4%를 기록하였고 신흥국 무역규모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7%p 낮아진 -2.4%를 기록함.

〈표 3〉 세계 무역 규모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 ¹⁾	8.6	6.6	4.4	5.2	6.2	-1.2	-1.2	-0.2	-1.0	-0.9
선진국	22.5	20.7	18.3	21.0	20.6	-0.3	-0.5	1.2	0.4	0.2
신흥국	-7.7	-9.8	-11.8	-12.7	-10.5	-2.1	-1.9	-1.7	-2.4	-2.0

주: 1) 2013년 현재 OECD 국가 중 Luxembourg를 제외한 23개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60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함.

2) 선진국과 신흥국은 IMF의 분류 기준과 동일.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2013년 4/4분기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3.1%를 기록함.

- 선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3/4분기 1.5%보다 0.3%p 하락한 1.2%를 기록하였으며 신흥국의 경우 같은 기간 5.5%에서 5.3%로 0.2%p 낮아짐.
- 두바이 현물지수는 전분기대비 1.1p 상승한 반면 WTI 현물지수는 9.4p 하락하였고, CRB지수도 소폭 하락함.

〈표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

구분	소비자물가 상승률 ¹⁾ (%)					구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³⁾				
	2013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	3.2	3.2	3.3	3.1	3.8 ²⁾	두바이 현물지수	107.3	100.2	106.6	107.7	105.6
선진국	1.5	1.3	1.5	1.2	1.4	WTI 현물지수	100.7	93.9	105.1	95.7	97.5
신흥국	5.0	5.1	5.5	5.3	5.8	CRB 상품지수	297.2	285.8	287.8	279.9	287.6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IMF WEO(2013, 10).

3) 1967=100 기준.

자료: IMF WEO(2014, 4), 한국은행, Bloomberg.

가. 미국경제

2013년 4/4분기 미국 경제의 경우 민간소비와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투자 둔화와 연방정부 일시 폐쇄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였음.

〈최근 동향〉

■ 2013년 4/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연방정부 일시 폐쇄 등의 영향으로 3/4분기보다 1.5%p 하락한 2.6%를 기록함.

- 민간소비는 고용 개선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증가율이 1.3%p 상승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 2013년 3/4분기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민간투자의 경우 4/4분기 들어 설비투자는 5.7% 증가한 반면, 주택투자는 7.9% 감소하며 전분기대비 14.7%p 하락한 2.5%를 기록함.
- 수출은 9.5% 증가하고 수입은 1.5% 증가에 그친 반면, 정부지출은 예산 자동삭감, 연방정부 일시 폐쇄 등의 영향으로 5.2% 감소함.

〈표 5〉 미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연율화, %)

구분	2011		2012					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질GDP	4.9	1.8	3.7	1.2	2.8	0.1	2.8	1.1	2.5	4.1	2.6	1.9
민간소비	2.4	2.5	2.9	1.9	1.7	1.7	2.2	2.3	1.8	2.0	3.3	2.0
재화	5.0	3.4	4.6	2.2	3.7	3.7	3.3	3.7	3.1	4.5	2.9	3.5
서비스	1.1	2.1	2.1	1.7	0.7	0.6	1.6	1.5	1.2	0.7	3.5	1.2
민간투자	31.9	4.9	10.5	-1.6	6.5	-2.4	9.5	4.7	9.2	17.2	2.5	5.4
설비	9.5	7.6	5.8	4.5	0.3	9.8	7.3	-4.6	4.7	4.8	5.7	2.7
주택	12.2	0.5	23.0	5.7	14.1	19.8	12.9	12.5	14.2	10.3	-7.9	12.2
수출	2.7	7.1	4.2	3.8	0.4	1.1	3.5	-1.3	8.0	3.9	9.5	2.7
수입	5.9	4.9	0.7	2.5	0.5	-3.1	2.2	0.6	6.9	2.4	1.5	1.4
정부지출	-1.5	-3.2	-1.4	0.3	3.5	-6.5	-1.0	-4.2	-0.4	0.4	-5.2	-2.2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4, 3),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내수부문〉

- 소매판매는 2013년 4/4분기 전기대비 0.7% 증가에 그쳤으며 2014년 1월 0.6% 감소로 전환됨.

- 4/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경기둔화로 전분기대비 7.6p 하락한 73.4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1월 80.7로 상승함.

- 2013년 4/4분기 주택경기는 신규주택착공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등으로 회복세를 보임.

- 4/4분기 신규주택착공호수는 전분기대비 14.2% 증가하였으나 2014년 1월 11.2% 감소

하는 등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

- 2013년 4/4분기 주택가격지수는 전분기대비 1.6p 상승한 165.8을 기록하며 2012년 1/4분기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표 6〉 미국의 주요 내수부문 지표

구분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1.7	0.2	1.3	1.4	5.3	1.0	0.9	1.2	0.7	4.3	-0.6
소비자신뢰지수 ²⁾	67.5	65.3	65.7	69.7	67.1	62.8	75.1	81.0	73.4	73.1	80.7
신규주택착공호수 ³⁾ (%)	6.4	3.7	5.5	14.7	28.0	6.8	-9.3	1.6	14.2	18.6	-11.2
주택가격지수 ⁴⁾	134.5	139.2	145.6	146.0	141.3	147.0	155.9	164.2	165.8	158.2	165.5

주: 1) 계절조정, 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2) Conference Board 1985=100.

3) 계절조정, 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4)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절조정, 2000.1=1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S&P Dow Jones Indices.

〈생산부문〉

- 산업생산 증가율이 2013년 2/4분기 이후 상승하고 있고 경기선행지수도 상승추세를 보이며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임.

- 2013년 4/4분기 산업생산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6%p 상승한 1.2%를 나타냈으나 2014년 1월 -0.2%로 전환됨.

- 산업생산가동률은 4/4분기 78.4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2014년 1월 소폭 하락함.

- 4/4분기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대비 1.0p 상승한 56.7을 기록하였으나 연방정부 폐쇄의 영향으로 2014년 1월 51.3으로 둔화됨.

- 경기선행지수는 4/4분기 99.0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 1월에도 99.3을 보이며 상승세를 지속함.

〈표 7〉 미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산업생산증가율 ¹⁾ (%)	1.3	0.9	0.4	0.6	3.8	1.0	0.5	0.6	1.2	2.9	-0.2
산업생산가동률 ²⁾	78.0	77.7	77.4	77.5	77.7	77.7	77.8	77.9	78.4	77.9	78.1
ISM제조업PMI	52.7	52.6	51.3	50.4	51.8	52.3	50.8	55.7	56.7	53.9	51.3
경기선행지수 ³⁾	93.2	93.6	93.6	94.1	93.6	95.1	96.0	97.3	99.0	96.8	99.3

주: 1)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2) 2007=100.

3) 2004=100.

자료: 국제금융센터, Bloomberg.

〈고용과 물가〉

■ 2013년 4/4분기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실업률은 하락함.

- 전기대비 비농업 취업자 증감은 4/4분기 59만 5,000명으로 전분기대비 8만 명 증가하였고 월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4/4분기 34만 7,000명으로 전분기대비 2만 2,000명 증가함.
- 4/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2%p 낮은 7.0%를 기록하였고, 2014년 1월 6.6%로 하락함.
 - 포괄적 실업률도 2013년 4/4분기 13.3%, 2014년 1월 12.7%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임.

■ 2013년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하락하였고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전분기대비 0.5%p 하락함.

-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1.2%를 나타내었으나 2014년 1월 1.6%를 기록함.
 - 4/4분기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7% 상승하였으나 2014년 1월 0.1%p 하락한 1.6%를 기록함.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4/4분기 0.7%를 나타냈으나 2014년 1월 1.5%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임.
 - 근원 생산자 물가상승률은 4/4분기 1.3%, 2014년 1월 1.7%를 나타내며 상승세가 확대됨.

〈표 8〉 미국의 주요 고용·물가 지표

구분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실업률 ¹⁾ (%)	8.2	8.2	8.0	7.8	8.1	7.7	7.5	7.2	7.0	7.4	6.6
포괄적 실업률(u-6) ²⁾ (%)	14.9	14.7	14.8	14.4	14.7	14.2	14.0	13.7	13.3	13.8	12.7
비농업취업자 증감 ³⁾ (만 명)	82.9	29.4	47.1	64.2	223.6	61.8	60.3	51.5	59.5	233.1	12.9
실업수당 청구자 수 ⁴⁾ (만 명)	37.2	37.8	37.1	37.9	37.5	35.7	34.7	32.5	34.7	34.4	33.3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	2.8	1.9	1.7	1.9	2.1	1.7	1.4	1.6	1.2	1.5	1.6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2.3	2.3	2.0	1.9	2.1	1.9	1.7	1.7	1.7	1.8	1.6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	3.4	1.0	1.5	1.7	1.9	1.5	1.5	1.2	0.7	1.2	1.5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3.0	2.7	2.5	2.2	2.6	1.8	1.7	1.2	1.3	1.5	1.7

주: 1) 16세 이상, 계절조정.

2)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16세 이상, 계절조정.

3) 전기대비 증감.

4) 해당 기간의 청구자 수 평균.

5) 1982=100, 전년동기(월)대비.

6) 1982=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oomberg.

나. 유로경제

2013년 4/4분기 유로경제의 경우 투자와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며 전분기대비 0.2% 성장하였음.

〈최근 동향〉

■ 2013년 4/4분기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0.2%를 기록하며 2/4분기 이후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감.

○ 4/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의 경우 프랑스는 상승하였으나 독일과 이탈리아는 전기대비 하락하며 각각 -0.1%를 기록함.

○ 고정자본투자는 제조업경기 개선으로 0.6%p 상승한 1.1%를 기록한 반면 정부지출은 전분기대비 0.3% 감소함.

○ 수출은 전분기대비 1.3% 증가한 반면, 수입은 전분기대비 0.5% 증가에 그침.

〈표 9〉 유로지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1		2012					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EA17 GDP	-0.2	1.6	-0.1	-0.3	-0.2	-0.5	-0.7	-0.2	0.3	0.1	0.2	-0.4
민간소비	-0.6	0.3	-0.3	-0.5	-0.1	-0.6	-1.4	-0.2	0.1	0.1	0.1	-0.7
고정자본투자	-0.7	1.6	-1.0	-1.8	-0.7	-1.4	-4.0	-1.7	0.1	0.5	1.1	-3.1
정부지출	0.2	-0.1	-0.3	-0.3	-0.2	0.0	-0.6	0.2	-0.1	0.4	-0.3	0.1
수출	0.3	6.5	0.8	0.9	0.7	-0.6	2.5	-0.9	2.4	0.1	1.3	1.3
수입	-1.1	4.5	0.0	-0.2	0.3	-1.0	-0.9	-1.2	1.7	0.9	0.5	-0.1

자료: Eurostat(2014, 4).

■ 2013년 4/4분기 유럽 주요 5개국의 경제성장률이 모두 회복세를 유지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이 2013년 3/4분기 -0.1%에서 0.3%로 가장 크게 상승함.

○ 독일은 3/4분기 0.3% 성장에서 4/4분기 0.4% 성장하였고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3/4분기에 비해 0.1%p 낮아진 0.7%를 4/4분기에 기록하였지만 유로존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4/4분기 각각 0.1%, 0.2% 성장하였으나 유럽 주요 5개국 가운데 낮은 성장률임.

○ 또한 4/4분기 프랑스는 민간소비 및 고정자본투자, 수출 증가로 0.3% 성장함.

- 고정자본투자와 수출은 3/4분기 마이너스 성장하였지만 4/4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음.

〈생산 및 내수부문〉

■ 2013년 4/4분기 유로지역 산업생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0.4% 증가하였으나 2014년 1월에는 0.1% 감소함.

■ 2013년 4/4분기 소매판매는 전분기대비 0.5% 감소하였으나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줄어들고 있음.

- 4/4분기 유로지역 ESI(경기체감지수)는 99.1로 전분기대비 3.8p 상승하였고 2014년 1월 101.0을 기록함.
- 4/4분기에도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부정적 경기전망 응답과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
- 4/4분기 향후 경기에 대한 부정응답자 비율은 1.5%p 감소함.

〈표 10〉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유로지역 ESI ¹⁾	95.4	92.7	87.8	87.2	90.8	90.5	90.2	95.3	99.1	93.8	101.0
소매판매 증가율 ²⁾ (%)	-0.2	-0.9	-0.1	-1.3	-1.7	0.0	0.3	0.4	-0.5	-0.9	1.6
소비자신뢰지수 ³⁾	-19.6	-19.2	-23.6	-25.9	-22.1	-23.5	-20.8	-15.9	-14.4	-18.6	-11.7
산업생산 증가율 ⁴⁾ (%)	-0.7	-0.6	0.1	-2.1	-2.5	0.4	0.7	0.0	0.4	-0.7	-0.1

주: 1)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서비스업(30%)+소비자신뢰(20%)+건설업(5%)+소매거래(5%).

2)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3)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4) 계절조정 2010=100, 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자료: Eurostat, Bloomberg.

〈고용과 물가〉

- 2013년 4/4분기 유럽 주요국을 비롯한 동유럽과 남유럽의 실업률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북유럽의 경우 3/4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로지역 주요국의 2013년 4/4분기 실업률은 3/4분기보다 0.2%p 하락한 7.5%를 기록한 반면, 북유럽은 전분기와 동일한 6.7%를 나타냄.
 - 또한 4/4분기 남유럽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20.4%를 기록하였으며 동유럽 실업률도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11.7%를 기록함.
- 2013년 4/4분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유럽 전지역에서 모두 전분기보다 하락함.
 - 4/4분기 유럽 주요국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분기대비 0.4%p 하락한 1.4%를 기록하였으며 남유럽의 경우 전분기대비 0.8%p 하락한 -0.3%를 기록함.

- 4/4분기 동유럽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9%p 하락한 0.8%를 나타냈으며, 북유럽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3/4분기 1.5%에 비해 0.4%p 하락한 1.1%를 기록함.

〈표 11〉 유럽 권역별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분기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주요국 ¹⁾	북유럽 ²⁾	동유럽 ³⁾	남유럽 ⁴⁾	주요국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2013년 2/4	7.8	6.6	12.5	20.7	1.7	1.3	2.1	0.9
2013년 3/4	7.7	6.7	12.1	20.6	1.8	1.5	1.7	0.5
2013년 4/4	7.5	6.7	11.7	20.4	1.4	1.1	0.8	-0.3

주: 1) 독일, 프랑스, 영국.

2)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3)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4)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5) 전년동기대비.

자료: Eurostat.

〈표 12〉 유럽 주요국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1		2012					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독일 GDP	0.1	3.3	0.7	-0.1	0.2	-0.5	0.7	0.0	0.7	0.3	0.4	0.4
민간소비	-0.3	2.3	0.0	0.0	0.3	0.1	0.8	0.3	0.6	0.2	-0.1	0.9
고정자본투자	0.8	6.9	-0.4	-1.7	0.1	-0.7	-2.1	-1.4	1.2	1.3	1.4	-0.7
수출	-0.5	8.0	1.7	1.4	0.5	-1.6	3.2	-1.0	2.4	0.2	2.6	0.8
수입	-0.4	7.4	0.1	0.7	0.1	-0.9	1.4	-0.5	1.9	0.8	0.6	0.9
프랑스 GDP	0.1	2.0	0.1	-0.3	0.2	-0.2	0.0	0.1	0.6	-0.1	0.3	0.2
민간소비	-0.1	0.6	0.5	-0.6	0.1	0.0	-0.3	0.1	0.3	0.0	0.4	0.3
고정자본투자	1.3	2.9	-1.2	-0.3	-0.6	-0.9	-1.2	-0.7	-0.3	-0.3	0.5	-2.3
수출	1.7	5.4	0.4	0.4	0.4	-0.8	2.4	-0.5	2.3	-1.1	1.3	0.6
수입	-0.9	5.1	0.8	0.2	0.0	-1.2	-1.1	0.1	1.5	0.8	0.5	0.5
이탈리아 GDP	-0.7	0.4	-1.1	-0.5	-0.4	-0.9	-2.4	-0.6	-0.3	-0.1	0.1	-1.9
민간소비	-1.1	-0.3	-1.7	-0.5	-1.5	-0.8	-4.0	-0.6	-0.6	-0.2	-0.1	-2.6
고정자본투자	-2.1	-2.2	-3.7	-1.5	-1.2	-1.2	-8.0	-2.8	0.1	-0.6	0.9	-4.7
수출	0.9	6.2	0.3	-0.1	1.0	-0.2	2.1	-1.3	0.6	0.5	1.2	0.1
수입	-2.4	0.8	-2.7	-0.8	-1.6	-2.0	-7.0	-1.0	-0.2	0.9	0.2	-2.8

구분	2011		2012					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스페인 GDP	-0.4	0.1	-0.4	-0.5	-0.4	-0.8	-1.6	-0.3	-0.1	0.1	0.2	-1.2
민간소비	-1.0	-1.2	0.2	-1.1	-0.7	-2.0	-2.8	-0.4	0.1	0.5	0.5	-2.1
고정자본투자	-3.3	-5.4	-1.7	-3.3	0.2	-3.0	-7.0	-1.2	-1.9	0.7	0.7	-5.1
수출	0.1	7.6	-3.1	0.6	6.5	0.6	2.1	-4.5	7.0	0.6	0.8	4.9
수입	-2.8	-0.1	-3.3	-2.2	4.6	-2.6	-5.7	-4.6	6.1	2.1	-0.6	0.4
영국 GDP	-0.1	1.1	0.0	-0.4	0.8	-0.2	0.3	0.4	0.8	0.8	0.7	1.7
민간소비	0.2	-0.4	0.5	0.5	0.3	0.4	1.4	1.0	0.3	0.8	0.3	2.2
고정자본투자	-0.4	-2.4	4.6	-1.5	-2.7	-5.1	0.8	0.9	4.0	1.9	1.9	-0.6
수출	2.9	4.5	-1.2	-1.4	3.3	-1.1	1.7	-1.0	2.5	-1.9	2.8	1.0
수입	1.6	0.3	1.0	1.2	0.5	0.0	3.4	-2.4	2.3	1.5	-0.4	0.5

자료: Eurostat(2014, 4).

다. 일본경제

2013년 4/4분기 일본경제는 금융완화 및 재정지출 확대,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0.2% 성장에 그쳤으며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음.

〈최근 동향〉

- 2013년 4/4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주택투자 증가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0.2%를 기록함.
 - 2014년 4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4/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0.4%를 기록하였고 주택투자 증가율은 4.1%를 기록함.
 - 또한 2013년 4/4분기 설비투자는 전분기보다 0.8% 증가함.
 -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었던 정부지출은 4/4분기 0.5% 증가한 반면 4/4분기 공공투자 증가율은 2.1%에 그침.
 - 4/4분기 수출은 0.4% 증가하며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수입은 투자 확대에 전분기대비 3.5% 증가함.

〈표 13〉 일본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1		2012					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질 GDP	0.3	-0.5	0.9	-0.5	-0.8	0.1	1.4	1.1	0.9	0.3	0.2	1.5
민간소비	0.7	0.3	0.4	0.4	-0.5	0.6	2.0	1.0	0.7	0.2	0.4	1.9
설비투자	8.1	4.1	-2.1	0.4	-2.1	-0.6	3.7	-1.0	0.9	0.0	0.8	-1.6
주택투자	-1.1	5.1	-1.3	2.8	1.1	3.1	2.9	2.2	0.3	2.6	4.1	8.9
정부지출	0.3	1.2	1.3	-0.5	0.4	0.7	1.7	0.7	0.6	0.2	0.5	2.2
공공투자	-1.3	-8.2	6.8	-1.9	-2.4	2.9	2.8	1.1	6.3	6.5	2.1	11.4
수출	-3.0	-0.4	2.7	-0.5	-3.8	-3.0	-0.1	3.9	2.9	-0.6	0.4	1.6
수입	2.0	5.9	1.9	1.4	-0.4	-1.7	5.3	1.0	1.7	2.2	3.5	3.4

자료: 일본 내각부(2014. 3).

〈생산 및 내수부문〉

- 2013년 4/4분기 광공업생산은 지속적인 주택건설투자 증가에 따라 건설업을 중심으로 1.8% 증가함.

○ 2014년 1월 3.8%를 기록하였던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일본 정부의 소비세율 인상 예정으로 2월 마이너스로 전환됨.

- 2013년 4/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전기대비 2.3p 감소한 41.7을 기록하며 2/4분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2013년 4/4분기 전분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1.4%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 1월 1.6%, 2월 0.3%를 기록함.

- 2013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주택착공호수는 증가율이 전분기에 비해 0.6%p 낮아진 12.9%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2월 1.0%를 기록하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

○ 4/4분기 민간기계수주액은 전기대비 1.5% 증가한 반면 2014년 1월 13.4%를 기록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표 14〉 일본의 주요 내수부문 경제지표

구분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광공업생산 증가율 ¹⁾ (%)	0.8	-2.1	-3.3	-1.8	0.2	0.6	1.5	1.7	1.8	-0.6	3.8	-2.3
소매판매 증가율 ²⁾ (%)	1.0	0.3	-0.9	-0.2	1.8	0.7	0.7	0.3	1.4	1.0	1.6	0.3
소비자신뢰지수 ³⁾	39.5	40.6	40.5	39.3	40.0	44.1	44.8	44.0	41.7	43.6	40.5	38.3
주택착공호수 증가율 ⁴⁾ (%)	3.7	6.2	-1.1	15.0	5.8	5.1	11.8	13.5	12.9	11.0	12.3	1.0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⁵⁾ (%)	1.5	-2.6	-1.3	-0.8	-4.6	0.0	6.8	4.3	1.5	4.7	13.4	-8.8

주: 1) 계절조정, 2005=100, 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2) 전기대비.

3) 기준치=50, 기간 중 평균.

4) 전년동기(월)대비.

5)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기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총무성.

〈고용과 물가〉

- 2013년 4/4분기 실업률은 감소하고 유효구인배율은 상승하는 등 고용시장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 4/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1%p 감소한 3.9%를 기록하였고, 2014년 1월 3.7%를 나타내며 감소세가 지속됨.
- 반면 유효구인배율은 4/4분기 1.00을 기록하였고, 2014년 1월 1.04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상승함.

- 소비자물가는 엔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상승세를 유지함.

- 2013년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 1월에도 같은 수준을 기록함.
-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4/4분기 0.5%를 기록하였고 2014년 1월에는 0.7% 기록함.

〈표 15〉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실업률(%)	4.5	4.4	4.3	4.2	4.4	4.2	4.0	4.0	3.9	4.0	3.7
유효구인배율(배) ¹⁾	0.75	0.80	0.81	0.82	0.80	0.85	0.90	0.95	1.00	0.93	1.04
소비자물가 상승률 ³⁾ (%)	0.3	0.1	-0.4	-0.2	0.0	-0.6	-0.3	0.9	1.4	0.4	1.4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 ³⁾ (%)	-0.7	-0.5	-0.6	-0.5	-0.6	-0.8	-0.4	-0.1	0.5	-0.2	0.7

주: 1) 구인 수/구직자 수

2) 계절조정, 전분기(월)대비 증감.

3) 2010=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Bloomberg, 일본 후생노동성, 총무성.

라. 중국경제

2013년 4/4분기 중국경제는 수출 증가율이 회복되며 전년동기대비 7.7% 성장함.

〈최근 동향〉

■ 2013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7.7%를 기록함.

- 4/4분기 고정자산투자는 전분기 증가율과 유사한 19.9% 증가하였으나, 2014년 2월 누적기준 17.9% 증가로 증가세가 둔화됨.
- 4/4분기 수출 증가율은 완만한 대외여건 개선으로 전분기보다 3.5%p 상승한 7.5%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 1월 10.6%로 상승하였으나, 2월 -18.1%로 전환됨.
- 4/4분기 수입 증가율은 7.1%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1월과 2월 각각 10.0%, 10.1%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나타냄.

〈표 16〉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실질 GDP(%) ¹⁾	7.9 (1.4)	7.6 (2.1)	7.4 (2.0)	7.9 (1.9)	7.7	7.7 (1.5)	7.5 (1.8)	7.8 (2.3)	7.7 (1.7)	7.7	n.a.	n.a.
고정자산투자 ²⁾ (%)	21.2	20.2	20.4	20.7	20.6	21.1	20.4	20.2	19.9	20.3	17.9 ³⁾	
수출 증가율(%)	8.8	10.5	4.5	9.5	8.3	18.9	4.1	4.0	7.5	8.6	10.6	-18.1
수입 증가율(%)	10.0	6.4	1.5	2.8	5.2	9.6	5.1	8.5	7.1	7.6	10.0	10.1

주: 1) 전기(월)대비, 괄호는 전분기대비.

2) 도시지역 기준.

3) 1~2월 누적치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내수부문〉

■ 소매판매 및 소비자신뢰지수는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기업체감경기지수는 소폭 감소함.

○ 2013년 4/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2%p 상승한 13.5%를 기록하며 2013년 1/4분기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함.

○ 4/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3.1p 증가한 101.4를 기록하였고 2014년 1월에도 101.1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유지함.

○ 2013년 4/4분기 기업체감경기지수는 전분기대비 2.4p 감소한 117.1을 나타냄.

〈표 17〉 중국의 주요 내수관련 지표

구분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15.2	13.9	13.5	14.9	14.4	12.6	13.0	13.3	13.5	13.1	n.a.	
소비자신뢰지수	103.1	102.4	99.0	105.0	102.4	105.1	99.9	98.3	101.4	101.2	101.1	103.1
기업체감경기지수 ²⁾	123.0	121.2	116.5	120.4	120.3	122.4	117.0	119.5	117.1	119.0	n.a.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ECI(Entrepreneurs Confidence Index): 0부터 200까지 값을 갖는데 100~200일 경우 중국 기업들(건설, 도매 등 8개 섹터 21,000개 기업)이 기업경기가 긍정적인 것으로, 0~100일 경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생산부문〉

■ 산업생산 증가율은 소폭 하락한 반면 구매자관리지수는 소폭 상승함.

- 2013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10.0%를 기록함.
- 4/4분기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¹⁾는 전분기보다 0.5p 상승한 51.3을 나타냈으나 2014년 1월과 2월에는 50.5, 50.2로 하락함.

〈표 18〉 중국의 주요 생산관련 지표

구분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산업생산 증가율(%)	12.0	9.5	9.1	10.0	10.0		n.a.	9.1	10.1	10.0	9.7	n.a.	
구매자관리지수 ²⁾	50.6	52.3	49.8	50.5	50.8		50.5	50.5	50.8	51.3	50.8	50.5	50.2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2) PMI, 50을 기준으로 하며 50 초과는 제조업이 전년대비 확대를 의미하며 50 미만은 전년대비 축소를 의미하고 50은 변화 없음을 나타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물가〉

■ 2013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고 생산자물가 하락세는 둔화됨.

- 2013년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분기보다 0.1%p 높아진 2.9%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1월과 2월 각각 2.5%, 2.0% 기록하며 상승세가 둔화됨.
- 전년동기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4/4분기 -1.4%를 기록하며 하락폭이 둔화되었으나, 2014년 1월과 2월 각각 -1.6%, -2.0%를 기록하며 하락폭이 확대됨.

1)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표 19〉 중국의 주요 물가지표

구분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8	2.9	1.9	2.1	2.7	2.4	2.4	2.8	2.9	2.6	2.5	2.0
생산자물가 상승률(%)	0.1	-1.4	-3.3	-2.3	-1.7	-1.7	-2.7	-1.7	-1.4	-1.9	-1.6	-2.0

주: 전년동기(월)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2. 국내경제

〈성장 및 내수〉

2013년 4/4분기 국내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소폭 확대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며 2013년 연간 경제성장률도 전년대비 0.7%p 상승한 3.0%를 기록하였음.

■ 2013년 4/4분기 국내경제는 민간소비와 재화수출이 소폭 확대되고 설비투자가 크게 증가하며 전분기대비 0.3%p 상승한 3.7% 성장함.

-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하며 전분기에 비해 소폭 개선되었으나 2012년 4/4분기에 비해 부진한 수준임.
- 건설투자 증가율은 정부의 추경 조기 집행 영향이 줄어들면서 전분기대비 3.4%p 하락한 5.4%를 기록한 반면 설비투자는 기저효과 등으로 10.9% 증가함.
- 재화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하는데 그쳐 2013년 3/4분기에 이어 부진한 흐름을 지속한 반면 재화수입 증가율은 설비투자 증가의 영향 등으로 전분기대비 4.5%p 상승한 4.9%를 기록함.

〈표 20〉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질 GDP	2.6 (0.5)	2.4 (0.5)	2.1 (0.4)	2.1 (0.6)	2.3	2.1 (0.6)	2.7 (1.0)	3.4 (1.1)	3.7 (0.9)	3.0
- 민간소비	1.7	0.7	2.6	2.7	1.9	1.7	2.1	2.1	2.2	2.0
- 설비투자	11.1	-1.8	-4.2	-4.0	0.1	-12.7	-3.9	1.5	10.9	-1.5
- 건설투자	-0.2	-5.4	-2.7	-6.2	-3.9	1.9	9.8	8.8	5.4	6.7
- 재화수출 ³⁾	3.0	3.6	4.8	6.0	4.4	6.6	6.5	2.4	3.0	4.5
- 재화수입 ⁴⁾	5.0	-1.5	3.7	0.7	1.9	-1.5	0.8	0.4	4.9	1.2

주: 1) 2008 SNA, 2010년 연쇄가계 기준.

2) ()는 계절조정이 반영된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3) 2012년 및 2013년 1/4~4/4분기, 연간 수치는 모두 잠정치임.

4)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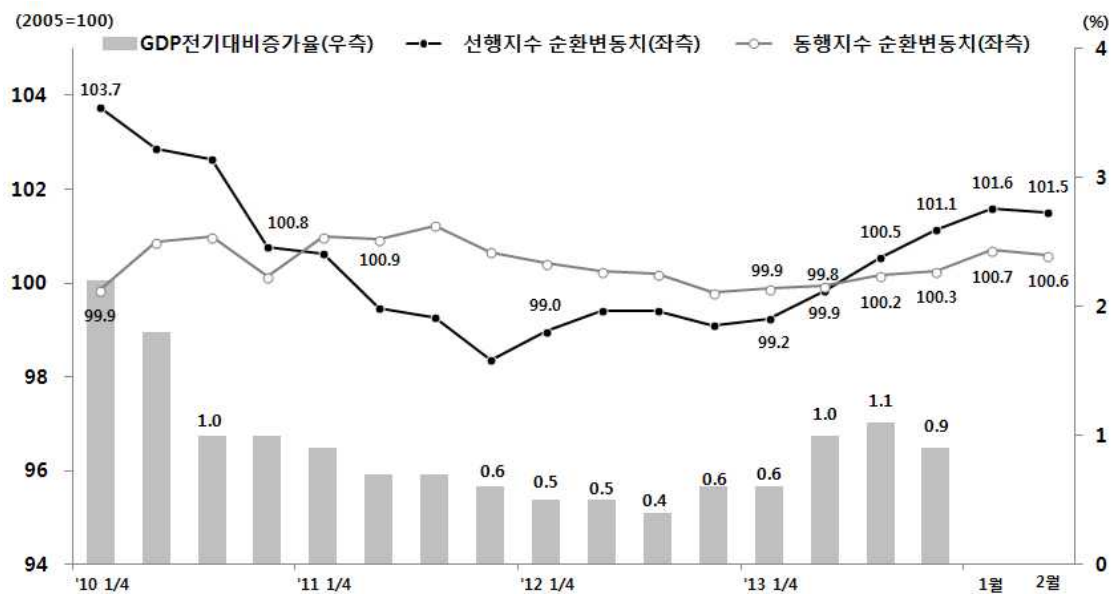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3년 2/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4년 2월 전월대비 소폭 하락함.

○ 2013년 4/4분기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비자대지수 증가, 국제원자재가격 안정 등으로 전분기대비 0.6p 상승한 101.1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 1월에도 101.6을 기록하며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2월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월대비 0.1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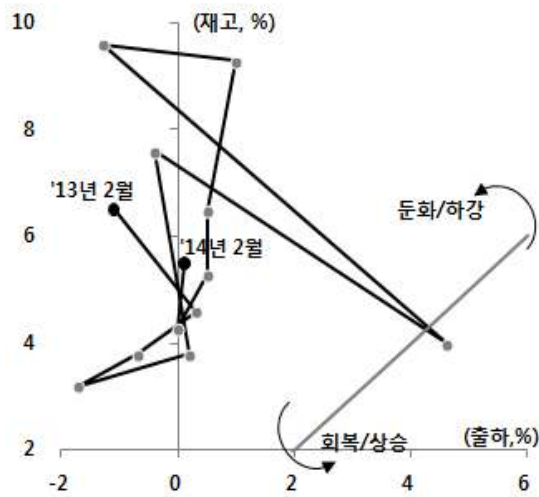
○ 2013년 4/4분기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광공업생산지수, 소매판매지수 등이 상승하면서 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100.3을 기록하였고 2014년 1월에도 100.7을 기록하며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2월 소매판매 감소로 전월대비 0.1p 하락함.

〈그림 1〉 GDP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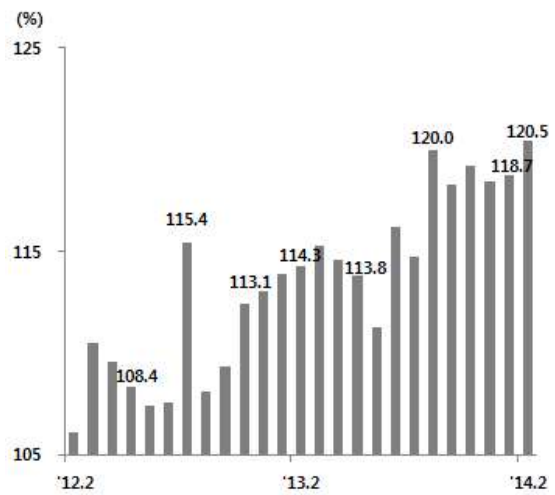
주: 2013년 4/4분기, 2014년 1월과 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제조업 재고 출하 순환도



주: 재고출하 순환도는 X축에 출하 전년동월비(계절 조정), Y축에는 재고 전년동월비(계절조정)를 표시하여 출하와 재고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경기국면 변화를 판단하는 도표.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그림 3〉 제조업 재고/출하비율¹⁾

주: 1)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 비율

=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4년 2월 제조업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0.1% 증가하였으며 재고는 5.5% 증가하여 2013년 2월에 비해 회복/상승 국면 방향으로 소폭 이동함.²⁾

○ 제조업 출하대비 재고비율(재고율)은 120.5%로 2013년 2월에 비해 6.2%p 상승함.

■ 2013년 4/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5%p 상승한 1.2%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 4/4분기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2014년 2월 0.7% 감소로 전환하며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음.

○ 2013년 4/4분기 내구재 판매의 경우 승용차 판매가 3.4% 줄어든 영향으로 1.5% 감소하였으나 2014년 개별소비세 인하³⁾ 효과로 승용차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1월 4.0%, 2월 10.2% 증가함.

○ 의복 및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는 계절의류 판매 부진 등으로 2013년 4/4분기 1.0%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2014년 1월 2.8% 감소로 전환하였고 2월에도

2) 2013년 12월, 2014년 1월과 2월 재고, 출하, 재고율은 잠정치임.

3) 2014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2000cc 이상 차종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7%에서 6%로 하향조정됨.

2.6% 줄어듦.

- 음식료품,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는 2013년 4/4분기 자동차 업계 파업 종료 등의 영향으로 2.8% 증가하였고 2014년 1월 명절효과 등으로 10.0% 늘어나 2013년 1/4분기 이후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2월 5.3% 감소로 전환됨.

〈표 21〉 소비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2		2013					2014	
	4/4	연간	1/4	2/4	3/4	4/4 ¹⁾	연간 ¹⁾	1월 ¹⁾	2월 ¹⁾
민간소비	2.7	1.9	1.7	2.1	2.1	2.2	2.0	-	-
소매판매	2.5	2.4	0.3	1.2	0.7	1.2	0.8	5.5	-0.7
- 내구재	8.3	5.3	1.4	2.9	-1.4	-1.5	0.3	4.0	10.2
* 승용차	15.5	2.4	4.1	2.1	6.3	-3.4	2.1	10.1	20.6
- 준내구재	0.5	-0.4	2.7	1.6	2.9	1.0	2.0	-2.8	-2.6
- 비내구재	0.5	2.0	-1.4	0.2	0.7	2.8	0.6	10.0	-5.3

주: 1) 잠정치.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3년 4/4분기 설비투자지수와 국내기계수주 증가세는 기저효과, 공장 가동률 상승 및 투자 증가로 확대됨.

- 2013년 4/4분기 설비투자지수는 2012년 2/4분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데 따른 기저효과와 기계류 수입 증가, 자동차 파업 종료, 대형항공기 도입 등으로 10.4% 증가함.
 - 2014년 1월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투자 준비 등을 위한 연초효과와 2013년 4/4분기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1.9%를 나타내며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2월 기계류 및 운송장비 투자가 확대되면서 12.3% 증가함.
- 2013년 4/4분기 국내기계수주는 2012년 4/4분기 23.0%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32.4% 늘어났고, 2014년 1월에도 14.1% 증가하였으나 2월 7.3% 감소함.

〈표 22〉 투자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2		2013					2014	
	4/4	연간	1/4	2/4	3/4	4/4 ¹⁾	연간 ¹⁾	1월 ¹⁾	2월 ¹⁾
설비투자	-4.0	0.1	-12.7	-3.9	1.5	10.9	-1.5	-	-
설비투자지수	-6.4	-2.0	-13.1	-4.0	2.7	10.4	-5.0	-1.9	12.3
- 기계류	-10.5	-2.2	-16.5	-5.7	1.9	12.3	-9.2	-3.2	10.0
- 운송장비	5.6	-1.1	-2.6	0.9	4.8	5.6	12.4	1.9	18.8
국내기계수주 ²⁾	-23.0	-13.9	-11.4	8.8	2.2	32.4	6.7	14.1	-7.3
건설투자	-6.2	-3.9	1.9	9.8	8.8	5.4	6.7	-	-
- 건설기성(불변)	-5.3	10.1	4.4	15.0	10.5	9.7	-5.0	11.3	6.3
건축	-6.7	14.8	3.9	19.7	15.3	18.7	-6.6	22.8	19.5
토목	-3.7	4.3	5.2	9.3	4.3	-0.4	-3.0	-3.0	-11.0
- 국내건설수주(경상)	-32.0	-6.2	-40.8	-29.5	-10.6	22.4	-15.3	49.5	17.6
건축	-25.9	-4.7	-34.0	-29.6	-10.8	17.9	-13.4	70.5	-4.3
토목	-43.6	-9.1	-50.4	-29.4	-10.0	33.4	-19.1	26.9	67.7

주: 1) 잠정치.

2) 선박제외.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건설투자와 건설기성은 2013년 2/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으나 2013년 4/4분기 국내건설수주는 기저효과 등으로 22.4% 증가함.

○ 2013년 4/4분기 건설기성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8%p 감소한 9.7%를 기록함.

- 2014년 1월 11.3% 증가하였으나 2월 6.3% 늘어나는데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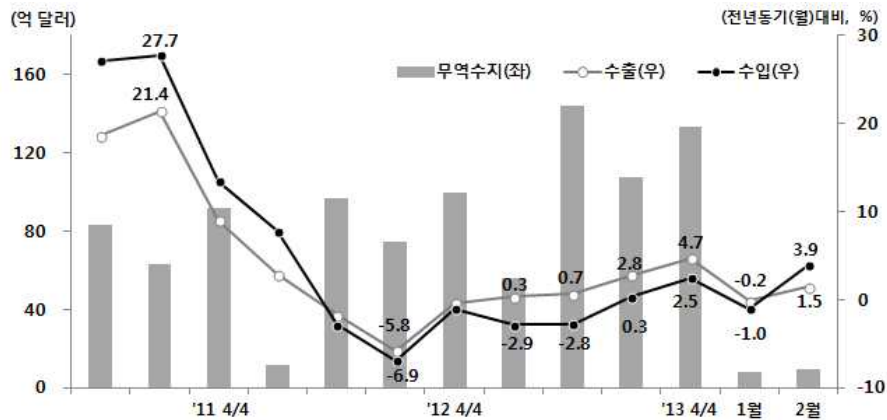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주택, 공장, 관공서, 토지조성 등에서 증가하였고 2012년 4/4분기 32.0% 감소한데 따른 기저효과로 2013년 4/4분기 22.4% 증가함.

- 2014년 1월 국내건설수주는 SOC 집행 효과 소진과 2013년 상반기 국내건설수주 부진 등에 따른 기저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49.5% 증가하였으며 2월에도 17.6% 증가함.

〈대외거래〉

- 2014년 2월 수출⁴⁾은 전년동월대비 1.5% 증가한 456억 달러, 수입¹⁷⁾은 3.9% 증가한 420억 4,400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수지는 9억 3,400만 달러 흑자를 보임.
- 수출의 경우 식료 및 직접소비재(+13.4%)와 중화학 공업품(+4.0%)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원료 및 연료(-14.0%), 경공업 제품(-1.1%)은 감소함.
- 수입의 경우 소비재(+13.5%)와 자본재(9.8%)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14년 1월 1.0% 감소에서 2월 3.9% 증가로 전환함.

〈그림 4〉 대외거래지표 추이



자료: 관세청(통관 기준).

4) 수출과 수입은 2014년 2월까지 확정치임.

〈표 23〉 주요 품목별 수출입 증감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2		2013					201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수출	식료 및 직접소비재	0.6	4.6	0.9	-3.2	-7.2	2.7	-1.7	-6.1	13.4
	원료 및 연료	9.2	6.2	2.9	-8.5	-9.3	-10.6	-6.5	-3.4	-14.0
	경공업 제품	-0.2	3.9	-3.6	-1.2	-8.5	-1.0	-3.6	-7.2	-1.1
	중화학 공업품	-1.9	-2.9	0.3	2.3	6.0	7.6	4.0	1.1	4.0
	전체	-0.4	-1.3	0.3	0.7	2.8	4.7	2.1	-0.2	1.5
	금액(억 달러)	1,398	5,479	1,353	1,412	1,368	1,464	5,596	456.0	429.8
수입	소비재	6.4	2.0	5.5	7.2	6.3	10.8	7.5	0.5	13.5
	원자재	-0.8	0.1	-3.4	-6.9	-2.9	-1.4	-3.7	1.9	0.2
	자본재	-3.8	-4.2	-4.9	3.1	5.1	8.1	2.8	-8.4	9.8
	전체	-1.1	-0.9	-2.9	-2.8	0.3	2.5	-0.8	-1.0	3.9
	금액(억 달러)	1,298	5,196	1,297	1,268	1,260	1,331	5,156	448.2	420.4
무역수지(억 달러)		99.4	282.9	55.9	144.0	107.6	133.0	440.5	7.8	9.3

주: 금액은 천만 달러에서 반올림함.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 2014년 2월 EU(+10.6%) 및 중국(+3.8%)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미국(+24.2%)과 EU(+19.9%)로부터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미국 한파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와 미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위기 등으로 미국 및 신흥국으로의 수출이 둔화된 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을 보인 EU로의 수출은 증가함.

○ 국내 설비투자 증가세로 미국 및 EU로부터의 일반기계,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늘어나면서 2월 미국, EU 수입이 증가함.

〈표 24〉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2월	증감률	1~2월	증감률	2월	증감률	1~2월	증감률
미국	46.7	-6.7	95.3	-4.4	39.3	24.2	75.5	12.1
일본	26.2	-9.6	54.4	-15.3	44.5	-10.6	84.7	-15.4
EU	42.8	10.6	89.2	16.8	48.7	19.9	100.9	15.2
동남아	103.5	11.3	207.6	7.4	52.6	0.3	115.1	1.9
중동	27.0	2.3	53.8	-4.9	107.0	-6.4	217.5	-3.6
중국	107.8	3.8	222.8	2.1	57.9	4.8	132.9	3.5
중남미	23.1	-11.8	46.6	-18.0	12.5	-1.2	27.7	-8.5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산업생산〉

■ 2013년 4/4분기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하였으나 2014년 들어 둔화된 대미 수출의 영향으로 1월 0.9%, 2월 1.7% 증가하는데 그침.

○ 2013년 4/4분기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업계 파업 종료 등으로 제조업(1.8%)과 자동차(5.6%) 생산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함.

- 반면 2014년 들어 미국 한파에 따른 대미 수출 증가세 둔화, 2013년 12월 생산 확대에 따른 생산량 조정, 신흥국 불안, 조류독감 사태 등으로 2014년 1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4.3% 감소하였음.

○ 2013년 4/4분기 서비스업생산은 금융 및 보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회복세를 보이며 2.1% 증가하였고 1월에도 2.1% 증가하였으나, 2월에는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이 1.2%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0.3%p 하락한 1.8% 증가하는데 그침.

〈표 25〉 산업생산지수의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2		2013					2014	
	4/4	연간	1/4	2/4	3/4	4/4 ¹⁾	연간 ¹⁾	1월 ¹⁾	2월 ¹⁾
전산업생산 ²⁾	0.5	1.2	0.5	2.0	1.2	2.6	1.6	0.9	1.7
광공업	0.8	1.3	-0.8	0.0	0.2	1.7	0.3	-4.3	4.3
- 제조업	0.6	1.4	-0.8	0.0	0.1	1.8	0.3	-4.5	4.5
- 자동차	-2.0	-0.2	-3.6	-2.2	5.4	5.6	1.2	-3.5	11.3
- ICT	9.4	2.4	2.7	4.3	8.1	-1.2	3.3	-4.9	1.8
서비스업	0.8	1.6	0.9	1.7	0.8	2.1	1.4	2.1	1.8
- 도매 및 소매업	0.3	0.8	-0.5	0.3	-0.7	0.2	-0.2	2.2	-1.2
- 운수업	1.9	1.2	1.9	2.6	-0.6	0.7	1.1	1.3	2.7
- 숙박 및 음식점업	-0.6	-1.2	-0.8	-0.9	0.8	2.4	0.4	1.8	0.2
- 금융 및 보험업	2.2	2.8	1.0	2.9	-0.9	-0.5	0.5	-0.8	-0.2
- 부동산 및 임대업	-2.0	-4.8	-2.3	5.7	1.8	4.8	2.5	1.9	4.4

주: 1) 잠정치.

2) 농림어업 제외.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물가 및 고용〉

2013년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였음.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반면 가계소득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기저효과와 물가 안정세로 상승하였음.

■ 2013년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1.1%를 기록하였고 2014년 1월 1.1%, 2월 1.0%를 기록하며 하향 안정세를 보임.

○ 2013년 4/4분기 상품 가격 상승률은 유가, 곡물가격 등 국제원자재가격 안정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0.8%에 그쳤고, 1월과 2월에도 각각 0.9%를 나타냄.

- 농축수산물 물가는 양파와 배추 가격 폭락으로 2013년 4/4분기부터 2014년 2월까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반면 2013년 4/4분기 공업제품과 전기·수도·가스 물가 상승률은 각각 전분기대비 0.3%p 0.7%p 상승한 1.4%, 4.2%를 기록함.

○ 반면 2013년 4/4분기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1.3%를 기록함.

■ 2013년 4/4분기 소비자기대지수는 전분기보다 1.6p 상승한 114.1을 기록하였고 2014년 1, 2월에도 각각 117.3을 기록하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26〉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소비심리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2		2013					201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소비자기대지수 ¹⁾	97.1	97.5	107.8	111.3	112.5	114.1	116.1	117.3	117.3
소비자물가 상승률	1.7	2.2	1.6	1.2	1.4	1.1	1.3	1.1	1.0
〈품목성질별 물가지수 상승률〉									
상품	2.2	3.1	1.5	0.7	1.2	0.8	1.0	0.9	0.9
- 농축수산물	3.8	3.1	2.2	-0.6	0.1	-4.3	-0.6	-5.6	-5.4
- 공업제품	1.7	2.8	0.8	0.2	1.1	1.4	0.9	1.7	1.7
- 전기·수도·가스	3.6	5.0	4.8	5.7	3.5	4.2	4.5	6.0	6.0
서비스	1.3	1.4	1.6	1.7	1.5	1.3	1.5	1.3	1.1
- 집세	3.4	4.2	3.0	2.6	2.5	2.5	2.7	2.4	2.5
- 공공서비스	1.1	0.5	0.9	0.8	0.4	0.6	0.7	0.7	0.7
- 개인서비스	0.8	1.1	1.5	1.8	1.7	1.3	1.6	1.2	0.9

주: 1) 소비자 기대 및 평가지수가 2008년 8월까지 통계청에서 작성된 후 2008년 9월부터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지수로 개편되었으나, 자료의 연속성을 위해 '85.0/77.0 × 향후경기전망CSI(Consumer Sentiment Index)'로 산출함.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 국내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와 정부의 일자리 정책 등으로 고용지표는 개선세를 보임.

○ 총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2013년 4/4분기 2.2%, 1월 2.9%, 2월 3.5% 늘어나며 증가폭이 확대되었음.

- 청년 취업자 수는 4/4분기 1.2% 증가하였으며, 2014년 1월 1.9%, 2월 4.0% 증가하였음.

○ 고용률은 2013년 4/4분기 60.0%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4년 1월 58.5%, 2월 58.6%를 기록하며 소폭 하락함.

- 실업률은 4/4분기 2.8%를 기록하였으나 1월과 2월 각각 3.5%, 4.5%를 나타내며 상

승세를 보임.

- 청년실업률도 2013년 4/4분기 전분기와 동일한 7.9%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1월 8.7%, 2월 10.9%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임.

■ 산업별 취업자 수의 경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으나 광공업과 SOC 및 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음.

-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 수는 2013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하였으나 2014년 1월과 2월 기저효과로 4.5%, 2.6% 증가함.
- 2013년 4/4분기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⁵⁾는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하였으며, 2014년 1월과 2월에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SOC 및 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정부의 추경사업 효과 등으로 2013년 3/4분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음.
 - 2013년 4/4분기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0.5% 감소하였으나 2014년 1월 1.1% 증가하였으며 2월에도 3.7%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1/4분기 건설업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데 따른 기저효과임.
 - 2013년 4/4분기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취업자 수의 경우 3/4분기보다 1.1%p 상승한 3.6% 증가하였으나 1월 2.4%, 2월 2.3% 늘어나는데 그쳤고, 도·소매, 음식, 숙박업 취업자 수는 4/4분기 이후 증가율이 상승하고 있음.
 - 2013년 4/4분기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 수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1월 2.7%, 2월 2.5%를 기록하였음.

5) 제조업 포함.

〈표 27〉 고용 관련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2		2013					201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총취업자	1.4	1.8	1.1	1.3	1.7	2.2	1.6	2.9	3.5
- 청년취업자	-2.1	-0.9	-3.0	-2.3	-1.1	1.2	-1.3	1.9	4.0
고용률	59.4	59.4	57.7	60.2	60.3	60.0	59.5	58.5	58.6
실업률	2.8	3.2	3.6	3.1	3.0	2.8	3.1	3.5	4.5
- 청년실업률	7.0	7.5	8.4	7.9	7.9	7.9	8.0	8.7	10.9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0.2	-0.9	-0.7	-1.6	1.1	-1.0	-0.5	4.5	2.6
광공업	3.4	0.3	3.0	3.0	0.6	1.2	1.9	2.2	3.3
- 제조업	3.5	0.3	3.0	3.0	0.6	1.2	1.9	2.2	3.3
SOC 및 기타서비스업	1.1	2.4	0.8	1.2	2.0	2.6	1.6	3.0	3.6
- 건설업	-2.2	1.3	-3.7	-0.4	0.2	-0.5	-1.1	1.1	3.7
- 도·소매, 음식, 숙박	1.1	1.9	-0.7	-0.2	0.7	2.6	0.6	4.4	5.9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2.3	3.2	3.1	1.7	2.5	3.6	2.7	2.4	2.3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0.4	1.4	-0.4	3.1	3.8	1.9	2.1	2.7	2.5

주: 1)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으로 정의됨.

2) 청년은 15~29세 기준임.

3) SOC는 전기, 가스, 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3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7%를 기록하여 3/4분기에 비해 1.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평균 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3.0%를 기록하여 전분기에 비해 1.9%p 상승하였음.

○ 2013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16만 3,000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7% 증가하는데 그쳤음.

-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40만 4,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흑자액은 92만 원으로 3.0% 감소함.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8만 4,000원으로 3.0% 증가하였으며, 실질소비지출은 1.9% 증가하여 흑자액은 3.0% 감소하였음.

- 평균소비성향이 73.0%로 전년동기보다 1.2%p 상승하면서 저축능력을 나타내는 흑자율은 27.0%로 전년동기대비 1.2%p 하락함.

〈표 28〉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 관련 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 %p)

구분	2012		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만 원)	409.3	407.7	419.3	404.1	426.0	416.3	416.2
- 증가율	5.4	6.1	1.7	2.5	2.9	1.7	2.1
- 실질소득 증가율	3.6	3.8	0.3	1.3	1.6	0.7	0.8
처분가능소득(만 원)	336.1	331.7	339.1	328.7	345.2	340.4	338.1
- 증가율	5.7	6.4	1.7	2.1	3.1	1.3	1.9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만 원)	241.2	245.7	254.3	240.3	249.4	248.4	248.1
- 증가율	1.4	2.7	-1.0	0.7	1.1	3.0	0.9
- 실질소비지출 증가율	0.3	0.5	-2.4	-0.4	-0.1	1.9	-0.4
흑자액(만 원)	94.8	86.0	84.8	88.4	95.9	92.0	90.0
- 증가율	18.5	18.4	10.8	6.1	8.6	-3.0	4.7
평균소비성향 ¹⁾	71.8	74.1	75.0	73.1	72.2	73.0	73.4
흑자율 ²⁾	28.2	25.9	25.0	26.9	27.8	27.0	26.6

주: 1)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

2) 흑자율 =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참고 국민계정의 새로운 국제기준 이행

■ 국민계정 개편 주요 내용은 새 국제기준인 2008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국민계정체계)를 적용하는 것과 기준년을 2005년에서 2010년으로 변경하는 것임.

○ 2008 SNA 적용 관련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1〉 2008 SNA 적용 전, 후 변경 내용 및 효과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효과
R&D, 지식재산생산물 ¹⁾ , 무기시스템	비용(중간투입)으로 처리	자산으로 처리	2010년 명목 GDP 59조 5,000억 원 증가
가공무역, 중계무역 등 글로벌 생산활동의 거래발생시점	국경통과	소유권이전	국가간 거래를 더 정확하게 포착
공공부문계정 신규 편제	-	공공부문 ²⁾ 의 총수입, 총지출 등 신규지표 개발	-
공급사용표 개발	-	-	생산, 지출 및 분배 GDP 간 정합성 제고
재투자수익 신규 반영	-	국외직접투자의 재투자수익 반영	경제주체 간 수익 흐름의 정확성 제고
분류체계 변경	-	총고정자본형성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신설	-

주: 1) 오락·문학작품 및 예술품 원본.

2)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단체)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 및 금융공기업)을 포괄.

○ 기준년 개편(2005→2010)과 관련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센서스 통계(경제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 실측 산업연관표 등을 활용함으로써 GDP 규모, 산업 및 기술구조의 최근 실상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
 - 기초자료 변경 효과에 따라 2010년 명목 GDP는 32조 5,000억 원 증가함.
- 벤치마킹*(benchmarking) 기법 도입으로 분기 및 연간 GDP의 유기적 연계성 강화
 - * 단주기 자료(예: 분기)와 장주기 자료(예: 연간)가 불일치할 경우 이를 일관성 있는 시계열로 통합하는 기법
- 경제주체별 소득발생계정* 신규 작성으로 생산 및 분배 국민소득 간 연계성 강화
 - * 소득발생계정은 생산에 참여한 경제주체(가계,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일반정부)별로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세금(생산 및 수입세) 등의 발생 현황을 보여주는 계정
- 국민대차대조표 개발로 플로우계정과 스톡계정 간 정합성 제고

■ 국민계정 개편으로 새 기준년인 2010년 신계열 명목 GDP 규모가 개편이전(구계열)에 비해 92조 원 증가하였으며 2001~2012년 중 실질 GDP의 연평균 증가율은 구계열 성장률 3.9%에 비해 0.3%p 상승한 4.2%로 변경됨.

○ R&D 등 자산범위 확장, 센서스통계 반영에 따른 기초통계 변경 등으로 명목GDP의 규모가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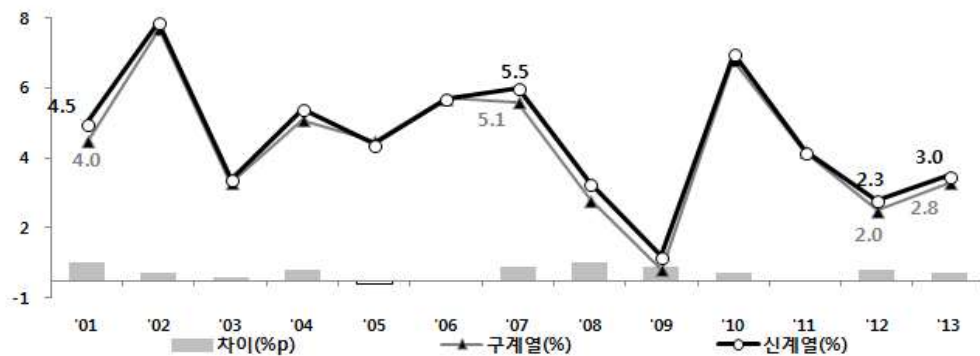
〈표 2〉 명목GDP 신·구계열 및 베이스업 규모

(단위: 조 원, %)

구분	2010	2011	2012
신계열(A)	1,265.3	1,332.7	1,377.5
구계열(B)	1,173.3	1,235.2	1,272.5
베이스업금액(A-B)	92.0	97.5	105.0
베이스업률(A/B, %)	7.8	7.9	8.3

○ 2001~2012년 실질 GDP 성장률의 연간 추세는 거의 동일하며 2005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신계열 성장률이 구계열 성장률보다 0.1%p~0.5%p 상향 조정되었음.

〈그림 1〉 실질GDP 성장률 신·구계열 추이



○ 2013년도 경제성장률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

〈표 3〉 2013년 실질GDP 분기 및 연간 성장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1/4	2/4	3/4	4/4	연간
연간잠정 (2010년 연쇄가격 기준)	2.1	2.7	3.4	3.7	3.0
연간속보 (2005년 연쇄가격 기준)	1.5	2.3	3.3	3.9	2.8

3. 금융경제

〈금리〉

2014년 1/4분기 중 기준금리는 2.50%로 동결됨.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미연준의 추가 양적완화 정책, 신흥국 금융불안 등의 영향으로 2.84~2.92% 수준을 유지함.

- 2014년 1/4분기 중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0% 수준으로 유지하였음.
 - 금융통화위원회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지속을 전망하였으나 미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와 일부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우려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기로 함.

- 2014년 1/4분기 평균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연준의 추가 양적완화 정책, 신흥국 금융불안 등의 영향으로 소폭 등락함.
 - 1월 국고채 금리는 미 연준의 추가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경계감, 기준금리와의 격차 축소 부담, 미·중 주요국 경제지표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84~2.92%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함.
 - 2월 국고채 금리는 미 국채금리 하락, 기준금리와의 격차축소 부담 등의 영향으로 1월과 유사한 2.84~2.91% 범위 내에서 소폭 등락함.
 - 3월 국고채 금리도 1,2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 2014년 1/4분기 CD(91일) 평균 금리는 2.65%이고, 장단기 금리차이는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신용 스프레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 2014년 1/4분기 기준금리 동결, 단기수신 감소 등의 영향으로 CD 금리는 평균 2.65%를 기록함.
 - ‘국고채(3년) - CD(91일)’ 간 스프레드는 1/4분기 평균 22bp로 전분기대비 3bp감소함.
 - 회사채금리는 1/4분기 평균 3.30%로 전분기대비 감소하였으나 신용스프레드는 평균

43bp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함.

- 특히 우량 회사채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수요 집중으로 우량 회사채 금리가 하락함.

〈표 29〉 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

(단위: %, %p)

구분	2013 1/4	2013 2/4	2013 3/4	2013 4/4	2014 1/4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기준금리	2.75	2.50	2.50	2.50	2.50	0.00	- 0.25
CD(91일)	2.83	2.74	2.67	2.65	2.65	0.00	- 0.18
국고채(3년)	2.68	2.66	2.92	2.90	2.87	- 0.03	0.19
회사채(3년, AA-)	3.07	3.02	3.33	3.33	3.30	- 0.03	0.23
스프레드(국고채-CD)	- 0.15	- 0.08	0.25	0.25	0.22	- 0.03	0.37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0.39	0.36	0.41	0.43	0.43	0.00	0.04

주: 금리는 분기 평균 값임.

자료: 한국은행.

〈환율〉

2014년 1/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1,069.0원으로 2013년 4/4분기 1,061.8원보다 7.2원 상승함. 1/4분기 초 신흥국 금융불안과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여 원화가 약세를 보였으나 신흥국 금융불안 완화,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으로 강세로 전환되는 추세임.

■ 2014년 1/4분기 원/달러 환율은 신흥국 금융불안,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에 기인하여 상승하였으나 신흥국 금융불안이 점차 완화되고,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확대되며 소폭 하락함.

○ 1월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상승하여 1월 평균 1,064.8원을 기록함.

○ 2월 원/달러 환율은 신흥국 금융불안 완화, 외국인 주식순매수에 따른 원화 수요 증가로 월말에는 1,067.5원으로 하락하여 평균 1071.3원을 기록함.

- 3월 원/달러 환율은 중국 경기둔화 우려, 우크라이나 불안에 따른 신흥국 통화 약세의 영향으로 1080.3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외국인 주식순매수에 따라 월말에는 1068.8원으로 하락하였음.

〈표 30〉 환율 추이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2013				2014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원/달러	1,084.1	1,122.2	1,112.2	1,061.8	1,069.0	1,064.8	1,071.3	1,070.9
엔/달러	92.3	98.7	98.9	100.5	102.8	104.1	102.2	102.3
달러/유로	1.320	1.306	1.324	1.361	1.370	1.363	1.365	1.383

주: 환율은 분기 또는 월 평균 값임.
자료: 한국은행.

- 1/4분기 달러화는 유로존 경기회복 기대감,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등의 영향으로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고, 엔화에 대해서는 일본의 추가 경기부양책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임.
- 1월 달러화는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하 가능성과 미국의 추가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유로화에 강세를 보였으며, 엔화에 대해서는 안전자산 선호심리에 따른 엔화 투자수요 증가로 약세를 보임.
- 2월 달러화는 미국경제지표 부진, 유로존의 경기회복 기대감의 영향으로 유로화에 약세를 보였고, 엔화에 대해서는 안전자산 선호심리 유지에 따른 엔화 수요 지속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음.
- 3월 달러화는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경기부양 가능성의 영향으로 유로화 대비 약세를 보였고, 엔화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지표호조와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기대감에 따라 강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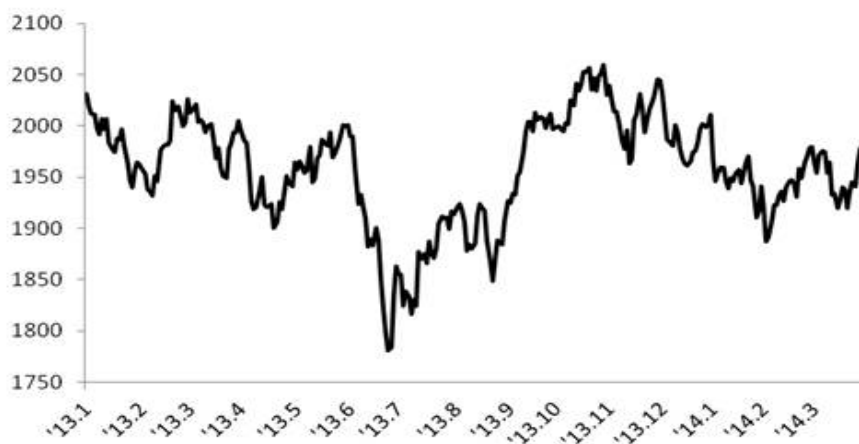
〈주가지수〉

2014년 1/4분기 중 주가지수는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신흥국 금융불안,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으나 신흥국 금융불안 완화, 미국 경제지표 호조,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여 분기말 1,985.61 포인트를 기록함.

■ 2014년 1/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신흥국 금융불안,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으나 신흥국 금융불안이 점차 완화되고, 미국 경제지표 호조, 중국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 등에 힘입어 상승세로 전환 됨.

- 1월 중 종합주가지수는 국내기업의 실적부진, 아르헨티나 등 일부 신흥국의 취약성 부각, 글로벌 경제성장세 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여 최저 1,910.34 포인트를 기록함.
- 2월 중 종합주가지수는 신흥국 금융불안 완화, 국제금융시장 안정, 국내 경기회복 기대 등에 힘입어 상승함.
- 3월 중 종합주가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경기둔화 우려 증대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미국 경제지표 호조, 중국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하여 3월 말 연중 최고치인 1,985.61을 기록함.

〈그림 5〉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자금흐름〉

2013년 4/4분기 비보험 금융권 순수신의 경우 은행은 증가하였으나 증권, 자산운용에서는 감소세를 보였음. 보험권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21.0% 증가함.

- 2013년 4/4분기 보험권 총순수신은 16조 7,547억 원으로 전분기대비 21.0% 증가함.
 - 4/4분기 생명보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24.8% 증가한 13조 5,447억 원임.
 - 수입보험료는 전분기대비 19.7% 증가하였고, 지급보험금은 전분기대비 15.6% 증가함.
 - 4/4분기 손해보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7.2% 증가한 3조 2,100억 원임.
 - 원수보험료는 전분기대비 12.7% 증가하였고 원수손해액은 전분기대비 13.8% 증가함.
- 2013년 4/4분기 은행의 순수신은 증가하였고, 증권과 자산운용의 순수신은 감소하였음.
 - 은행 순수신은 일반계정과 신탁계정 순수신이 모두 증가하여 22조 9,979억 원을 기록함.
 - 증권사의 경우 고객예탁금, RP 매도, CMA 순수신 모두 감소하여 전체 순수신이 전분기 대비 대폭 감소함.
 - 자산운용의 경우 총순수신이 전분기대비 3조 2,571억 원 감소함.
 - MMF 순수신은 유동성 규제 강화, 기업의 연말 부채비율 관리 목적의 자금 수요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주식형 펀드 순수신은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목적의 환매, 주가 전망의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감소함.

〈표 31〉 금융권 순수신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2				2013				2014
	1/4	2/4	3/4	4/4	1/4	2/4	3/4	4/4	1/4
보험 ¹⁾	121,898	139,042	174,037	201,794	195,836	139,623	138,497	167,547	-
- 생보	96,401	105,806	145,350	169,906	166,114	109,365	108,554	135,447	-
수입보험료	223,891	245,286	281,233	313,339	313,227	245,003	240,001	287,363	-
지급보험금	127,490	139,480	135,883	143,434	147,113	135,639	131,447	151,916	-
- 손보	25,497	33,236	28,687	31,889	29,722	30,258	29,943	32,100	-
원수보험료	160,799	167,964	167,265	180,624	169,569	173,584	171,156	192,842	-
원수손해액	135,303	134,729	138,578	148,736	139,847	143,326	141,213	160,742	-
은행	269,108	120,525	113,355	104,974	123,354	182,746	-31,782	229,979	199,985
- 일반 ²⁾	190,485	108,131	54,395	118,680	48,120	147,443	-40,955	128,580	131,328
- 신탁	78,623	12,394	58,960	-13,706	75,234	35,303	9,173	101,399	68,657
증권 ³⁾	44,117	-33,365	67,718	-22,900	96,983	9,232	-5,597	-47,519	22,653
자산운용 ⁴⁾	50,029	83,820	32,104	21,299	183,595	44,093	-9,264	-41,835	172,988
종금 ⁵⁾	11,809	-490	-17,161	-2,493	-21,220	-11,420	1,082	2,444	6,668

주: 1)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실세총예금 + CD 순발행액

3) 고객예탁금 + RP매도 + CMA

4) 채권형 + MMF + 혼합형 + 주식형 + 기타

5) 발행어음 + CMA예탁금 + 어음매출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13 3/3분기 보험산업 수입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은 8.3% 감소하였고 손해보험은 6.8% 증가하였는데 전체적으로는 전년동기대비 2.8% 감소한 48조 205억 원을 기록함.

■ FY2013 3/3분기¹⁾ 보험산업의 수입(원수)보험료는 일반계정 저축성보험 기저효과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크게 감소하였고 손해보험 원수보험료가 증가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2.8% 감소한 48조 205억 원임.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단체보험 수입보험료가 증가하였으나 기저효과로 개인보험 수입보험료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8.3% 감소한 28조 7,363억 원을 기록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을 비롯한 대부분 종목의 실적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한 19조 2,842억 원을 기록함.

○ 연간기준(3분기 누적치)으로 전체 보험료는 3.4% 감소한 130조 9,949억 원임.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단위: 조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⁴⁾
생명보험	87.8	24.5	28.1	31.3	31.3	115.3	24.5	24.0	28.7	77.2
	(5.8)	(16.5)	(35.9)	(32.3)	(39.9)	(31.3)	(-0.1)	(-14.7)	(-8.3)	(-8.0)
손해보험	61.0	16.8	16.7	18.1	17.0	68.5	17.4	17.1	19.3	53.8
	(16.7)	(19.4)	(17.8)	(8.7)	(5.5)	(12.4)	(3.3)	(2.3)	(6.8)	(4.2)
합계	148.8	41.3	44.8	49.4	48.3	183.9	41.9	41.1	48.0	131.0
	(10.0)	(17.6)	(28.5)	(22.6)	(25.5)	(23.6)	(1.3)	(-8.3)	(-2.8)	(-3.4)

주: 1) 주요지표에는 특별계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 기준임.

3)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 회계연도 개편으로 FY2013은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됨.

나. 총자산

FY2013 3/3분기 말 보험산업 총자산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증가하면서 전분기대비 2.5% 증가한 768조 원을 기록함.

■ FY2013 3/3분기 말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채권과 특별계정 자산 증가로 생명보험 자산이 늘어나고, 보험료적립금 증가와 퇴직연금 자산 증가로 손해보험 자산도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전분기대비 2.5% 증가한 768조 원임.

- 생명보험 총자산의 경우 수입보험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정 운용자산 중 채권 위주의 수익증권과 특별계정 자산이 증가하면서 전분기대비 2.3% 증가함.
- 손해보험 총자산의 경우 보험료적립금 증가로 일반계정자산이 증가하고 퇴직연금관련 자산이 늘어나 특별계정 자산도 증가하여 전분기대비 3.3% 증가함.
- 연간기준(3분기 말)으로 전체 자산은 9.8% 증가하였음.

〈표 2〉 보험산업 총자산

(단위: 조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⁴⁾
생명보험	458.2	505.4	529.2	547.8	569.8	569.8	569.5	584.1	597.5	597.5
	(10.0)	(10.3)	(4.7)	(3.5)	(4.0)	(24.4)	(-0.1)	(2.6)	(2.3)	(9.1)
손해보험	129.8	138.5	146.0	151.8	156.5	156.5	160.3	165.1	170.6	170.6
	(27.0)	(6.7)	(5.4)	(4.0)	(3.1)	(20.5)	(2.5)	(3.0)	(3.3)	(12.4)
합계	588.0	643.9	675.2	699.6	726.3	726.3	729.8	749.2	768.0	768.0
	(13.3)	(9.5)	(4.8)	(3.6)	(3.8)	(23.5)	(0.5)	(2.6)	(2.5)	(9.8)

주: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3)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수치와 비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수익성

FY2013 3/3분기 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전년동기에 비해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0.6%p 낮아진 0.9%를 기록함.

- FY2013 3/3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재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제외) 자본 이익률이 모두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0.6%p 하락한 0.9%를 기록함.
 -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과 총자본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7%p 하락한 0.7%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자동차보험 실적 악화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한 1.5%를 기록함.

〈표 3〉 보험산업 자본이익률^{1),2)}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1/4	2/4	3/4	4/4	연간 ³⁾	1/3	2/3	3/3	연간 ^{3),4)}
생명보험	1.9	1.9	1.4	1.4	6.6	1.6	1.8	0.7	4.1
손해보험	4.1	3.4	1.8	1.9	11.6	2.9	2.4	1.5	7.0
합계	2.4	2.3	1.5	1.5	7.8	2.0	2.0	0.9	4.8

주: 1)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는 농협생명·화재보험의 진입으로 FY2012 1분기부터 각각 24개, 18개 국내외 보험회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FY2013 3분기 생명보험회사는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진입으로 25개 회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3)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개요〉

■ FY2013 3/3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단체보험 수입보험료가 38.6% 급증하였으나 개인보험 수입보험료가 15.0%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8.3% 감소한 28조 7,363억 원을 기록함.

- 개인보험의 경우 사망보험 수입보험료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2012년 8월 이후 급증세를 보였던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수입보험료 기저효과가 지속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15.0% 감소함.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대폭 증가하면서 38.6% 증가함.
- 연간기준 수입보험료는 전년도 저축성 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FY2012 3/4분기 누적치대비 8.0% 감소함.

■ FY2013 3/3분기 생명보험 총자산은 수입보험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정 운용자산 중 채권위주의 수익증권과 특별계정 자산이 증가하면서 전분기대비 2.3% 증가함.

〈표 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¹⁾

(단위: 조 원, %)

구분	FY2012					FY2013			
	1/4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³⁾
수입보험료 ²⁾	24.5	28.1	31.3	31.3	115.3	24.5	24.0	28.7	77.2
	(16.5)	(35.9)	(32.3)	(39.9)	(31.3)	(-0.1)	(-14.7)	(-8.3)	(-8.0)
총자산	505.4	529.2	547.8	569.8	569.8	569.5	584.1	597.5	597.5
	(10.3)	(4.7)	(3.5)	(4.0)	(24.4)	(-0.1)	(2.6)	(2.3)	(9.1)

주: 1) 괄호는 증가율이며,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총자산은 전분기대비임.

2)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연금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 FY2013 3/3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사망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도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15.0% 감소함.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2012년 8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즉시연금을 중심으로 한 수입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가 지속되면서 39.2% 감소하였음.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2012년 8월 즉시연금 세제혜택 축소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급증세를 나타내었으나, 2013년 2월 15일 개정세법 발효 이후 예년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일정수준을 유지함.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암보험과 질병보험이 성장하였으나 농협생명보험진입에 의한 기저효과가 끝나면서 4.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사망보험은 FY2013들어 종신보험 보다는 질병보험이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
-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또한 2012년 8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세제혜택 축소 전 가입수요 증가에 대한 기저효과로 13.2% 감소하였음.
 - 생사혼합보험의 기저효과는 시장의 전반적 저금리의 영향으로 생존보험의 비과세 혜택에 의한 기저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변액유니버설보험 수입보험료는 증가한 반면 변액연금 수입보험료의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2.5% 감소함.
 - 추가납입이 가능한 변액유니버설보험 수입보험료는 주가지수가 연초 1,900포인트 수준에서 12월 말 2,000포인트 수준으로 회복함에 따라 증가세를 유지, 변액연금수입보험료를 역전하였음.
 - 반면 채권편입비율이 높은 변액연금 수입보험료는 주식시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지속에 따라 감소세를 지속하였음.
- FY2013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보험이 소폭 감소(-0.9%)에 그쳤으나 사망보험이 저성장(3.8%)하고 생존보험의 대폭 감소(-32.0%) 및 생사혼합보험 감소(-9.0%)로 인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3/4분기 누적치) 10.6% 감소함.

■ FY2013 3/3분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단체 수입보험료 성장이 저조하였으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대폭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38.6% 증가함.

○ 이는 저축성 일반단체보험이 소폭 성장하고 저금리와 DB형 퇴직연금 의무적립비율상향(60%)에 따라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40% 증가한데 기인함.

○ FY2013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전년대비(3/4분기 누적치) 25.7% 증가함.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1/4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⁴⁾
생존	보험료	58,357	89,359	91,316	97,580	336,612	53,144	53,996	55,496	162,636
	증가율	42.6	107.5	108.6	88.9	87.6	-8.9	-39.6	-39.2	-32.0
	구성비	23.8	31.8	29.1	31.2	29.2	21.7	22.5	19.3	21.1
사망	보험료	76,376	76,309	77,232	78,494	308,411	78,913	79,458	80,289	238,660
	증가율	6.8	6.5	7.6	8.8	7.4	3.3	4.1	4.0	3.8
	구성비	31.1	27.1	24.6	25.1	26.7	32.2	33.1	27.9	30.9
생사 혼합	보험료	46,073	54,615	52,905	68,084	221,677	47,606	46,222	45,910	139,738
	증가율	68.5	91.7	79.9	83.3	81.1	3.3	-15.4	-13.2	-9.0
	구성비	18.8	19.4	16.9	21.7	19.2	19.4	19.3	16.0	18.1
변액 보험	보험료	52,354	51,775	52,803	55,297	212,230	52,577	51,368	51,498	155,443
	증가율	-1.2	-5.4	1.3	4.1	-0.3	0.4	-0.8	-2.5	-0.9
	구성비	21.3	18.4	16.9	17.7	18.4	21.5	21.4	17.9	20.1
개인계	보험료	233,160	272,058	274,256	299,455	1,078,929	232,239	231,044	233,194	696,477
	증가율	20.9	37.5	39.1	39.9	34.6	-0.4	-15.1	-15.0	-10.6
	구성비	95.1	96.7	87.5	95.6	93.6	94.8	96.3	81.1	90.2
단체	보험료	12,126	9,175	39,083	13,772	74,156	12,765	8,957	54,169	75,891
	증가율	-32.0	1.5	-1.8	40.1	-3.1	5.3	-2.4	38.6	25.7
	구성비	4.9	3.3	12.5	4.4	6.4	5.2	3.7	18.9	9.8
합계	보험료	245,286	281,233	313,339	313,227	1,153,086	245,003	240,001	287,363	772,367
	증가율	16.5	35.9	32.3	39.9	31.3	-0.1	-14.7	-8.3	-8.0

주: 1) 단체보험에는 특별계정의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됨.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임.

3)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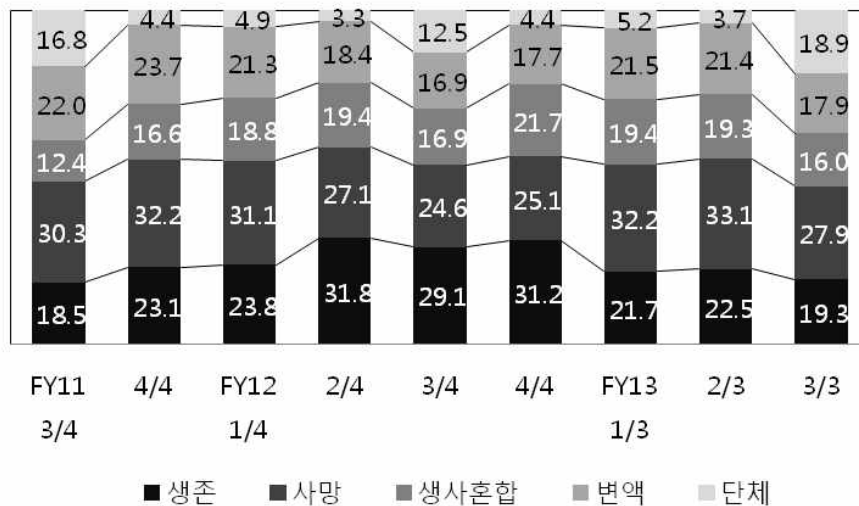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 FY2013 3/3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는 수입보험료가 증가한 단체보험과 사망보험 비중이 높아지고 수입보험료가 소폭 감소한 변액보험도 비중이 낮아졌으나, 수입보험료가 크게 줄어든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의 비중은 하락함.

- 사망보험비중은 전년동기대비 3.3%p 상승한 27.9%로 생명보험 종목 중 가장 비중이 높았고 단체보험 비중이 6.4%p, 변액보험 비중이 1.0%p 높아져 각각 18.9%, 17.9%를 나타냄.
-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비중은 수입보험료의 큰 폭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9.8%p, 0.9%p 하락한 19.3%, 16.0%를 기록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단위: %)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13 3/3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의 경우 전반적인 수입보험료 감소 속에도 상위 3사와 외국사의 점유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상승하고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은 하락함.

- 상위 3사의 경우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감소가 컸으나 단체보험이 성장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2%p 높아진 53.2%의 점유율을 나타냄.
- 외국사의 점유율은 일부 외국사들의 수입보험료가 증가하면서 1.8%p 상승한 15.6%로 나타남.
- 국내중소형사의 경우 농협생명을 중심으로 수입보험료가 감소하면서 시장점유율이 1.9%p 하락한 31.3%를 기록함.
- FY2013 기준으로는 전년대비(3/4분기 누계치) 외국사의 점유율만 상승하고 상위 3사와 국내중소형사의 점유율은 하락함.

■ FY2013 3/3분기 허핀달지수는 상위사 및 규모가 큰 중소형사의 점유율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0.0024 하락한 0.1284로 나타남.

〈표 6〉 생명보험시장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¹⁾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1/4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⁵⁾
상위 3개사	45.8	50.9	53.0	50.6	50.3	46.8	48.1	53.2	49.6
국내중소형사 ²⁾	37.2	33.2	33.2	34.6	33.9	36.7	34.6	31.3	33.5
외국사 ³⁾	17.0	15.9	13.8	14.8	15.8	16.4	17.3	15.6	16.9
허핀달지수 ⁴⁾	0.1031	0.1176	0.1308	0.1272	0.1199	0.1062	0.1072	0.1284	0.1140

주: 1) 퇴직보험·연금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국내중소형사(13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정의함.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으로 2013년 12월 말 알리안츠 등 9개사이며 ING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국내 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5)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금 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13 3/3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보험금 지급률은 단체보험의 지급률이 하락하였으나 수입보험료가 크게 감소한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지급률이 상승하면서 전년동기대비 7.1%p 상승한 52.9%로 나타남.

- 단체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 증가로 보험금 지급률이 14.5%p 하락한 31.7%를 보였으며, 사망보험과 변액보험은 수입보험료가 증가했음에도 보험금 지급률은 각각 0.3%p, 5.6%p 상승한 55.1%, 64.1%로 나타남.
-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지급률은 수입보험료의 큰 폭 감소로 각각 22.0%p, 16.6%p 상승한 53.8%, 60.4%로 나타남.

■ 수입보험료 대비 실제 지출한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9%p 상승한 14.0%로 나타났으며, 해지율은 전년동기보다 0.6%p 하락한 7.2%를 기록함.

〈표 7〉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1/4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³⁾
보험금 지급률 ¹⁾	56.9	48.3	45.8	47.0	49.1	55.4	54.8	52.9	54.2
개인계	53.9	45.6	45.7	44.3	47.1	52.9	53.0	57.8	54.6
- 생존	44.1	30.1	31.8	29.4	32.8	49.1	49.0	53.8	50.7
- 사망	55.0	56.9	54.8	58.5	56.3	54.3	53.9	55.1	54.4
- 생사혼합	65.3	44.0	43.8	40.6	47.3	58.1	54.5	60.4	57.6
- 변액	53.1	57.5	58.5	54.8	56.0	49.8	54.6	64.1	56.1
단체	113.9	127.7	46.2	105.7	78.4	100.7	100.1	31.7	51.3
사업비율	15.4	14.0	13.1	13.7	14.0	15.0	15.5	14.0	14.8
해지율 ²⁾	2.8	5.4	7.8	10.0	10.0	2.5	5.0	7.2	7.2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2)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해지율은 누계치임.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13 3/3분기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에 비해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하였으나 보험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52.2% 감소한 3,373억 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이익은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급감으로 전년동기대비 55.4% 감소하였고 투자영업이익은 6.3% 증가함.

〈표 8〉 생명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십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1/4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³⁾
총수익	보험영업	18,563	22,505	22,621	24,951	88,640	18,476	18,446	18,694	55,616
	투자영업	5,656	5,600	6,129	5,266	22,651	6,540	5,753	6,180	18,473
	영업외	984	1,000	1,018	1,037	4,039	1,011	1,012	1,079	3,102
	소 계	25,204	29,105	29,768	31,254	115,330	26,027	25,211	25,953	77,190
총비용	보험영업	14,023	13,958	14,107	15,057	57,144	14,028	13,883	14,893	42,804
	투자영업	1,049	699	1,420	217	3,385	1,494	728	1,175	3,397
	영업외	165	168	181	161	674	205	190	301	695
	소 계	15,236	14,825	15,708	15,435	61,203	15,726	14,801	16,369	46,896
수지차	보험영업	4,540	8,547	8,514	9,895	31,496	4,448	4,563	3,801	12,812
		(27.0)	(175.3)	(166.0)	(130.6)	(122.2)	(-2.0)	(-46.6)	(-55.4)	(-40.7)
	투자영업	4,608	4,901	4,709	5,049	19,266	5,046	5,024	5,005	15,076
		(9.6)	(28.2)	(13.6)	(11.1)	(15.2)	(9.5)	(2.5)	(6.3)	(6.0)
	영업외	820	832	837	876	3,365	807	822	778	2,407
소 계	9,968	14,280	14,060	15,819	54,127	10,301	10,410	9,584	30,294	
책임준비금전입		8,909	13,103	13,146	15,057	50,216	9,142	9,207	9,112	27,461
법인세		215	252	208	36	711	309	296	135	740
당기순이익		844	925	706	726	3,200	850	906	337	2,093
		(-22.6)	(78.3)	(-3.6)	(-29.5)	(-5.1)	(0.7)	(-2.0)	(-52.2)	(-15.4)

주: 1)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2)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부채 및 자본〉

■ FY2013 3/3분기 총부채는 책임준비금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하였으며, 총자본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감소로 3.1% 감소함.

○ 총부채 항목 중 책임준비금은 전년동기대비 11.3% 증가하였고, 총자본 항목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연초대비 시중금리 상승으로 매도가능채권 평가이익이 축소되면서 22.5% 감소함.

〈표 9〉 생명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FY2012				FY2013		
		1/4	2/4	3/4	4/4	1/3	2/3	3/3
책임준비금	금액	352	366	379	394	403	412	421
	증가율	23.1	24.6	26.1	27.6	14.3	12.8	11.3
계약자지분조정	금액	7	9	9	9	7	7	7
	증가율	19.2	54.1	34.1	29.6	0.4	-15.8	-21.0
기타부채	금액	14	14	14	15	14	13	13
	증가율	23.9	13.5	12.7	18.5	-0.4	-6.3	-9.6
특별계정부채	금액	86	90	94	97	96	100	106
	증가율	4.0	13.5	14.4	12.0	11.7	11.5	12.6
부채총계	금액	460	478	496	515	520	533	547
	증가율	19.0	22.5	23.4	24.1	13.2	11.5	10.3
자본금	금액	9	9	9	9	9	10	10
	증가율	5.7	6.0	7.6	7.6	1.9	3.5	2.8
자본잉여금	금액	5	5	6	6	6	6	6
	증가율	76.6	77.6	89.9	89.5	9.8	9.2	2.4
이익잉여금	금액	19	20	21	21	22	22	23
	증가율	15.3	16.9	15.3	12.7	13.1	12.2	10.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금액	13	17	17	19	14	14	13
	증가율	23.8	67.6	46.5	48.7	5.2	-16.5	-22.5
자본총계	금액	46	51	52	55	49	51	50
	증가율	18.3	31.0	27.2	27.1	7.7	0.2	-3.1
부채및자본총계	금액	505	529	548	570	570	584	597
	증가율	18.9	23.2	23.8	24.4	12.7	10.4	9.1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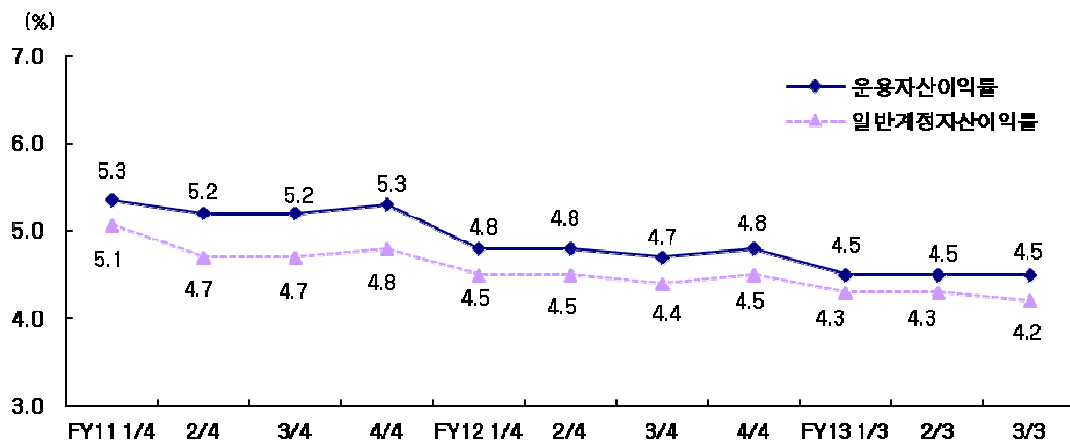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 운용〉

■ FY2013 3/3분기 운용자산 이익률과 일반계정자산 이익률은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대비 각각 0.2%p, 0.2%p 하락한 4.5%와 4.2%로 나타남.

○ 운용자산 중 가장 비중이 큰 매도가능채권의 수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한 4.4%로 나타남.

■ 일반계정 중 투자자산 비중은 유가증권 70.7%, 대출채권 17.9%, 현금과 예금 2.7%, 부동산 3.0%임.

〈그림 2〉 운용자산 이익률^{1),2),3)} 추이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 환산)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일반계정자산에서 비운용자산을 제외한 것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10〉 생명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FY2012				FY2013					
	3/4		4/4		1/3		2/3		3/3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	4.4	100.0	4.5	100.0	4.3	100.0	4.3	100.0	4.2
운용자산 계	93.9	4.7	94.1	4.8	93.9	4.5	94.3	4.5	94.3	4.5
현금과예금	4.4	3.1	3.6	3.5	3.1	3.3	2.8	2.8	2.7	2.8
유가증권	69.0	4.3	70.5	4.3	70.2	4.2	70.8	4.1	70.7	4.1
○ 당기손익인식증권 ³⁾	2.4	5.0	3.2	4.5	2.8	-0.3	3.3	1.5	2.2	2.2
- 주식	0.1	-1.1	0.1	1.4	0.1	-21.6	0.1	-3.6	0.1	0.0
- 채권 등	0.6	7.9	0.7	7.4	0.6	0.0	0.7	2.1	0.7	2.9
- 수익증권	1.7	4.0	2.4	3.5	2.0	0.6	2.5	1.6	1.5	2.1
○ 매도가능증권	49.4	4.1	51.5	4.1	50.5	4.2	49.7	4.1	49.7	4.1
- 주식	5.1	-0.4	5.0	0.3	4.6	0.9	4.5	1.6	4.4	1.2
- 채권 등	41.5	4.7	43.5	4.6	43.0	4.5	42.4	4.4	42.3	4.4
- 수익증권	2.8	3.4	3.0	3.5	2.9	4.3	2.9	4.0	3.1	3.8
○ 만기보유증권	15.8	5.1	14.2	5.3	15.3	4.7	16.2	4.6	17.2	4.6
- 채권 등	15.8	5.1	14.2	5.3	15.3	4.7	16.2	4.6	17.2	4.6
- 수익증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1.4	2.0	1.5	2.4	1.7	7.0	1.6	4.9	1.5	4.1
대출채권	17.4	6.9	17.0	6.9	17.6	6.4	17.7	6.4	17.9	6.4
부동산	3.1	3.8	3.0	3.8	3.1	3.6	3.0	3.7	3.0	3.4
비운용자산	6.1	0.2	5.9	0.1	6.1	0.2	5.7	0.3	5.7	0.3
총자산	100.0	4.2	100.0	4.3	100.0	2.3	100.0	3.7	100.0	3.9
일반계정	83.4	4.4	83.2	4.5	83.5	4.3	83.0	4.3	82.9	4.2
특별계정	16.6	3.2	16.8	3.4	16.5	-7.3	17.0	1.1	17.1	2.1
총자산 규모	5,478,271		5,698,366		5,695,133		5,840,714		5,974,801	

주: 1) 이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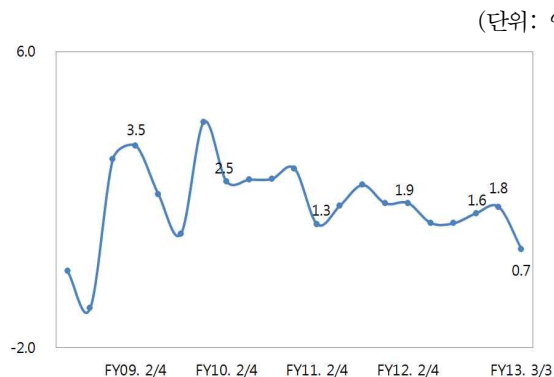
〈수익성〉

1) 자본이익률(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²⁾

■ FY2013 3/3분기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과 총자본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7%p 하락한 0.7%를 기록함.

-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과 총자본(자본총계)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52.2%, 3.15 감소하면서 자본이익률이 크게 감소함.
- 3개의 외국사와 3개의 중소형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음(-)의 자본이익률을 나타냄.

〈그림 3〉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그림 4〉 회사별 자본이익률^{1),2)3)}

주: 1)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3)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3/3분기에 영업을 시작한 교보플래닛은 제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3 3/3분기 전년동기대비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방카사 모든 그룹에서 자본이익률이 하락함.

- 외국사의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 감소로 1.1%p 하락한 1.0%를 나타냈으며, 방카사 경우도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면서 자본이익률이 1.1%p나 하락한 0.1%를 기록함.

2)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로 FY2013 3/3분기부터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의 진입으로 25개 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함.

- 외국사의 자본이익률은 보험영업이 부진했던 일부 외국사들과 보험영업이 양호했던 나머지 외국사들로 인해 그룹 내에서 편차가 컸음.
- 대형사의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6%p 하락한 0.6%를 나타냈으며, 중소형사의 경우도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하면서 자본이익률은 0.7%p 하락한 0.7%를 보임

〈표 11〉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추이¹⁾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1/4	2/4	3/4	4/4	연간 ²⁾	1/3	2/3	3/3	연간 ^{2),4)}
대형사	1.7	1.9	1.2	1.5	6.4	1.5	1.8	0.6	3.8
중소형사	2.9	2.2	1.4	1.1	7.1	1.4	1.0	0.7	3.0
외국사	2.0	2.1	2.1	0.9	7.3	2.4	3.0	1.0	6.6
방카사 ³⁾	-0.2	-1.8	1.2	1.8	1.4	0.6	1.5	0.1	2.0
전체	1.9	1.9	1.4	1.4	6.6	1.6	1.8	0.7	4.1

주: 1)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2)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년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3) 방카사는 은행지주 계열사 중 KB생명, 우리아비바생명, 하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등 4개사를 대상으로 함.

4) FY2013 연간수치는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13 3/3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방카슈랑스채널 판매비중이 높은 저축성 보험의 초회보험료가 크게 감소하면서 방카슈랑스 비중도 크게 하락한 반면, 단체보험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임직원 판매채널 비중은 상승함.

○ FY2013 3/3분기 방카슈랑스 비중은 방카슈랑스를 통한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초회보험료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5.0%p 하락한 45.8%를 기록함.

○ 설계사와 대리점 판매비중의 경우도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초회보험료가 크게 감소

하면서 전년동기대비 각각 5.0%p, 1.1%p 하락한 18.9%, 7.2%의 비중을 기록함.

- 임직원 판매비중은 퇴직연금 초회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0.9%p 상승한 27.8%를 나타냄.

〈표 12〉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FY2012					FY2013			
	1/4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²⁾
임직원	5.3	2.6	6.9	3.6	4.5	12.1	9.6	27.8	17.3
설계사	19.3	19.6	23.9	19.9	21.0	20.3	22.2	18.9	20.3
대리점	5.4	5.3	8.3	5.6	6.3	5.7	7.2	7.2	6.7
중개사	0.0	0.0	0.0	0.0	0.0	0.0	0.0	0.0	0.0
방카슈랑스	69.9	72.5	60.8	70.8	68.1	61.7	60.8	45.8	55.4
기타	0.1	0.0	0.1	0.0	0.0	0.2	0.2	0.3	0.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5,622	82,265	82,087	225,028	307,114	33,279	29,262	38,030	100,570

주: 1) 합계의 하단 수치는 전체 초회보험료 규모임.

2)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13 3/3분기 생명보험산업 모집조직의 경우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모두 감소함.

-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364명 감소한 30,380명으로 나타났으며, 상위3사와 외국사에
서 모두 감소한 반면 중소형사에서 증가함.
- 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6,008명 감소하였으며, 전속설계사와 교차설계사가 각각
5,214명, 794명 감소하여 143,075명임.
- 외국사와 상위3사의 경우 전속설계사와 교차설계사 수가 모두 크게 감소함.
- 대리점 수는 개인대리점과 법인대리점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300개가 감소한
7,035개를 나타냄.

〈표 13〉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12				FY2013		
	1/4	2/4	3/4	4/4	1/3	2/3	3/3
임직원	29,065	29,586	29,717	30,436	30,578	30,744	30,380
설계사	156,149	157,738	156,152	154,830	151,805	149,083	143,075
- 전속	144,736	147,004	145,933	145,113	142,391	140,943	135,729
- 교차	11,413	10,734	10,219	9,717	9,414	8,140	7,346
대리점	8,981	8,865	8,455	7,693	7,484	7,335	7,035
- 개인	5,624	5,514	5,157	4,451	4,141	4,023	3,855
- 법인	3,357	3,351	3,298	3,242	3,343	3,312	3,180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개요〉

■ FY2013 3/3분기³⁾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 역성장을 비롯한 대부분 종목의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한 19조 2,842억 원을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12년 세제개편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납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감소세로 6.4% 증가에 그친 10조 6,187억 원을 시현함.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퇴직연금이 크게 증가하여 17.2% 증가한 3조 3,014억 원을 나타냄.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대물 담보 중심으로 소폭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여전히 2.0% 증가에 그친 3조 2,907억 원을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화재 및 해상보험 역성장과 보증 및 특종보험 저성장으로 1.6% 증가한 2조 733억 원을 나타냄.
- FY2013 연간으로는 장기손해보험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둔화되고 대부분 종목들이 저성장을 나타내어 4.2% 증가한 53조 7,582억 원을 기록함.⁴⁾

■ FY2013 3/3분기 말 손해보험 총자산은 일반계정자산과 특별계정자산 모두 증가폭이 확대되어 전분기대비 3.3% 증가한 170조 5,563억 원을 기록함.

- 일반계정자산은 계속보험료 유입으로 전분기대비 3.2% 증가하였으며, 특별계정자산은 퇴직연금 관련 자산 증가로 전분기대비 7.3% 증가함.

3) 회계연도 개편으로 FY2013은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음.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하였으며, 이하 내용 중 연간비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표 14〉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¹⁾

(단위: 조 원, %)

구분	FY2012				FY2013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⁴⁾
원수보험료	16.7 (17.8)	18.1 (8.7)	17.0 (5.5)	68.5 (12.4)	17.4 (3.3)	17.1 (2.3)	19.3 (6.8)	53.8 (4.2)
장기손보	10.1 (24.0)	10.0 (14.9)	10.3 (6.8)	40.2 (17.7)	10.3 (4.9)	10.6 (5.4)	10.6 (6.4)	31.5 (5.6)
연금부문 ²⁾	1.5 (41.6)	2.8 (0.3)	1.5 (7.0)	7.4 (11.1)	1.7 (3.1)	1.3 (-10.8)	3.3 (17.2)	6.3 (6.3)
자동차	3.2 (-2.9)	3.2 (-1.6)	3.1 (-3.5)	12.8 (-1.5)	3.2 (-0.9)	3.2 (0.1)	3.3 (2.0)	9.7 (0.4)
일반손해	2.0 (14.4)	2.0 (11.0)	2.0 (13.5)	8.1 (13.9)	2.1 (2.6)	2.0 (0.1)	2.1 (1.6)	6.2 (1.5)
총자산 ³⁾	146.0 (5.4)	151.8 (4.0)	156.5 (3.1)	156.5 (20.5)	160.3 (2.5)	165.1 (3.0)	170.6 (3.3)	170.6 (12.4)
일반계정	140.4 (5.2)	146.0 (4.0)	150.2 (2.9)	150.2 (20.2)	154.3 (2.7)	158.9 (3.0)	164.0 (3.2)	164.0 (12.3)
특별계정	5.6 (7.7)	5.8 (3.4)	6.3 (8.6)	6.3 (27.8)	6.0 (-3.7)	6.2 (2.0)	6.6 (7.3)	6.6 (14.4)

주: 1) () 안은 증감률이며,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고,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2) 연금부문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실적을 포함함.

3) 총자산 및 증감율은 IFRS의 변경된 계정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적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감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

1) 장기손해보험

■ FY2013 3/3분기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은 증가하였으나 저축성보험이 4분기 연속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6.4% 증가에 그친 10조 6,187억 원을 기록함.

○ 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11.9% 증가한 2조 7,604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변경⁵⁾ 이전 급증한 신규계약의 계속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임.

- 질병보험 원수보험료는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⁶⁾ 출시에 따른 초회보험료 증가 등으로 21.2% 늘어난 2조 1,418억 원을 나타냄.
-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계속보험료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둔화된 데다 2012년 세제개편의 기저효과로 초회보험료도 크게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1.4% 감소한 2조 9,267억 원을 기록함.
- FY2013 연간으로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저축성보험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여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5.6% 증가한 31조 5,478억 원을 시현함.

■ FY2013 3/3분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세제개편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36.6% 줄어든 4,626억 원을 기록함.

- 상해보험 초회보험료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이전에 신규가입 수요가 집중되고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3분기 연속 지속되면서 15.9% 줄어든 574억 원을 기록함.
- 질병보험 초회보험료는 2013년 4월부터 본격적인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되고, 이후 신규가입이 꾸준히 늘어나 17.3% 증가한 584억 원을 기록함.
-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세제개편에 따른 기저효과로 일시납 초회보험료가 크게 감소하여 45.7% 줄어든 3,036억 원을 나타냄.
- FY2013 연간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저축성보험과 상해보험 초회보험료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47.8% 줄어든 1조 5,574억 원을 기록함.

5) 2013년 1월 1일부터 단독상품 출시, 갱신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이 시행되었으며, 제도 변경 이전에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신규가입 수요가 급증하였음.

6) 실손의료보험만을 주계약으로 단독 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의미하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함.

〈표 15〉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²⁾
원 수 보험료	상 해	보험료	23,813	24,678	25,782	97,301	26,497	26,923	27,604	81,024
		증가율	18.2	16.7	17.8	16.5	15.1	13.1	11.9	13.3
	운전자	보험료	6,129	6,151	6,128	24,555	6,156	6,233	6,305	18,694
		증가율	7.3	8.3	8.6	7.8	0.2	1.7	2.5	1.4
	재 물	보험료	9,392	9,456	9,266	37,429	9,451	9,417	9,330	28,198
		증가율	26.2	25.5	19.6	29.1	1.5	0.3	-1.3	0.1
	질 병	보험료	16,927	17,665	18,468	69,485	19,390	20,482	21,418	61,290
		증가율	9.3	12.4	15.2	11.2	18.0	21.0	21.2	20.1
	저축성	보험료	32,186	29,689	31,247	124,559	29,351	30,682	29,267	89,300
		증가율	53.4	17.7	-6.4	27.8	-6.6	-4.7	-1.4	-4.3
	통합형	보험료	12,072	12,047	12,151	48,196	12,337	12,265	12,219	36,821
		증가율	7.9	5.7	3.4	6.1	3.4	1.6	1.4	2.2
	자산 연계형	보험료	99	96	73	371	56	51	45	151
		증가율	-50.7	-44.9	-46.1	-49.3	-45.7	-48.5	-53.3	-49.1
초 회 보험료	상 해	보험료	100,619	99,782	103,114	401,896	103,238	106,053	106,187	315,478
		증가율	24.0	14.9	6.8	17.7	4.9	5.4	6.4	5.6
	운전자	보험료	579	682	912	2,735	447	482	574	1,503
		증가율	36.6	39.3	51.3	38.4	-20.5	-16.8	-15.9	-17.6
	재 물	보험료	110	104	105	419	115	138	124	378
		증가율	68.7	45.3	36.7	50.1	14.7	25.8	19.3	20.1
	질 병	보험료	306	285	259	1,249	353	250	232	836
		증가율	-31.7	-31.5	-25.0	-20.2	-11.6	-18.2	-18.4	-15.6
	저축성	보험료	377	498	650	1,828	480	587	584	1,651
		증가율	59.8	82.4	96.4	58.9	58.6	55.7	17.3	40.2
	통합형	보험료	9,189	5,595	5,461	30,539	3,919	4,034	3,036	10,989
		증가율	95.8	-22.5	-60.2	7.2	-61.9	-56.1	-45.7	-56.2
	자산 연계형	보험료	142	130	230	653	67	75	75	217
		증가율	-9.8	-11.2	15.9	8.3	-56.3	-46.8	-42.0	-48.8
계 속 보험료	상 해	보험료	0	0	0	0	0	0	0	0
		증가율	-	-	-	-	-	-	-	-
	운전자	보험료	10,703	7,294	7,616	37,423	5,379	5,568	4,626	15,574
		증가율	77.6	-15.3	-50.1	9.9	-54.5	-48.0	-36.6	-47.8
	재 물	보험료	23,234	23,995	24,870	94,566	26,050	26,441	27,030	79,521
		증가율	17.8	16.1	16.8	15.9	16.0	13.8	12.6	14.1
	질 병	보험료	6,019	6,047	6,023	24,136	6,040	6,094	6,181	18,315
		증가율	6.6	7.9	8.2	7.3	-0.1	1.2	2.2	1.1
	저축성	보험료	9,086	9,171	9,007	36,180	9,098	9,167	9,098	27,362
		증가율	29.9	28.8	21.7	31.9	2.0	0.9	-0.8	0.7
	통합형	보험료	16,550	17,167	17,817	67,658	18,910	19,895	20,834	59,639
		증가율	8.5	11.2	13.5	10.3	17.3	20.2	21.4	19.7
	자산 연계형	보험료	22,997	24,094	25,787	94,020	25,433	26,647	26,231	78,311
		증가율	41.1	33.8	31.2	36.3	20.3	15.9	8.9	14.8
계 속 보험료	상 해	보험료	11,931	11,917	11,921	47,543	12,271	12,190	12,143	36,604
		증가율	8.2	5.9	3.2	6.1	4.2	2.2	1.9	2.8
	운전자	보험료	99	96	73	371	56	51	45	151
		증가율	-50.7	-45.5	-46.1	-49.5	-45.7	-48.5	-53.3	-49.1
	재 물	보험료	89,916	92,488	95,498	364,472	97,858	100,484	101,562	299,904
		증가율	19.7	18.2	17.5	18.6	13.0	11.8	9.8	11.5

주: 1) 기간별 수치는 분기별 실적이며, 자산연계형은 FY2009 3/4분기부터 초회와 계속보험료로 구분됨.

2)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3 3/3분기 장기손해보험 누적 해지율은 질병보험과 저축성보험 해지율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0.5%p 낮아진 8.9%를 나타냄.

- 질병보험 해지율은 연초보유계약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1.6%p 하락한 7.5%를 나타냄.
- 저축성보험 해지율은 보유계약액이 감소하였으나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이 더 크게 감소하여 0.7%p 하락한 8.9%를 기록함.

〈표 16〉 장기손해보험 해지율^{1),2)}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4	3/4	4/4	1/3	2/3	3/3
상 해	6.0	8.8	11.9	2.9	6.4	9.2
운전자	6.1	9.0	12.2	3.2	6.2	8.8
재 물	9.2	12.7	15.5	5.0	8.6	11.6
질 병	6.0	9.1	12.7	2.7	5.2	7.5
저축성	6.6	9.6	12.8	3.1	6.1	8.9
통합형	5.2	7.7	10.2	2.4	4.8	7.0
계	6.4	9.4	12.5	3.1	6.2	8.9

주: 1)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보유계약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연금부문(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 FY2013 3/3분기 연금부문 원수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 원수보험료가 감소하였으나 퇴직연금 원수보험료가 증가하여 전체 전년동기대비 17.2% 증가한 3조 3,014억 원을 기록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의 경우 2011년부터 시행된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 상향 조정⁷⁾ 효과가 줄어들어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으며, FY2013 3/3분기 0.7% 감소한 1조 633억 원을 기록함.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28.1% 증가한 2조 2,374억 원을 나타냈으며, 4분기 동안 연속

7)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2011년 1월부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됨.

된 감소세를 벗어남.

- FY2013 연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3.1% 증가에 그친 3조 1,829억 원의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9.8% 증가한 3조 1,152억 원을 나타냄.

〈표 17〉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³⁾
개인 연금	보험료	10,296	10,707	10,628	41,489	10,622	10,573	10,633	31,829
	증가율 ¹⁾	25.6	17.1	13.8	21.1	7.8	2.7	-0.7	3.1
	구성비 ²⁾	70.1	38.0	70.4	55.8	62.9	80.7	32.2	50.5
퇴직 보험	보험료	6	2	0	9	3	0	7	10
	증가율	48.5	-97.7	-100.0	-99.0	229.6	-100.0	233.6	18.8
	구성비	0.0	0.0	0.0	0.0	0.0	0.0	0.0	0.0
퇴직 연금	보험료	4,389	17,465	4,469	32,840	6,251	2,527	22,374	31,152
	증가율	102.3	-7.4	-1.7	3.3	-4.1	-42.4	28.1	9.8
	구성비	29.9	62.0	29.6	44.2	37.0	19.3	67.8	49.5
합계	보험료	14,691	28,174	15,097	74,337	16,877	13,100	33,014	62,991
	증가율	41.6	0.3	7.0	11.1	3.1	-10.8	17.2	6.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구성비는 연금부문 합계 중 차지하는 비중임.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자동차보험

■ FY2013 3/3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대물 및 자손(자기신체손해) 담보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한 3조 2,907억 원을 기록하며 소폭의 회복세를 보임.

- 대인배상 I 원수보험료는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 판매가 늘어나 1.6% 감소한 7,918억 원을 기록함.
-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자차 담보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대물 담보와 자손 담보가 회복세를 보여 2.9% 증가한 2조 3,461억 원을 기록함.

- FY2013 연간으로는 할인형 상품 비중 증가에 따른 대당보험료 감소세로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0.4% 증가에 그친 9조 7,435억 원을 기록함.

〈표 18〉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⁴⁾
대인 I		7,991	8,048	7,765	31,915	7,992	7,849	7,918	23,759
		-6.9	-3.2	-3.3	-4.5	-1.5	-1.8	-1.6	-1.6
종합 보험	대인 II	3,274	3,310	3,200	13,072	3,295	3,271	3,393	9,960
		-3.8	-1.5	-3.4	-1.9	0.2	-0.1	2.5	0.9
	대물	10,259	10,450	10,335	41,325	10,923	10,956	11,348	33,227
		7.6	6.0	3.7	7.8	6.3	6.8	8.6	7.2
	자차	7,749	7,620	7,311	30,652	7,144	7,168	7,211	21,523
		-11.5	-9.9	-13.5	-10.5	-10.4	-7.5	-5.4	-7.8
	자손	1,144	1,170	1,120	4,561	1,167	1,191	1,277	3,635
		-2.8	0.5	0.3	-0.2	3.5	4.2	9.2	5.6
	무보험	250	250	227	982	231	233	232	695
		-10.3	-5.7	-12.0	-8.6	-9.2	-6.8	-7.3	-7.8
소계		22,676	22,801	22,193	90,593	22,760	22,820	23,461	69,041
		-2.0	-1.3	-4.0	-1.0	-0.7	0.6	2.9	0.9
외화표시		23	33	25	111	34	23	34	91
		-24.2	-14.2	-2.9	-8.9	11.9	2.7	1.1	5.3
이륜자동차 ²⁾		211	161	152	792	250	212	173	635
		28.6	8.0	0.7	24.2	-6.7	0.7	7.2	-0.8
기타 ³⁾		1,256	1,225	1,241	5,006	1,303	1,285	1,321	3,909
		4.5	1.8	4.2	6.9	1.5	2.3	7.9	3.8
합계		32,157	32,268	31,376	128,416	32,338	32,190	32,907	97,435
		-2.9	-1.6	-3.5	-1.5	-0.9	0.1	2.0	0.4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3 3/3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2년 폭설로 인한 손해율 급등의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6%p 하락한 90.3%를 기록하였으나 할인형 상품 확대에 따른 대당보험료 감소의 영향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 대인배상 I 손해율은 2012년 말보다 개선된 기후 여건⁸⁾등에 따른 발생손해액 감소로 3.7%p 하락한 91.7%를 나타냈으나 9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종합보험 손해율의 경우 대물 담보 손해율은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주체 변경⁹⁾ 등 정부 대책의 효과로 대인 II와 자손 담보 손해율이 개선되어 전체 1.0%p 하락한 89.8%를 나타냄.
- FY2013 연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할인형 상품 확대에 따른 대당보험료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8%p 상승한 87.9%로 악화됨.¹⁰⁾

〈표 19〉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¹⁾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⁴⁾
대인 I	86.5	95.4	83.0	86.9	83.9	89.9	91.7	88.5
종합보험	대인 II	82.9	91.0	87.7	90.9	94.2	102.3	91.3
	대물	87.6	97.2	86.9	89.3	90.0	91.4	95.6
	자차	72.3	83.7	78.7	73.3	76.6	81.3	88.7
	자손	77.9	92.1	98.6	85.4	77.2	91.4	79.2
	무보험	64.2	56.2	40.2	53.0	55.1	80.5	54.4
	소계	80.7	90.8	84.3	83.3	85.1	89.3	89.8
외화표시	104.8	88.6	74.5	84.7	57.5	69.3	71.5	66.1
이륜자동차 ²⁾	86.4	77.6	67.7	81.2	90.8	94.3	94.9	93.3
기타 ³⁾	81.0	92.2	80.1	79.8	70.8	85.0	88.4	81.5
합계	82.1	91.9	83.7	84.0	84.4	89.3	90.3	87.9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손해율이며, FY2011부터 IFRS가 적용되며,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8) 2012년 겨울에는 평균 강수량이 평년대비 203%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고 이례적인 한파(寒波)도 나타났으나, 2013년 12월에는 평균 강수량 21.0mm, 평균 기온 1.5℃로 전년동월대비 적은 눈과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음.

9) 2013년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기 시작함.

10) FY2013 전체 손해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기준 손해율과 비교함.

4) 일반손해보험

■ FY2013 3/3분기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 및 해상보험 감소세 지속과 보증 및 특종보험 저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1.6% 증가에 그친 2조 733억 원을 기록함.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경기둔화 등으로 일반, 주택, 그리고 공장화재 담보가 모두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여 전체 2.4% 감소한 923억 원을 기록함.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24.3% 줄어든 1,638억 원을 시현함.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보험료 조정과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1.6% 증가에 그친 3,976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3분기 연속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됨.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경기둔화 등으로 기술보험과 상해보험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여 3.1% 증가한 1조 2,435억 원의 저성장을 나타냄.
 - 기술보험 원수보험료는 경기둔화와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17.5% 감소함.
 - 상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여행보험은 증가하였으나 단체상해보험이 크게 줄어 들어 전체 0.8% 감소함.
 - 책임보험 원수보험료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가 등에 힘입어 16.6% 늘어났으며,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기업성 물건 확대로 17.7% 증가함.
- FY2013 연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경기둔화에 따른 전 종목의 부진으로 1.5% 증가한 6조 1,679억 원을 기록함.

〈표 20〉 일반손해보험²⁾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⁴⁾
화재	보험료	758	946	808	3,293	755	734	923	2,413
	증가율	26.7	24.8	23.2	25.0	-3.4	-3.1	-2.4	-2.9
	구성비	3.8	4.6	4.0	4.1	3.6	3.7	4.5	3.9
해상	보험료	2,217	2,165	1,493	8,230	2,122	2,257	1,638	6,016
	증가율	3.7	18.1	-36.1	-5.4	-9.9	1.8	-24.3	-10.7
	구성비	11.2	10.6	7.5	10.2	10.0	11.4	7.9	9.8
보증	보험료	3,810	3,913	4,013	15,816	3,801	3,461	3,976	11,238
	증가율	4.8	0.1	-1.7	4.2	-6.9	-9.1	1.6	-4.8
	구성비	19.2	19.2	20.1	19.6	18.0	17.5	19.2	18.2
특종	보험료	11,867	12,063	12,249	48,557	13,064	11,673	12,435	37,172
	증가율	15.5	9.4	28.6	17.8	5.6	-1.6	3.1	2.4
	구성비	59.9	59.1	61.3	60.1	61.8	58.9	60.0	60.3
해외 원보험	보험료	1,147	1,314	1,418	4,876	1,390	1,688	1,762	4,840
	증가율	72.1	53.8	40.8	54.1	39.5	47.1	34.0	40.0
	구성비	5.8	6.4	7.1	6.0	6.6	8.5	8.5	7.8
합계	보험료	19,798	20,401	19,981	80,773	21,132	19,813	20,733	61,679
	증가율	14.4	11.0	13.5	13.9	2.6	0.1	1.6	1.5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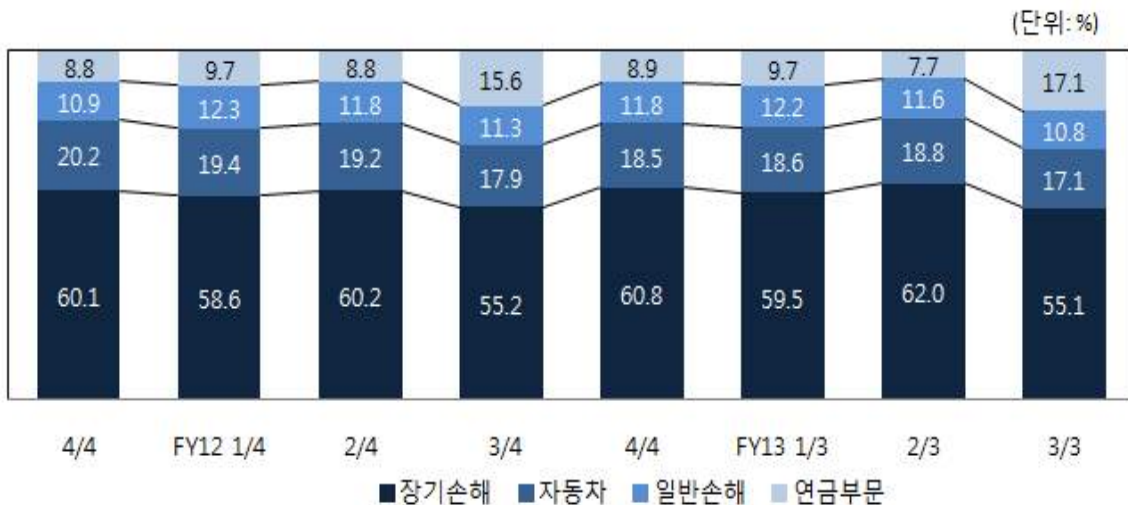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 FY2013 3/3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연금부문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확대된 반면,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그리고 일반손해보험 비중은 모두 축소됨.

- 연금부문 비중은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실적 개선으로 전년동기대비 1.5%p 확대된 17.1%를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은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증가율을 나타내어 비중은 전년동기와 유사한 55.1%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저성장으로 비중이 각각 0.7%p, 0.5%p 축소된 17.1%, 10.8%를 나타냄.

〈그림 5〉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13 3/3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의 경우 국내 중소형사 점유율이 확대된 반면, 상위 4사¹¹⁾, 전업사, 외국사 점유율은 축소되었으며, 허핀달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0.0017 감소한 0.1448을 나타냄.

- 국내 중소형사 점유율은 다른 그룹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시현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8%p 확대된 25.8%를 기록함.
- 상위 4사 점유율의 경우 국내 중소형사 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 0.5%p 축소된 70.2%를 기록함.
- 전업사와 외국사 점유율은 모두 0.1%p씩 줄어들어 각각 2.1%, 2.0%를 나타냄.
- FY2013 연간으로는 국내 중소형사 점유율이 0.4%p 확대된 반면, 상위 4사와 전업사 점유율이 각각 0.1%p, 0.2%p 축소되었으며, 허핀달지수는 0.0003 감소한 0.1453을 나타냄.¹²⁾

〈표 21〉 손해보험산업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¹⁾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⁴⁾
상위 4사	70.1	70.7	69.4	70.0	70.3	69.9	70.2	70.1
국내 중소형사 ²⁾	25.4	25.0	26.2	25.5	25.4	25.9	25.8	25.7
전업사	2.3	2.2	2.3	2.3	2.2	2.0	2.1	2.1
외국사	2.3	2.1	2.1	2.2	2.1	2.2	2.0	2.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온라인사	2.2	2.0	2.1	2.1	2.0	2.1	1.9	2.0
허핀달지수 ³⁾	0.1473	0.1465	0.1425	0.1448	0.1459	0.1459	0.1448	0.1453

주: 1)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이며,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I, II를 모두 포함함.

2) 국내 중소형사에는 국내 중소형사뿐만 아니라 국내 온라인사가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국내 및 외국계 재보사를 포함함. 외국사는 AIG, ACE, 페더럴,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미쓰이스미토모뿐만 아니라 AXA손보, 에르고다움다이렉트와 같은 외국계 온라인사도 포함되었음. 온라인사는 주로 자동차보험에 주력하는 더케이손보, 현대하이카, 에르고다움다이렉트, AXA손보 실적을 따로 구분하여 파악한 것임.

3) 허핀달지수는 각 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1)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 손해보험회사를 의미함.

12) FY2013 전체는 2012년 12월 말 누적 기준과 비교함.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13 3/3분기 손해보험 손해율의 경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장기손해보험 손해율도 악화됨에 따라 전체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한 82.5%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대비 1.6%p 감소한 90.3%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9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경과보험료 증가율보다 발생손해액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1.1%p 악화된 84.0%를 기록함.
- FY2013 연간 손해보험 손해율의 경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대당보험료 감소세로 악화됨에 따라 1.1%p 상승한 85.0%를 기록함.¹³⁾

■ FY2013 3/3분기 사업비율의 경우 사업비가 보유보험료보다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0.4%p 높아진 20.4%를 나타냄.

- 장기손해보험 사업비율은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 신규판매 증가의 영향으로 0.2%p 상승한 18.4%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은 원수보험료의 소폭 회복세로 사업비가 늘어나 0.9%p 상승한 22.5%를 나타냄.
- FY2013 연간 사업비율은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사업비 증가로 0.7%p 상승한 18.2%를 시현함.¹⁴⁾

■ FY2013 3/3분기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의 동반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0.7%p 높아진 103.0%를 기록함.

- FY2013 연간 손해보험 합산비율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가 두드러져 1.8%p 상승한 103.2%를 기록함.¹⁵⁾

13) FY2013 전체는 2012년 12월 말 누적 기준과 비교함.

14) FY2013 전체는 2012년 12월 말 누적 기준과 비교함.

15) FY2013 전체는 2012년 12월 말 누적 기준과 비교함.

〈표 22〉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¹⁾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⁴⁾
손해율	장기손해보험 ²⁾	84.5	82.9	83.2	83.7	83.8	83.5	84.0	83.8
	자동차보험	82.1	91.9	83.7	84.0	84.4	89.3	90.3	87.9
	화재보험	68.2	52.7	56.1	59.2	56.8 ³⁾	60.9	44.0	33.8
	해상보험	49.7	56.1	77.8	61.5	48.6	58.0	67.5	57.7
	보증보험	68.6	48.1	72.3	62.3	155.0	31.7	45.8	76.5
	특종보험	79.8	72.1	69.3	70.6	59.8	71.1	66.1	65.8
	해외원보험	55.7	54.5	67.6	58.4	63.8	54.1	116.9	79.1
	해외수재보험	57.3	47.4	65.6	58.9	59.8	60.0	52.8	57.6
	전체	82.4	82.3	81.6	81.7	82.5	81.8	82.5	85.0
사업비율		18.7	20.0	21.1	19.5	19.5	19.2	20.4	18.2
합산비율		101.1	102.3	102.7	101.2	102.0	101.0	103.0	103.2

주: 1)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이며, FY2011부터 IFRS가 적용됨.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2)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을 감안한 재무손해율임.

3) 재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 환급을 일부 제외함.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13 3/3분기 전체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A)은 투자영업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험영업이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14.8% 감소한 3,735억 원 흑자를 시현함.
 - 보험영업이익은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둔화된 데다 보험료적립금과 순사업비 등이 늘어나 7,005억 원 적자를 기록함.
 - 투자영업이익은 이자수익 증가와 외화환산손실 감소 등으로 1조 3,118억 원 흑자를 기록함.
 - FY2013 연간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A)은 1조 4,919억 원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보험영업 적자 규모 확대로 -23.2%를 나타냄.¹⁶⁾

■ FY2013 3/3분기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손해보험회사¹⁷⁾의 당기순이익(B)은 자동차보험 실적 악화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3.9% 감소한 2,697억 원 흑자를 기록함.

○ 18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영업이익은 7,604억 원 적자를 기록한 반면, 투자영업이익은 1조 2,240억 원 흑자를 기록함.

○ FY2013 연간으로는 19.8% 감소한 1조 2,117억 원 흑자를 기록함.¹⁸⁾

〈표 23〉 손해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¹⁾

(단위: 십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⁵⁾
총수익	보험영업	15,971	15,915	16,189	63,681	16,196	16,590	16,698	49,484
	투자영업	1,588	1,773	1,588	6,438	1,868	1,603	1,805	5,276
	기타	288	666	227	1,674	328	143	949	1,419
	소계	17,847	18,354	18,004	71,793	18,392	18,336	19,451	56,179
총비용	보험영업	16,354	16,457	16,807	65,237	16,749	16,914	17,398	51,062
	투자영업	316	581	375	1,649	665	366	493	1,524
	기타	315	721	233	1,793	359	203	1,024	1,587
	소계	16,985	17,760	17,415	68,679	17,774	17,483	18,915	54,172
수지차	보험영업	-382	-542	-618	-1,556	-553	-324	-701	-1,578
	투자영업	1,272	1,192	1,213	4,789	1,203	1,237	1,312	3,752
	기타	- 27	-56	-6	-119	-31	-61	-75	-167
	소계	862	594	589	3,114	618	852	536	2,007
법인세		176	156	142	726	180	173	163	515
당기순이익(A) ³⁾		686	438	446	2,388	439	680	374	1,492
		(6.1)	(-7.1)	(21.9)	(-2.4)	(-46.3)	(-1.0)	(-14.8)	(-23.2)
당기순이익(B) ⁴⁾		554	313	350	1,861	516	426	270	1,212
		(20.2)	(-14.9)	(-21.2)	(-6.7)	(-19.8)	(-23.1)	(-13.9)	(-19.8)

주: 1) 기간별 수치는 퇴직보험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실적임.

2)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3)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포함한 전체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임.

4)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임.

5)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16) FY2013 전체는 2012년 12월 말 누적 기준과 비교함.

17) 본고의 손해보험회사 수익성(자본이익률 등) 분석대상은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사를 기준으로 함.

18) FY2013 전체는 2012년 12월 말 누적 기준과 비교함.

〈총부채 · 총자본〉

■ FY2013 3/3분기 손해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총계의 경우 총부채는 증가한 반면 총자본은 소폭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12.4% 늘어난 170조 5,563억 원을 기록함.

○ 총부채의 경우 책임준비금이 16.5% 늘어난 반면 기타부채는 7.4% 감소하여 전체 14.5% 증가한 148조 1,637억 원을 나타냄.

○ 총자본의 경우 이익잉여금이 11.1% 증가하였으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0.1% 감소한 22조 3,926억 원을 시현함.

〈표 24〉 손해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FY2012			FY2013		
		2/4	3/4	4/4	1/3	2/3	3/3
책임준비금	금액	108.1	111.9	115.6	120.9	125.9	130.4
	증가율 ¹⁾	26.3	24.0	21.0	18.1	16.5	16.5
기타부채	금액	10.2	11.2	11.0	11.4	10.5	10.4
	증가율	15.9	20.9	17.5	9.6	2.2	-7.4
특별계정부채	금액	5.6	6.3	6.3	6.1	6.2	7.4
	증가율	44.0	28.7	24.8	14.1	10.9	17.5
부채총계	금액	123.9	129.4	132.9	138.5	142.5	148.2
	증가율	26.0	24.0	20.9	17.1	15.0	14.5
자본금	금액	2.2	2.1	2.1	2.0	2.1	2.3
	증가율	-2.1	-4.7	-5.1	-6.5	-5.7	7.4
자본잉여금	금액	1.8	1.9	1.9	2.1	2.1	2.1
	증가율	22.8	30.1	24.6	12.8	16.6	9.7
이익잉여금	금액	13.6	14.1	14.4	14.7	15.3	15.6
	증가율	14.8	14.8	14.0	14.1	12.9	11.1
자본조정	금액	-0.6	-0.6	-0.6	-0.6	-0.6	-1.0
	증가율	104.7	87.1	148.7	140.9	9.2	72.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금액	5.1	4.9	5.7	3.6	3.7	3.3
	증가율	71.8	45.6	51.4	-2.6	-27.2	-31.3
자본총계	금액	22.1	22.4	23.6	21.9	22.6	22.4
	증가율	21.3	18.0	18.3	7.3	2.2	-0.1
부채및자본총계	금액	146.0	151.8	156.5	160.3	165.1	170.6
	증가율	25.3	23.1	20.5	15.7	13.1	12.4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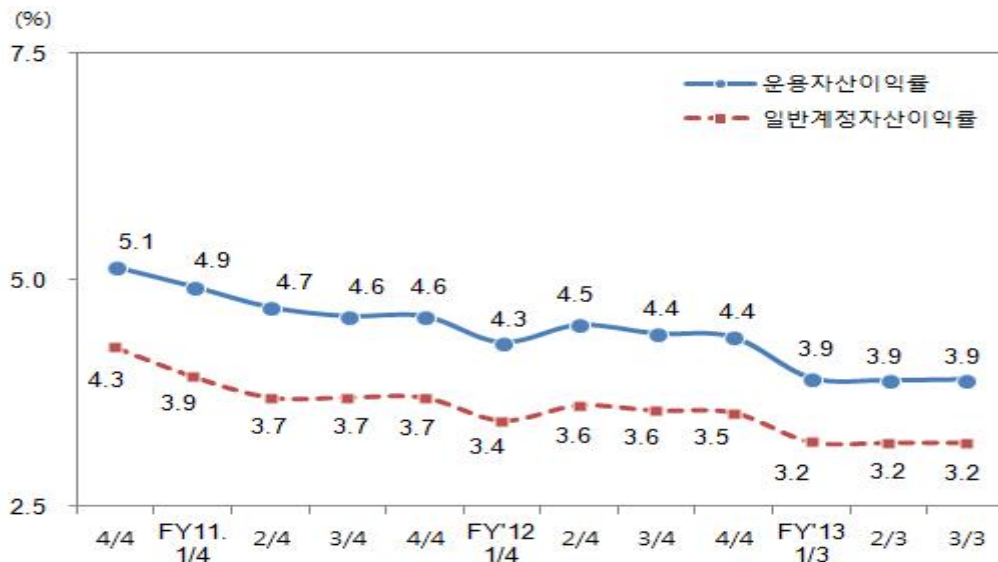
〈자산운용〉

■ FY2013 3/3분기 손해보험산업 운용자산이익률은 유가증권과 대출채권 이익률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0.5%p 낮아진 3.9%를 기록함.

○ 유가증권 이익률은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손실로 0.6%p 낮아진 3.9%를 기록하였으며, 현금과 예금 및 대출채권 이익률도 각각 1.2%p, 0.6%p 하락한 1.6%, 5.0%를 나타냄.

■ FY2013 3/3분기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은 유가증권 54.0%, 대출채권 20.2%, 현금과 예금 4.7%, 부동산 3.9% 순으로 나타남.¹⁹⁾

○ 유가증권과 대출채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4%p, 2.0%p 확대된 반면, 현금과 예금, 부동산 비중은 각각 0.6%p, 0.5%p 축소됨.

〈그림 6〉 운용자산과 일반계정자산 이익률 추이^{1),2)}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비운용자산까지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손익) × 연기준환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9) 일반계정자산은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으로 구분되며, 해당 수치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표 25〉 손해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FY2012				FY2013					
	3/4		4/4		1/3		2/3		3/3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	3.6	100.0	3.5	100.0	3.2	100.0	3.2	100.0	3.2
운용자산 계	81.5	4.4	81.9	4.4	81.9	3.9	82.4	3.9	82.9	3.9
현금과예금	5.3	2.8	4.7	3.2	5.0	3.7	4.7	1.7	4.7	1.6
유가증권	53.6	4.5	54.3	4.4	53.2	3.8	53.8	3.9	54.0	3.9
○ 당기손익인식증권 ³⁾	3.5	4.7	4.4	4.1	3.3	-0.1	3.8	1.6	3.6	2.2
- 주식	0.1	6.3	0.1	6.3	0.1	-14.0	0.2	2.1	0.1	2.4
- 채권 등	2.0	5.4	2.2	5.2	1.5	-1.5	1.6	0.7	1.9	1.6
- 수익증권	1.3	3.1	2.1	2.2	1.7	2.0	2.1	2.4	1.7	2.8
○ 매도가능증권	44.9	4.5	45.4	4.5	44.3	4.0	42.5	4.2	42.2	4.2
- 주식	4.4	0.5	4.0	-0.6	3.6	-1.7	3.4	0.4	3.4	-0.1
- 채권 등	36.6	5.2	37.7	5.2	36.8	4.5	35.2	4.6	34.7	4.7
- 수익증권	3.8	3.0	3.7	3.4	3.9	5.0	3.9	3.7	4.1	3.9
○ 만기보유증권	3.9	5.3	2.9	6.1	4.2	4.9	6.2	4.1	6.8	4.2
- 채권 등	3.9	5.3	2.9	6.1	4.2	4.9	6.2	4.1	6.8	4.2
- 수익증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1.4	1.4	1.6	0.3	1.4	2.4	1.4	1.7	1.4	0.9
대출채권	18.2	5.6	18.7	5.4	19.5	5.0	19.9	5.0	20.2	5.0
부동산	4.4	1.0	4.3	1.0	4.2	1.3	4.1	1.1	3.9	1.1
비운용자산	18.5	0.0	18.1	0.0	18.1	0.0	17.6	3.9	17.1	0.1
총자산	100.0	3.4	100.0	3.4	100.0	3.1	100.0	3.0	100.0	3.1
일반계정	96.2	3.6	96.0	3.5	96.2	3.2	96.3	3.2	96.0	3.2
특별계정	3.8	0.0	4.0	0.0	3.8	0.0	3.7	0.0	4.0	0.0
총자산 규모	1,517,939		1,564,632		1,603,154		1,650,960		1,705,563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환산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FY2011 1/4 분기 이후 단기매매증권에서 당기손익인식증권으로 계정 명칭이 변경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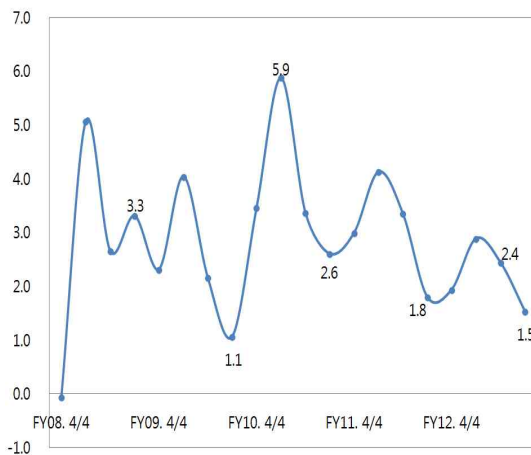
〈자본이익률²⁰⁾〉

■ FY2013 3/3분기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세 둔화와 자동차보험 실적 악화에 따른 당기순이익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한 1.5%를 기록하였고 전분기대비로도 0.9%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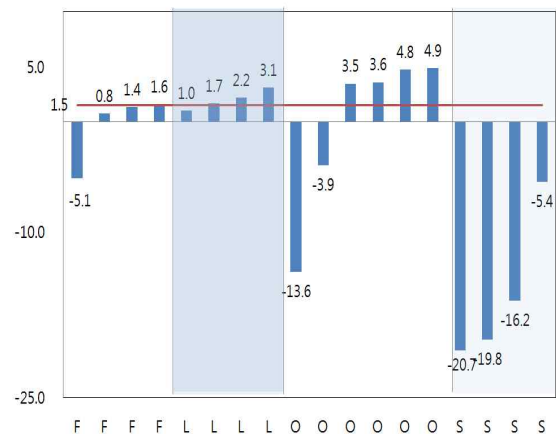
○ 대부분의 대형사와 중소형사 자본이익률은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전업사들은 모두 주요 판매상품인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음(-)의 자본이익률을 시현함.

〈그림 7〉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단위: %)

〈그림 8〉 회사별 자본이익률^{1),2)}

(단위: %)



주: 1)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3 3/3분기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자본이익률의 경우 중소형사를 제외한 대형사, 외국사, 전업사가 전년동기대비 하락함.

○ 대형사 자본이익률은 연금부문 역성장과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세 둔화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한 1.9%를 기록함.

20)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R_t / E_t^o :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을 매출이익률(R_t / S_t :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자산회전율(S_t / A_t^o : 기중자산대비 매출액), 레버리지비율(A_t^o / E_t^o : 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로 분해하여 분석하며, 분석대상은 FY2011 4/4분기까지는 17개사, FY2012 1/4분기부터는 농협손해보험이 포함되어 18개사임.

- 외국사와 전업사 자본이익률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2%p, 4.0%p 하락한 0.1%, -14.2%를 나타낸 반면 중소형사의 경우 0.9%p 상승한 1.6%를 기록함.

〈표 26〉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¹⁾ 추이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4	3/4	4/4	연간 ²⁾	1/3	2/3	3/3	연간 ^{2),3)}
대형사	3.4	2.3	2.2	12.6	2.9	3.0	1.9	8.0
중소형사	3.4	0.7	1.1	8.7	2.2	0.5	1.6	4.4
외국사	5.8	1.3	1.3	11.7	6.8	3.3	0.1	9.3
전업사	-0.9	-10.2	-0.4	-6.0	2.7	-5.3	-14.2	9.3
전체	3.4	1.8	1.9	11.6	2.9	2.4	1.5	7.0

주: 1)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2)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년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3) FY2013 연간수치는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13 3/3분기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의 경우 임직원과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이 전년 동기대비 확대된 반면 설계사와 대리점 채널 비중은 축소됨.

- 임직원 채널 비중은 주요 판매상품인 퇴직연금의 실적 개선으로 전년동기대비 1.2%p 확대된 20.2%를 기록하였으며,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도 1.2%p 확대된 10.7%를 시현함.
- 설계사와 대리점 채널 비중은 임직원과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 확대로 각각 1.4%p, 1.2%p 줄어든 27.5%, 40.5%를 나타냄.
- FY2013 연간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의 경우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확대되었으나 임직원, 설계사, 그리고 대리점 채널 비중은 모두 축소됨.²¹⁾

21) FY2013 전체는 2012년 12월 말 누적 기준과 비교함.

〈표 27〉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⁴⁾
임직원	22,518	34,274	21,754	102,941	23,802	21,083	39,003	83,888
	13.5	19.0	12.8	15.0	13.7	12.3	20.2	15.6
설계사	52,119	52,267	52,017	206,290	53,442	53,409	53,038	159,889
	31.2	28.9	30.7	30.1	30.8	31.2	27.5	29.7
대리점	71,767	75,279	65,241	284,249	74,948	73,923	78,012	226,884
	42.9	41.7	38.5	41.5	43.2	43.2	40.5	42.2
중개사	1,206	1,421	1,063	4,803	1,248	1,334	1,795	4,377
	0.7	0.8	0.6	0.7	0.7	0.8	0.9	0.8
방카슈랑스	19,476	17,189	29,169	86,293	20,008	21,224	20,710	61,941
	11.6	9.5	17.2	12.6	11.5	12.4	10.7	11.5
공동인수	178	196	324	846	136	183	284	602
	0.1	0.1	0.2	0.1	0.1	0.1	0.1	0.1
전체	167,265	180,625	169,568	685,422	173,584	171,156	192,842	537,58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원수보험료 실적은 분기 기준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3) 원수보험료 실적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함.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규모〉

■ FY2013 3/3분기 말 임직원, 설계사, 그리고 대리점 수가 모두 전분기대비 감소함.

- 임직원 수는 기타 국내사와 외국사의 비정규직 직원 수가 줄어들어 전분기대비 91명 감소한 3만 3,479명을 기록함.
- 설계사 수는 상위 4사, 기타 국내사, 그리고 외국사 모두 전속설계사 수가 감소하여 2,662명 줄어든 16만 4,253명을 나타냄.
- 대리점 수의 경우 개인대리점 수 감소세와 법인대리점 수 증가세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전체 316개 줄어든 3만 6,952개를 기록함.

〈표 28〉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12				FY2013		
	1/4	2/4	3/4	4/4	1/3	2/3	3/3
임직원	31,816	32,464	32,438	32,838	32,944	33,570	33,479
설계사	167,101	168,545	170,165	168,023	168,968	166,915	164,253
- 전속	92,179	93,400	95,017	93,167	93,712	92,952	90,167
- 교차	74,922	75,145	75,148	74,856	75,256	73,963	74,086
대리점	39,425	38,857	38,957	37,643	37,500	37,268	36,952
- 개인	27,445	26,929	26,399	24,419	24,063	23,666	23,244
- 법인	11,980	11,928	12,558	13,224	13,437	13,602	13,708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FY2012 민영의료보험 실적현황(조용운 연구위원)

가. 작성방법

- 민영의료보험의 실적을 실손보장 부분과 정액보장 부분으로 분리해서 작성함.
 - 민영의료보험상품은 대부분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실손 부분과 약관에 명시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에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 부분이 결합된 형태임.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회사의 민영의료보험 실적을 전수 조사하였음.
 - 통계집적기관인 보험개발원에 의뢰하여 집적된 실적을 전수 조사하였음.
- 손해보험회사의 실적은 보험개발원에 집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과소 추계 가능성이 존재함.
 - 장기의료보험 실적은 보험개발원에 집적이 잘되고 있어 실제실적과 보험개발원 집적실적의 차이가 무시할 만하다고 판단됨.
 - 일반(단기)의료보험은 보험개발원이 집적한 기초통계 실적을 기초로 작성했기 때문에 과소추계됨.
 - 보험개발원의 통계에는 단기간 판매되고 없어지는 상품 등은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일반(단기)의료보험의 규모는 의료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과소추계 정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닐 것으로 판단됨.
- 생명보험의 실손형 의료보험은 2008년 이후에 활발하게 판매되기 시작함.
 - 생명보험 단체실손의료보험의 경우 2003년 9월에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나 2008년 이전까지 그 실적은 미미함.
 - 생명보험 개인실손의료보험은 2008년 5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함.

나.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추이

민영의료보험의 위험보험료 규모는 FY2012 기준 12조 8,032억 원으로 2008년 이후 연평균 10.5% 성장함. 최근 들어 실손형 의료보험상품의 성장세가 높게 나타났으나, 국내 의료보험상품 중 70% 이상은 여전히 정액형 의료보험상품임.

- FY2012 정액형과 실손형을 합산한 민영의료보험 규모는 위험보험료(사업비 제외) 기준 12조 8,032억 원으로 전년대비 9.6% 증가함.(〈표 1〉 참조)
 - FY2012 정액형 보험의 위험보험료 규모는 9조 3,364억 원으로 전년대비 7.3% 증가하였으며, 실손형 보험의 경우 3조 4,668억 원으로 전년대비 16.4% 증가함.

〈표 1〉 민영의료보험 위험보험료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정액형		실손형		합계	
	위험보험료	증가율	위험보험료	증가율	위험보험료	증가율
FY2008	73,078	-	12,752	-	85,831	-
FY2009	77,122	5.5	21,464	68.3	98,586	14.9
FY2010	80,392	4.2	24,929	16.1	105,321	6.8
FY2011	87,016	8.2	29,773	19.4	116,789	10.9
FY2012	93,364	7.3	34,668	16.4	128,032	9.6

주: 실손과 정액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 수입보험료의 추계는 어려움.
자료: 보험개발원.

- FY2012 정액형과 실손형을 합한 민영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 규모는 13조 966억 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함.(〈표 2〉 참조)
 - 실손형 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 규모는 3조 8,004억 원, 정액형은 9조 2,962억 원으로 나타남.
 - 실손형 의료보험의 증가율은 FY2012 기준 14.9%로 정액형 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 증가율 5.0%를 크게 상회함.

〈표 2〉 민영의료보험 지급보험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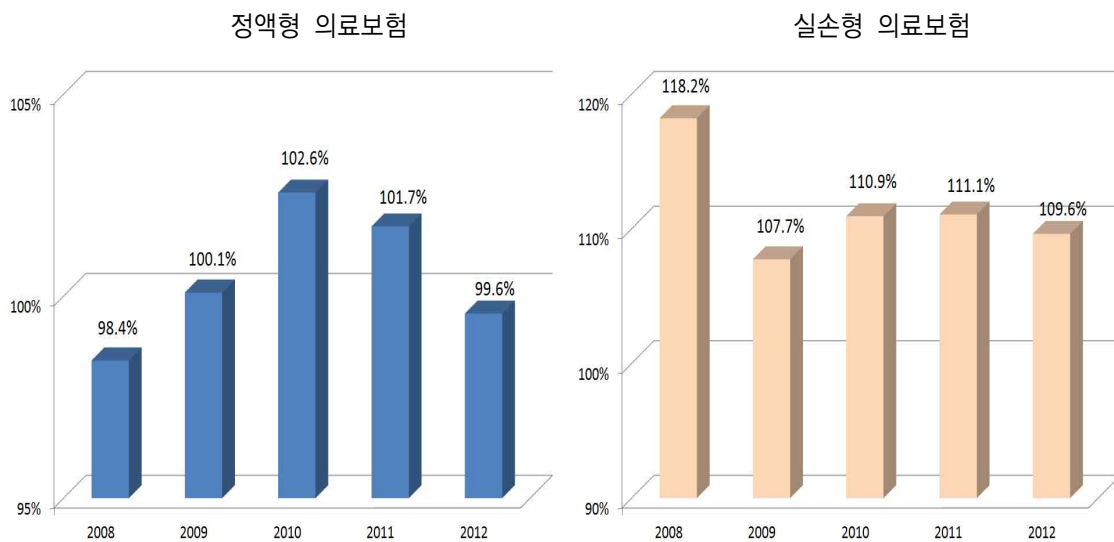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구분	정액형		실손형		합계	
	지급보험금	증가율	지급보험금	증가율	지급보험금	증가율
FY2008	71,916	-	15,075	-	86,990	-
FY2009	77,192	7.3	23,125	53.4	100,317	15.3
FY2010	82,454	6.8	27,655	19.6	110,109	9.8
FY2011	88,518	7.4	33,068	19.6	121,587	10.4
FY2012	92,962	5.0	38,004	14.9	130,966	7.7

자료: 보험개발원.

- 민영의료보험 지급률 현황을 살펴보면, 정액형 보다는 실손형 의료보험의 지급률이 높게 나타나며, 2010년 이후 지급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민영의료보험 형태별 지급률 추이



주: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위험보험료

다. 손해보험 민영의료보험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한 민영의료보험 상품은 FY2012 기준 5조 2,737억 원(위험보험료 기준)으로 전년대비 14.0% 증가함. 전년대비 정액형은 13.1%, 실손형은 14.7% 증가하여 두 형태가 모두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손해보험의 민영의료보험 실적 추이(장기 및 일반손해보험)

(단위: 억 원, %)

구분	정액형		실손형		합계(실손 및 정액)	
	경과 위험보험료	지급보험금	경과 위험보험료	지급보험금	경과 위험보험료	지급보험금
FY2008	12,039	10,988	12,376	14,944	24,415	25,932
FY2009	14,623 (21.5)	14,320 (30.3)	19,951 (61.2)	22,585 (51.1)	34,574 (41.6)	36,906 (42.3)
FY2010	16,833 (15.1)	17,072 (19.2)	22,044 (10.5)	26,367 (16.7)	38,877 (12.4)	43,439 (17.7)
FY2011	20,688 (22.9)	19,605 (14.8)	25,583 (16.1)	30,774 (16.7)	46,272 (19.0)	50,380 (16.0)
FY2012	23,391 (13.1)	20,836 (6.3)	29,345 (14.7)	34,202 (11.1)	52,737 (14.0)	55,038 (9.2)

주: 괄호안의 값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장기손해보험〉

1) 실손형 의료보험

■ FY2012 장기손해보험 실손형 보험의 위험보험료 실적은 2조 7,644억 원으로 전년대비 15.5% 증가하였으며(〈표 4〉 참조), 최근 5년간 연평균 25.8% 성장함.

○ FY2012 경과계약건수는 9,115만 건임.

■ 지급률은 FY2009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FY2012에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115.2%를 기록함.

○ 사고건수(지급건수)와 지급보험금 규모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표 4〉 장기손해보험의 실손의료보험 실적 추이

(단위: 만 건, 억 원, %)

연도	경과계약건수	경과위험보험료	사고건수	지급보험금	지급률
FY2008	4,655	11,052	498	13,336	120.7
FY2009	6,092	18,474 (67.2)	808	20,605 (54.5)	111.5
FY2010	7,554	20,650 (11.8)	936	24,617 (19.5)	119.2
FY2011	8,131	23,937 (15.9)	1,067	28,730 (16.7)	120.0
FY2012	9,115	27,644 (15.5)	1,087	31,842 (10.8)	115.2

주: 1) 지급률 = 지급보험금/위험보험료

2) 한 사람이 한 계약을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경과계약건수는 2건으로 집계됨.

3) 괄호안의 값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정액형 의료보험

■ FY2012 정액형 보험의 위험보험료 실적은 2조 753억 원으로 전년대비 14.6% 증가함.(〈표 5〉 참조)

○ FY2012 경과계약건수는 4억 7,684만 건으로 전년대비 11.6% 증가함.

〈표 5〉 장기손해보험의 정액형 의료보험 실적 추이

(단위: 만 건, 억 원, %)

연도	경과계약건수	경과위험보험료	사고건수	지급보험금	지급률
FY2008	23,878	11,090	188	10,212	92.1
FY2009	31,115	14,081 (27.0)	244	13,342 (30.7)	94.8
FY2010	36,923	16,222 (15.2)	285	15,859 (18.9)	97.8
FY2011	42,709	18,105 (11.6)	300	17,295 (9.1)	95.5
FY2012	47,684	20,753 (14.6)	309	18,381 (6.3)	88.6

주: 1) 상해, 질병, 종합(상해 + 질병)에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의료보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적에서 제외함.

2) 괄호안의 값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 FY2012 지급률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88.6%를 기록함.

- 지급보험금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증가 폭이 위험보험료 증가 폭보다는 낮아 지급률이 소폭 하락함.

〈1년 이하 단기 일반손해보험〉

1) 실손형 의료보험

■ 일반손해보험(단기)가운데 실손형 보험의 위험보험료 실적은 FY2012 1,701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3.3% 증가함.(〈표 6〉 참조)

- 보유건수는 작년대비 소폭 감소한 1,175만 건을 기록함.

■ FY2012 지급률은 전년대비 14.5%p 상승한 138.7%를 기록함.

- 지급보험금이 위험보험료 증가 폭보다 크게 증가하여 지급률이 상승함.

〈표 6〉 일반손해보험의 실손의료보험 실적 추이

(단위: 만 건, 억 원, %)

연도	보유건수	위험보험료	사고건수	지급보험금	지급률
FY2008	125	1,324	34	1,608	121.4
FY2009	198	1,476 (11.5)	43	1,980 (23.1)	134.1
FY2010	817	1,394 (-5.6)	39	1,750 (-11.6)	125.5
FY2011	1,258	1,646 (18.1)	45	2,045 (16.9)	124.2
FY2012	1,175	1,701 (3.3)	57	2,359 (15.4)	138.7

주: 1) 전체 상해의료비보험 중 24시간상해, 업무 중 상해, 업무외상해, 교통상해, 휴일상해, 휴일교통상해 상품 중심의 통계를 보험개발원 기초통계 집적실적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최단기간 판매되고 없어지는 상품 등은 포함되지 않아 규모는 과소추계 됨.

2) 팔호안의 값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정액형 의료보험

■ 일반손해보험(단기)가운데 정액형 보험의 위험보험료 실적은 FY2012 2,639억 원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함.(〈표 7〉 참조)

■ FY2012 지급률은 위험보험료 기준으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93.1%를 기록함.

〈표 7〉 일반손해보험의 정액의료보험 실적 추이

(단위: 만 건, 억 원, %)

연도	보유건수	위험보험료	사고건수	지급보험금	지급률
FY2008	92	948	11	776	81.9
FY2009	58	542 (-42.8)	13	978 (26.0)	180.4
FY2010	116	610 (12.5)	16	1,213 (24.0)	198.8
FY2011	140	2,583 (323.4)	20	2,310 (90.4)	89.4
FY2012	108	2,639 (2.2)	21	2,456 (6.3)	93.1

주: 1)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위험보험료

2) 괄호안의 값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라. 생명보험 민영의료보험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한 의료보험 상품은 FY2012 위험보험료 기준 7조 5,295억 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함. 최근 들어 실손형 보험의 성장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위험보험료 기준 90% 이상이 정액형 의료보험상품임.

〈표 8〉 생명보험의 민영의료보험 실적 추이(실손 및 정액형)

(단위: 억 원, %)

구분	위험보험료	증가율	지급보험금	증가율
FY2008	61,416	-	61,058	-
FY2009	64,013	4.2	63,411	3.8
FY2010	66,445	3.8	66,670	5.1
FY2011	70,518	6.1	71,207	6.8
FY2012	75,295	6.8	75,928	6.6

1) 실손형 의료보험

■ FY2012 생명보험의 실손형 의료보험은 5,322억 원의 위험보험료 실적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27.0% 증가함.(〈표 9〉 참조)

○ 계약건수가 435만 건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데 주로 기인함.

■ 보험금 지급률은 5년 연속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계약건수 증가율보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사고건수가 더 급격히 증가한데 주로 기인함.

〈표 9〉 생명보험의 실손의료보험 실적 추이

(단위: 만 건, 억 원, %)

연도	계약건수	위험보험료	사고건수	지급보험금	지급률
FY2008	77	376	9	131	34.8
FY2009	194	1,514 (302.7)	60	540 (312.2)	35.7
FY2010	276	2,885 (90.6)	130	1,289 (138.7)	44.7
FY2011	361	4,190 (45.2)	211	2,294 (78.0)	54.8
FY2012	435	5,322 (27.0)	305	3,802 (65.7)	71.4

주: 1) 개인실손형 보험은 2008년 5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함.

2) 괄호안의 값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정액형 의료보험

■ FY2012 생명보험의 정액형 의료보험은 6조 9,973억 원의 위험보험료 실적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5.5% 증가함.(〈표 10〉 참조)

■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FY2009년 이후 100%를 상회함.

〈표 10〉 생명보험의 정액의료보험 실적 추이

(단위: 억 원, %)

연도	위험보험료	지급보험금	지급률
FY2008	61,040	60,927	99.8
FY2009	62,499 (2.4)	62,871 (3.2)	100.6
FY2010	63,560 (1.7)	65,381 (4.0)	102.9
FY2011	66,328 (4.4)	68,913 (5.4)	103.9
FY2012	69,973 (5.5)	72,125 (4.7)	103.1

주: 1) 위험보험료는 「생명보험 경험통계연보」로부터 일반사망을 제외한 상해(상해장해가 대부분) 그리고 입원 및 기타부분(진단, 수술, 외래, 처방조제)의 위험보험료를 합산함.

2) 괄호안의 값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1) 보험개발원, 「생명보험 경험통계연보」, 각 연호.

2) 보험개발원, FY2009 이후 「FY2009 생명보험 통계분석자료집」.

3) 보험개발원, FY2010 이후 「생명보험 통계자료집」.

IV. 해외보험시장 동향

글로벌 생명보험 시장은 중국 인보험, 영국과 일본의 생명보험이 각각 6.1%, 3.0%, 0.4%로 성장하였음. 미국의 경우 보장성 생명보험의 성장률은 정체된 반면, 연금보험은 9.4% 증가함. 중국 인보험은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영국은 일시납 퇴직연금 보험료 증가, 일본은 단체보험 증가가 성장의 요인임. 미국의 보장성 생명보험 성장 정체에는 유니버설 보험의 성장세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글로벌 손해보험 시장은 중국, 미국, 일본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18.8%, 3.8%, 6.0% 성장하였으며, 영국은 전년대비 9.1% 성장함.

1. 미국 동향¹⁾

가. 생명보험

■ 2013년 3/4분기 미국 생명보험 시장의 신규 연납화 보험료²⁾ 규모는 유니버설보험 판매 감소로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함.

○ 생명보험 상품 중 비중이 가장 큰 유니버설보험의 신규 연납화 보험료 규모는 인덱스 유니버설 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장성 유니버설보험(Lifetime Guarantee UL)의 판매 저하로 전년동기에 비해 8% 감소함.

- 장기보장성 유니버설보험의 판매감소는 지속적인 저금리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임.

-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Indexed UL)은 주식시장의 호조로 2013년 3/4분기에도 높

1) 미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2) 연납화 보험료(Annualized Premium) = 일시납보험료 × 10% + 정기납보험료

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종신보험은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 변경의 위험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2013년 3/4 분기에도 2% 증가하였으며 정기보험은 같은 기간 5%의 성장률을 보였음.
-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전년동기대비 33% 성장하였으나 이는 특정 보험회사의 신상품 판매 호조에 따른 것으로 이 회사의 판매 실적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약 6%임.

■ 2013년 3/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신규보험료 비중의 경우 유니버설보험 비중은 40%로 생명보험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비중이 각각 32%, 22%, 변액유니버설보험 비중은 6% 수준임.

〈표 1〉 미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증가율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유니버설	0	6	4	20	8	43	8	1	-8	40
기타변액	0	0	0	0	0	0	0	0	0	0
변액유니버설	-1	-6	-4	16	0	8	10	9	33	6
정기	1	-3	-1	4	0	19	3	6	5	22
종신	10	9	5	6	7	30	7	5	2	32
계	3	4	3	12	6	100	7	4	0	100
연납화 보험료	2,370	2,394	2,291	2,845	9,796		2,439	2,485	2,333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LIMRA(2013. 9),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나. 연금보험

■ 2013년 3/4분기 미국 개인연금 신규보험료의 경우 변액연금은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정액연금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9.4% 증가한 594억 달러로 나타남.

- 변액연금 신규보험료는 35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4% 감소하였으며, 1.3% 감소하였던 2013년 2/4분기에 비해 감소폭이 다시 확대됨.

- 정액연금 신규보험료는 23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4.3% 증가함.
- 인덱스형 연금의 신규보험료가 10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였고 거치식 연금의 신규 보험료가 95억 달러까지 증가함.

〈표 2〉 미국 연금 종목별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변액연금	보험료	36.9	38.7	36.8	35.0	147.4	35.5	38.2	35.9
	증가율	-6.6	-4.7	-7.5	-7.9	-6.6	-3.8	-1.3	-2.4
	비중	67.3	67.9	67.8	67.0	67.5	69.2	67.6	60.4
정액연금	보험료	17.9	18.3	17.5	17.2	70.9	15.8	18.3	23.5
	증가율	-10.5	-14.1	-13.8	-9.0	-11.9	-11.7	-0.9	34.3
	비중	32.7	32.1	32.2	33.0	32.5	30.8	32.4	39.6
합계	보험료	54.8	57.0	54.3	52.2	218.3	51.3	56.5	59.4
	증가율	-7.9	-7.9	-9.7	-8.3	-8.4	-6.4	-1.2	9.4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LIMRA(2013. 9), *U.S. Individual Annuities*.

■ 2013년 3/4분기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의 경우 독립중개인이 2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속설계사가 20.7%, 은행이 17.3%, 독립설계사, 증권중개인, 직접판매 등이 각각 15.5%, 13.6%, 7.4%의 비중을 차지함.

- 변액연금의 경우 독립중개인과 전속설계사가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액연금의 경우 독립설계사의 비중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은행의 비중이 24.2%로 크게 증가하였음.

〈표 3〉 미국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

(단위: %)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1/4	2/4	3/4
은행	13.5	13.7	13.1	12.9	14.1	14.8	17.3
전속설계사	23.8	21.8	21.9	23.7	22.4	21.0	20.7
직접판매	8.8	9.6	8.3	8.9	8.7	8.3	7.4
독립중개인	23.2	23.2	25.0	23.1	25.0	24.9	23.2
독립설계사	16.3	15.6	16.4	16.5	15.3	15.3	15.5
증권중개인	12.6	14.0	13.4	12.5	12.4	13.2	13.6
기타	1.8	2.1	1.8	2.3	2.1	2.5	2.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LIMRA(2013. 9), *U.S. Individual Annuities*.

다. 소득보상보험

■ 2013년 3/4분기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의 경우 Guaranteed Renewable³⁾이 여전히 감소세이며, Non-cancellable⁴⁾의 증가폭도 크지 않아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함.

○ Guaranteed Renewable의 신규보험료는 6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3년 3/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감소율은 줄어들었음.

○ Non-cancellable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의 경우 Multilife⁵⁾ 보험 판매가 감소하였으나 Non-multilife 보험 판매가 소폭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함.

3)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4) Non-cancell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또는 급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5) Multilife보험은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부부 모두를 보장하는 상품임.

〈표 4〉 미국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천 건, 백만 달러, %)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계 약 건 수	Guaranteed Renewable	건 수	107.6	67.5	75.0	77.9	327.9	96.3	65.3	75.3
		증가율	0.4	-11.2	-8.2	-6.3	-5.7	-10.4	-3.3	0.4
		구성비	75.4	65.9	65.2	64.9	68.3	73.5	64.4	65.0
	Non- cancellable	건 수	35.1	34.9	40.0	42.8	152.8	34.7	36.3	40.3
		증가율	5.0	2.5	-2.1	4.8	2.5	-1.1	3.8	0.8
		구성비	24.6	34.1	34.8	35.6	31.8	26.5	35.8	34.8
	전체	건 수	142.7	102.4	115.0	120.1	480.2	131.0	101.4	115.8
		증가율	1.5	-7.0	-6.1	-3.1	-3.4	-8.2	-1.0	0.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 규 보 험 료	Guaranteed Renewable	보험료	64.5	46.7	49.5	51.3	212.0	57.9	45.0	48.7
		증가율	0.6	-4.3	-4.0	-3.5	-2.6	-10.3	-3.6	-1.7
		구성비	47.6	37.6	37.1	38.3	40.2	45.6	36.5	36.5
	Non- cancellable	보험료	71.1	77.4	83.8	82.7	314.9	69.2	78.2	84.6
		증가율	6.8	5.8	3.3	3.2	4.7	-2.7	1.1	0.9
		구성비	52.4	62.4	62.9	61.7	59.8	54.4	63.5	63.5
	전체	보험료	135.6	124.0	133.3	133.9	526.9	127.0	123.2	133.2
		증가율	3.8	1.8	0.5	0.6	1.6	-6.3	-0.7	0.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LIMRA(2013. 9),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라. 손해보험

■ 2013년 3/4분기 미국 손해보험 총보험영업이익은 원수보험료의 증가와 지급보험금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34배 증가한 81억 9,700만 달러를 기록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한 1,261억 8,6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증가세는 2/4분기에 비해 소폭 둔화됨.

○ 지급보험금은 대재해 손실 지급 보험금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6.1% 감소한 775억 9,800만 달러임.

- 미국 보험단체인 ISO에 의하면 2013년 3/4분기 미국에서 발생한 재해 손실은 24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4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3/4분기 합산비율은 전년동기 98.5%에서 약 7%p 하락한 91.8%를 기록함.
 - 이는 2006년 3/4분기 합산비율 90.6%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1986년 이후 미국 3/4분기 합산비율 평균 수준인 105.7%보다 13.9%p가 낮은 수준임.
-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보험회사의 원수보험료와 경과 보험료는 각각 3.7%, 3.6% 증가하였고, 지급보험금은 0.5%감소하였으며 합산비율은 전년동기 97.7%에서 94.8%로 감소함.

■ 총투자영업이익의 경우 투자영업이익은 감소하였으나 실현자본이익이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한 132억 9,000만 달러임.

- 투자영업이익은 이자율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2.9% 감소한 111억 3,900만 달러로 나타난 반면, 실현자본이익은 전년동기대비 74.0% 증가한 22억 달러임.

■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이익 증가와 총투자영업이익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74.6% 증가한 185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7.3%에서 4.97%p 상승한 약 12.3%를 나타냄.

-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의 자기자본이익률은 2012년 3/4분기 -11.1%에서 2013년 3/4분기 114.6%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를 제외한 손해보험산업의 자기자본이익률은 9.6%로 나타남.

〈표 5〉 미국 손해보험 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CY2012					CY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원수보험료	금액	112,382	114,337	121,622	108,109	456,996	117,110	120,048	126,186
	증가율	3.1	4.2	5.1	4.8	4.3	4.2	5.0	3.8
지급보험금	금액	75,614	84,800	82,669	91,247	334,953	74,214	83,590	77,598
	증가율	-4.0	-11.1	-8.0	13.4	-2.8	-1.9	-1.4	-6.1
보험영업이익	금액	294	-6,039	552	-9,050	-14,560	5,192	-1,777	8,461
	증가율	-107.3	-68.6	-105.2	1113.1	-57.6	1666.0	-70.6	1432.8
계약자 배당금	금액	521	287	316	998	2,119	552	454	264
	증가율	12.8	-17.5	21.5	27.6	14.4	6.0	58.2	-16.5
총보험영업이익	금액	-227	-6,326	236	-10,049	-16,679	4,640	-2,231	8,197
	증가율	-94.9	-67.7	-102.2	557.7	-54.0	-2144.1	-64.7	3373.3
투자영업이익	금액	11,656	12,143	11,477	12,585	47,708	11,385	11,786	11,139
	증가율	-7.5	-0.6	-1.7	0.3	-3.0	-2.3	-2.9	-2.9
실현자본이익	금액	685	1,025	1,236	3,251	6,213	1,380	2,502	2,151
	증가율	-30.7	-60.8	-33.6	115.3	-11.8	101.5	144.1	74.0
총투자영업이익	금액	12,341	13,168	12,714	15,836	53,921	12,765	14,288	13,290
	증가율	-9.2	-11.3	-6.1	12.6	-4.1	3.4	8.5	4.5
세전 영업이익	금액	11,786	7,205	12,168	2,713	33,323	15,885	10,029	19,891
	증가율	36.6	-198.1	506.3	-76.8	116.0	34.8	39.2	63.5
당기순이익	금액	10,141	6,880	10,610	6,390	33,522	14,394	10,182	18,520
	증가율	29.6	-324.5	229.4	-42.3	72.3	41.9	48.0	74.6
자기자본(surplus)	금액	570,665	571,346	584,095	586,874	586,874	607,737	613,988	624,366
	증가율	0.7	2.2	8.4	6.0	6.0	6.5	7.5	6.9
지급준비금	금액	570,645	573,662	575,475	579,278	579,278	572,504	577,410	573,551
	증가율	1.2	-0.2	-0.5	1.1	1.1	0.3%	0.7	-0.3
합산비율		99.0	104.8	98.5	110.4	103.2	94.8	100.8	91.8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세전영업이익 = 총보험영업이익 + 총투자영업이익 + 기타이익

자료: III(2013. 9), ISO RELEASE: P/C Insurers' Bottom Line Improved In First-Half 2013 On Stronger Underwriting Results.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며, 본고는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와 지역의료공급조직(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의료보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강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정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나 생명보험마케팅연구단체(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

- 원고 작성에 사용되는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손해보험은 다양한 세부 종목이 존재하나,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분기별 지표는 전체 영업성과 중심으로 제시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참여 회사 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 기관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77개사	85%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61개사	97%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8개사	-	LIMRA
U.S. Individual LTC Insurance	24개사	95%	LIMRA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2. 영국 동향⁶⁾

가. 생명보험

〈생명보험 전체〉

■ 2013년 영국 생명보험 시장규모는 신규 보험료⁷⁾ 기준으로 538억 2,258만 파운드이며, 전년 보다 15억 5,016만 파운드 증가함.

○ 영국의 경기회복세⁸⁾가 지속됨에 따라, 일시납 퇴직연금 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37.3% 증가하여 생명보험 전체 신규 보험료도 전년대비 3.0% 증가함.

■ 2013년 분할납 보험료는 70억 4,864만 파운드로 전년대비 27.5% 증가함.

○ 분할납 보험료 중 비중이 가장 큰 퇴직연금계좌가 18.7% 증가하고 특히 퇴직연금이 142.1% 증가함에 따라 전체 분할납 보험료가 크게 증가함.

■ 2013년 일시납 보험료는 467억 7,394만 파운드로 전년대비 0.1% 증가함.

○ 비중이 가장 큰 일시납 퇴직연금 보험료가 37.3% 증가하였으나 기타 일시납 보험종목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정체됨.

〈투자·저축보험 신규보험료〉

■ 2013년 투자·저축 보험료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시납 투자상품(investments)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대비 45.3% 감소함.

■ 분할납 투자·저축 보험료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사혼합보험(endowments)의 보험료가 전년대비 19.0%가 감소하며, 전체 분할납 투자·저축 보험료는 20.5% 감소함.

6) 영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 1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7) 분할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 합계.

8)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1/4분기 0.6, 2/4분기 1.8%, 3/4분기 1.9, 4/4분기 2.7%로 나타남.

〈표 6〉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

분할납 신규보험료		2012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26.8	4.7	5.5	6.3	4.8	21.3
	증가율	- 23.4	- 35.1	-5.5	-5.2	-27.4	-20.5
	구성비	0.5	0.3	0.3	0.4	0.3	0.3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3,779.5	1,120.2	1,166.5	996.7	1,204.5	4,487.8
	증가율	8.9	23.0	27.5	24.3	4.5	18.7
	구성비	68.4	65.4	54.9	65.9	70.9	63.7
퇴직연금	보험료	613.6	335.9	670.1	243.4	236.0	1,485.4
	증가율	- 37.9	110.0	297.6	85.1	53.6	142.1
	구성비	11.1	19.6	31.5	16.1	13.9	21.1
역외영업	보험료	18.1	4.0	4.5	7.2	3.4	19.1
	증가율	- 43.2	- 9.4	18.1	24.5	-18.3	5.2
	구성비	0.3	0.2	0.2	0.5	0.2	0.3
보장성보험	보험료	1,090.8	248.0	278.0	257.9	251.1	1,035.1
	증가율	7.3	- 8.8	0.5	-2.1	-9.9	-5.1
	구성비	19.7	14.5	13.1	17.1	14.8	14.7
소계(A)	보험료	5,528.9	1,712.8	2,124.6	1,511.5	1,699.7	7,048.6
	증가율	- 0.2	26.5	55.1	25.0	6.5	27.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시납 신규보험료		2012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8,103.7	1,257.0	957.3	1,042.2	1,170.5	4,426.9
	증가율	-9.7	-36.9	-53.4	-46.2	-44.9	-45.4
	구성비	17.3	10.7	9.5	7.4	10.7	9.5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16,358.6	3,766.0	3,978.3	3,260.3	3,249.2	14,253.8
	증가율	1.9	-2.4	-19.1	-10.6	-17.4	-12.9
	구성비	35.0	32.1	39.6	23.3	29.6	30.5
퇴직연금	보험료	17,350.5	5,658.4	4,029.9	8,608.5	5,525.2	23,822.0
	증가율	14.6	29.3	13.5	128.6	-2.3	37.3
	구성비	37.1	48.2	40.1	61.5	50.3	50.9
역외영업	보험료	4,726.7	1,018.4	1,045.1	1,040.0	981.2	4,084.7
	증가율	-20.2	-10.8	-5.2	-12.0	-24.5	-13.6
	구성비	10.1	8.7	10.4	7.4	8.9	8.7
보장성보험	보험료	204.0	48.9	45.1	41.6	50.9	186.4
	증가율	-5.3	-8.2	-10.7	-17.4	1.9	-8.6
	구성비	0.4	0.4	0.4	0.3	0.5	0.4
소계(B)	보험료	46,743.5	11,748.7	10,055.7	13,992.7	10,976.9	46,773.9
	증가율	0.9	2.8	- 13.9	32.2	-16.0	0.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계(A+B)	보험료	52,272.2	13,461.5	12,180.3	15,504.2	12,676.6	53,822.5
	증가율	0.8	5.3	-6.7	31.5	-13.6	3.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투자·저축 보험료 중 99.5%를 차지하는 일시납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가 전년대비 45.4% 감소하며 전체 투자·저축 보험료가 크게 감소함.
- 규모가 가장 큰 일시납 변액연동채권(Unit-Linked Bonds)이 전년대비 53.0% 감소하고 유배당채권(with profit bonds)이 전년대비 30.3%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 폭이 컸음.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

- 2013년 퇴직연금계좌⁹⁾ 분할납 보험료는 개인연금계좌(Individual Pension)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단체개인연금계좌(Work-based Pension)의 판매 호조로 전년대비 18.7% 증가함.
 -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7억 830만 파운드 증가함.
 - 개인연금계좌 보험료는 Personal Pension과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의 판매가 전년대비 각각 26.0%, 42.9%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31.4% 감소함.
 - 단체개인연금계좌 보험료는 group personal pension, employer sponsored stakeholders의 판매 호조로 전년대비 25.7% 증가함.
- 일시납 기준 퇴직연금계좌 보험료의 경우 단체개인연금계좌 판매는 증가하였으나 개인연금계좌 판매 부진으로 전년대비 12.9% 감소한 142억 5,384만 파운드를 보임.
 - 일시납 개인연금계좌 보험료는 Personal Pension, SIPP, Stakeholder Pension이 각각 전년대비 12.2%, 2.8%, 36.1%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32.0% 감소함.
 - 일시납 단체개인연금계좌 보험료는 Employer Sponsored Stakeholders가 전년대비 26.4%감소하였으나 가장 규모가 큰 Group Personal Pension이 21.6%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8.4% 증가함.

9) 퇴직연금계좌는 개인(Personal Pension,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SIPP 등), 단체(Group Personal Pension,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s, Group SIPP 등)로 구분.

〈퇴직연금 신규보험료〉

- 2013년 분할납 퇴직연금(Trust-based Pension)¹⁰⁾ 보험료는 영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맞춤형 퇴직연금(Trustee Investment Plans)과 DC형 퇴직연금의 판매 호조로 전년대비 142.2% 증가한 14억 8,537만 파운드를 기록함.
 - 전체 분할납 퇴직연금의 53.3%를 차지하는 맞춤형퇴직연금(TIPs)은 전년대비 390% 증가한 7억 9,240만 파운드임.
 - DB형 퇴직연금 보험료는 전년대비 94.1% 증가한 4,039만 파운드를 기록하였고, DC형 퇴직연금 보험료는 전년대비 69.8% 증가한 5억 7,276만 파운드를 보임.
- 또한 일시납 퇴직연금 보험료도 맞춤형퇴직연금과 Bulk Buyout의 판매 호조로 전년대비 37.3% 증가함.
 - 일시납 퇴직연금 보험료는 금액기준으로 전년대비 64억 7,151만 파운드 증가함.
 - 수익을 보장해주는 맞춤형퇴직연금(Trustee Investment Plans)이 전년대비 14.3% 증가하였음.
 - DB형 퇴직연금 관리를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Bulk Buyout 보험료는 전년대비 83.6% 증가함.
 - DB형 및 DC형 퇴직연금 보험료도 전년대비 각각 50.1%, 54.7% 증가함.

〈역외영업 신규보험료〉

- 2013년 분할납 역외영업 신규보험료는 전년대비 5.2% 증가함.
 - 분할납 역외영업 신규보험료의 2013년 전체 분할납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함.
- 반면 2013년 일시납 기준 역외영업 판매는 전년대비 13.6% 감소한 40억 8,472만 파운드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6억 4,194만 파운드 감소한 수준임.

10) 퇴직연금은 Defined Benefits, Defined Contributions, Group AVCS, TIPs(Trustee Investment Plans), Buyouts 등으로 구분.

- 투자채권(Investment Bonds)은 전년대비 70.2% 증가한 반면, 개인채권(Personal Bonds)과 기타 일시납 역외보험료는 전년대비 각각 17.3%, 29.4% 감소함.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

- 전체 분할납 보험료의 14.7%를 차지하는 보장성보험료(Protection Products)¹¹⁾는 전년대비 5.1% 감소한 10억 3,506만 파운드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약 557만 파운드 감소한 수준임.
 - 정기보험은 전년대비 14.3% 감소하였고 종신보험은 전년대비 8.2% 감소함.
 - 반면 단체보장성보험은 전년대비 13.2% 증가함.
- 전체 일시납 보험료에서 0.4%의 비중을 차지하는 일시납 보장성보험료는 전년대비 8.6% 감소함.
 - 일시납 보장성보험료에서 비중이 큰 종합생명보험(Collective Life)은 전년대비 55.5% 감소함.

〈모집형태별 신규보험료〉

- 2013년 분할납 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의 경우, 독립 자문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無 자문, 제한적 자문 순임.
 - 분할납 전체에 대한 독립 자문 채널비중은 71.5%, 종목별로는 역외영업이 87.3%로 가장 크고, 퇴직연금계좌가 83.3%로 그 뒤를 이었고 퇴직연금이 38.0%로 가장 낮음.
 - 無 자문 채널의 분할납 신규보험 판매비중은 17.7%이었으며, 종목별로는 퇴직연금 50.5%, 퇴직 및 저축보험 17.7%, 퇴직연금계좌 8.1%로 나타났음.

11) 개인보험인 정기생명보험(Term Life), 종신보험(Whole Life), CI(Critical Illness), 소득보장(Income Protection)과 단체보험인 단체생명보험(Group Life), 단체CI(Group Critical Illness), 단체소득보장(Group Income Protection)보험으로 구분.

- 제한적 자문 채널 비중은 10.7%를 차지했으며, 종목별로는 보장성 보험이 19.1%로 가장 높고 역외보험이 1.3%로 가장 낮았음.

■ 2013년 일시납 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의 경우, 독립 자문, 無 자문, 제한적 자문 순으로 채널 비중이 나타남.

- 일시납 전체에 대한 독립 자문 비중은 67.5%이며, 종목별로는 역외 영업이 86.6%, 보장성보험이 85.9%로 높고 퇴직연금이 52.8%로 가장 낮음.
- 無 자문 채널의 일시납 신규보험판매비중은 27.2%이며, 종목별로는 퇴직연금 45.4%, 보장성보험 0.5%, 투자 및 저축보험 3.7%, 역외보험 3.8%로 나타남.
- 제한적 자문채널의 일시납 신규보험의 판매비중은 5.4%로 가장 낮고 종목별로는 투자 및 저축보험 21.0%, 보장성보험 13.6%로 높고 퇴직연금이 1.8%로 가장 낮음.

〈표 7〉 2013년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¹²⁾

(단위: %)

구분	독립 자문 ¹⁾ (Independent Advice)		제한적 자문 ²⁾ (Restricted Advice)		無 자문 ³⁾ (Non-Advised)	
	분할납	일시납	분할납	일시납	분할납	일시납
투자 및 저축보험	71.5	75.3	10.7	21.0	17.7	3.7
퇴직연금계좌	83.3	83.9	8.5	5.0	8.1	11.1
퇴직연금	38.0	52.8	11.5	1.8	50.5	45.4
역외영업	87.3	86.6	1.3	9.6	11.4	3.8
보장성보험	69.5	85.9	19.1	13.6	11.4	0.5
전체	71.5	67.5	10.7	5.4	17.7	27.2

주: 1) 모든 보험회사의 상품을 대상으로 함.

2) 단일 전속 또는 다중 전속으로 인해 일부 보험회사의 상품을 대상으로 함.

3) 보험회사의 직접판매에 해당하며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방카슈랑스 채널의 분할납 및 일시납 신규보험판매는 2013년 중 부진이 지속됨.

- 2013년 방카슈랑스 판매 중에서 분할납 판매는 1억 8,160만 파운드였으며 이중 보장성보험 판매가 71.3%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퇴직연금계좌가 28.2%로 뒤를 이음.

12) 소매판매채널 개선방안(RDR: Retail Distribution Review) 시행으로 2013년 1/4분기부터 변경된 보험 판매채널 분류 기준임. RDR은 자문자가 상품공급자의 판매전략이나 소비자의 적합성에 관계없이 높은 수수료의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과정을 자문(advice)과 판매(sale)로 구분하고 자문자의 중개수수료(commission)를 자문비(fee)로 전환함.

- 일시납 신규보험 판매 중 방카슈랑스 판매는 13억 9,360만 파운드였으며, 이중 투자 및 저축보험이 47.5%, 역외보험 27.5%, 퇴직연금 14.4% 순으로 판매비중이 높았음.

〈표 8〉 2013년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방카슈랑스 판매

(단위: 백만 파운드)

구분	분할납					일시납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투자 및 저축보험	0.1	0.2	0.2	0.1	0.6	292.4	115.7	125.3	128.4	661.7
퇴직연금계좌	9.6	10.9	20.9	9.8	51.3	43.2	31.6	28.9	31.8	135.5
퇴직연금	0.0	0.0	0.0	0.0	0.0	57.1	38.8	52.3	52.7	200.8
역외영업	0.0	0.1	0.0	0.0	0.2	86.3	90.4	85.5	121.1	383.3
보장성보험	36.3	31.9	31.7	29.6	129.5	2.8	2.2	3.4	3.9	12.4
전체	46.1	43.1	52.9	39.6	181.6	481.7	278.9	295.3	338.0	1,393.6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나. 손해보험¹³⁾

- 2012년 영국 손해보험 시장규모는 전체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전년대비 9.1% 증가한 804억 3,273만 파운드임.
- 재보험을 제외한 2012년 원수보험료는 588억 5,829만 파운드로 전년대비 5.6% 증가함.

〈표 9〉 영국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자동차	12,969	12,840	12,562	13,584	14,569	15,060
재물	12,207	12,610	12,633	13,294	12,990	13,417
상해 및 질병	5,826	5,411	5,225	5,746	5,474	5,787
배상책임	5,681	6,329	6,412	6,283	5,937	6,362
재물책임	5,483	4,689	3,920	4,359	4,207	4,157
해외 원보험	9,002	10,306	11,595	11,981	12,552	14,075
소계	51,168	52,184	52,347	55,247	55,728	58,858
재보험	15,507	19,136	17,733	18,191	18,022	21,574
전체 합계	66,675	71,320	70,080	73,438	73,750	80,433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13) 영국보험협회는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에 대해서는 분기별 통계를 발표하지 않으며 최근 2012년 통계를 발표.

■ 전년대비 원수보험료가 감소한 유일한 종목은 재물책임보험이며, 재보험, 해외 원보험, 배상책임, 상해 및 질병, 자동차, 재물보험 순으로 증가세를 보임.

○ 재보험은 전년대비 19.7% 증가한 215억 7,445만 파운드를 기록했고 해외 원보험이 12.1%, 배상책임보험이 7.2% 증가함.

○ 금전적 손해를 담보하는 재물책임(Pecuniary Loss) 보험은 전년대비 1.2% 감소한 41억 5,688만 파운드를 기록함.

■ 2012년 손해보험의 합산비율은 99.5%로 전년대비 3.0%p 악화됨.

○ 2012년 사업비율은 31.3%로 전년대비 1.3%p 증가하였으며, 손해율도 68.2%로 1.7%p 소폭 증가함.

〈표 10〉 영국 손해보험 손해율, 사업비율, 합산비율 추이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손해율	69.2	66.2	73.9	73.8	66.5	68.2
사업비율	31.5	32.1	32.4	29.6	30.0	31.3
합산비율	100.7	98.3	106.3	103.4	96.5	99.5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2012년 손해보험 판매채널 비중의 경우 전년에 비해 방카슈랑스 비중이 증가한 반면, 직접판매, 전속대리점과 독립중개인 비중은 감소함.

○ 2012년 독립중개인 비중은 55.2%로 가장 높았으나, 전년대비 0.4%p 감소한 것이며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 직접판매 비중은 24.3%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았으나, 방카슈랑스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1.4%p 감소함.

〈표 11〉 영국 손해보험 판매채널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직접판매	전속대리점	독립중개인	방카슈랑스	기타
2002	19.8	8.0	56.6	14.4	1.3
2003	19.3	7.0	55.0	17.4	1.3
2004	20.0	6.2	54.5	17.7	1.6
2005	21.2	5.5	53.9	18.2	1.3
2006	21.0	5.3	54.1	17.9	1.7
2007	21.6	7.4	53.9	16.0	1.0
2008	21.8	6.4	56.3	14.9	0.6
2009	23.5	6.5	56.8	12.6	0.7
2010	22.7	6.8	57.3	12.8	0.4
2011	25.7	4.8	55.6	13.3	0.7
2012	24.3	4.7	55.2	14.9	0.9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의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 보험의 통계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6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전체 신규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개인보장성 보험과 단체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s	투자 · 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s	퇴직연금계좌
Occupational Pensions	퇴직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3. 일본 동향¹⁴⁾

가. 생명보험

〈신규계약 현황〉

■ FY2013 3/4분기 생명보험 신규계약액은 개인보험 및 개인연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체보험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0.4% 증가한 20조 7,582억 엔임.

○ 2/4분기와 3/4분기 개인보험 신규계약액은 생사혼합보험과 생존보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의 성장세 둔화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2.3%씩 감소함.

- 사망보험 가운데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2/4분기 각각 전년동기대비 4.9%, 4.8% 감소하였고 3/4분기 각각 전년동기대비 4.7%, 13.7% 감소하였음.

- 또한 생사혼합보험인 양로보험(정기양로보험 포함)과 기타 생사혼합보험은 2/4분기에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3.3%, 2.0% 증가한 반면, 3/4분기 양로보험은 전년동기대비 3.6% 감소하였고 기타 생사혼합보험은 31.0% 증가하였음.

○ 3/4분기 개인연금보험 신규계약액의 경우 일본 주식시장의 회복으로 변액보험은 증가하였으나 고령화 지속으로 정액연금보험은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4.7% 감소함.

- 정액연금보험은 2/4분기와 3/4분기에 각각 전년동기대비 3.1%, 10.6% 감소한 반면, 변액연금보험은 각각 44.9%, 100.7% 증가함.

○ 2/4분기와 3/4분기 단체보험 신규계약액은 단체정기보험(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¹⁵⁾ 포함)과 단체신용생명보험의 증가로 각각 4,056억 엔과 1조 7억 엔을 기록함.

- 2/4분기와 3/4분기 단체정기보험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31.2%, 89.3% 증가하였고, 단체신용생명보험은 각각 3배 이상, 18배 이상 증가함.

14) 일본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부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15)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은 임직원이 사망 시 또는 고도장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을 말함.

〈표 12〉 일본 생명보험 신규계약액

(단위: 억 엔, %)

구분		FY2012			FY2013		
		3/4	4/4	연간	1/4	2/4	3/4
개 인	금액	182,502	203,557	732,046	157,838	174,145	178,390
	증가율	2.0	19.8	8.0	-5.9	-2.3	-2.3
	구성비	88.3	83.4	86.3	85.7	67.6	67.6
사 망	금액	153,505	172,901	613,920	130,239	144,201	145,083
	증가율	5.0	24.0	10.2	-5.5	-3.6	-5.5
	구성비	74.3	70.8	72.4	70.7	55.9	55.0
정기보험	금액	79,882	87,920	314,329	66,488	74,168	76,150
	증가율	25.5	42.0	29.1	-3.0	-4.9	-4.7
종신보험	금액	42,245	51,891	174,907	32,248	39,938	36,450
	증가율	1.7	39.4	15.3	-16.9	-4.8	-13.7
생사 혼합	금액	27,837	28,965	113,112	26,199	28,504	31,678
	증가율	-9.9	0.7	-0.9	-9.0	3.5	13.8
	구성비	13.5	11.9	13.3	14.2	14.5	15.3
양로보험 ²⁾	금액	13,783	14,334	57,348	13,696	14,762	13,287
	기타	-4.4	-8.3	-3.1	-8.4	3.3	-3.6
기 타	금 액	13,307	13,809	52,922	11,690	12,858	17,429
	증가율	-6.0	-2.5	1.3	-11.4	2.0	31.0
생 존	금액	1,159	1,692	5,014	1,400	1,440	1,629
	증가율	-38.2	2.0	-24.3	26.5	36.5	40.6
	구성비	0.6	0.7	0.6	0.8	0.7	0.8
개인연금	금액	20,128	29,116	85,507	15,929	17,876	19,185
	증가율	-23.0	58.9	7.5	-13.8	0.5	-4.7
	구성비	9.7	11.9	10.1	8.6	9.1	9.2
정액연금	금액	19,058	27,219	80,238	13,311	15,971	17,038
	증가율	-24.2	58.9	7.0	-23.9	-3.1	-10.6
변액연금	금액	1,070	1,897	5,268	2,618	1,905	2,147
	증가율	8.0	58.3	14.7	165.5	44.9	100.7
단체보험	금액	4,029	11,484	30,415	10,424	4,056	10,007
	증가율	-11.1	3.9	0.7	-14.3	47.8	148.4
	구성비	1.9	4.7	3.6	5.7	2.1	4.8
단체정기 ³⁾	금액	3,886	11,218	23,333	9,999	3,438	7,356
	증가율	-10.5	25.0	-11.8	78.3	31.2	89.3
단체신용생명	금액	142	266	7,082	426	618	2,651
	증가율	-24.9	-87.2	88.0	-93.5	394.4	1766.9
합 계	금액	206,659	244,157	847,968	184,192	196,077	207,582
	증가율	-1.4	22.5	7.7	-7.1	-1.4	0.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이며, 구성비는 생명보험 전체 실적 대비 기준임.

2) 양로보험은 정기양로보험을 포함함.

3) 단체정기보험은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을 포함함.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자산 현황〉

■ FY2013 3/4분기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자산규모는 현금 및 예금, 단기자금, 매입금전채권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전신탁, 유가증권 등의 증가로 전분기대비 1.3% 증가한 351조 6,312억 엔을 기록함.

〈표 13〉 일본 생명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¹⁾

(단위: 억 엔, %)

구분	FY2012				FY2013					
	3/4		4/4		1/4		2/4		3/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32,220	-2.2	35,749	11.0	33,974	-5.0	40,397	18.9	36,270	-10.2
단기자금	16,187	-27.4	27,669	70.9	16,023	-42.1	21,649	35.1	18,650	-13.9
매입금전채권	30,386	5.4	30,254	-0.4	27,000	-10.8	27,230	0.9	26,523	-2.6
금전신탁	19,653	-5.0	20,599	4.8	20,555	-0.2	21,695	5.5	23,136	6.6
유가증권	2,694,451	3.3	2,782,449	3.3	2,798,208	0.6	2,820,451	0.8	2,875,769	2.0
- 국채	1,461,980	0.8	1,487,692	1.8	1,491,967	0.3	1,495,198	0.2	1,499,348	0.3
- 지방채	140,029	1.9	139,347	-0.5	138,488	-0.6	141,180	1.9	143,220	1.4
- 회사채	252,964	-0.1	251,552	-0.6	250,035	-0.6	253,411	1.4	252,754	-0.3
- 주식	139,223	8.0	167,257	20.1	171,533	2.6	182,812	6.6	190,312	4.1
- 외화증권	534,412	10.4	559,865	4.8	568,081	1.5	571,913	0.7	613,478	7.3
대출금	404,985	-1.6	402,446	-0.6	393,975	-2.1	388,130	-1.5	386,344	-0.5
부동산	64,538	0.4	63,748	-1.2	63,196	-0.9	62,598	-0.9	63,041	0.7
운용자산 ²⁾	3,286,246	2.2	3,390,880	3.2	3,376,430	-0.4	3,408,962	1.0	3,456,510	1.4
비운용자산	66,289	-9.6	59,101	-10.8	63,984	8.3	60,745	-5.1	59,802	-1.6
총자산 ³⁾	3,352,535	2.0	3,449,981	2.9	3,440,414	-0.3	3,469,707	0.9	3,516,312	1.3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잔액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그리고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3)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 총자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증권은 2/4분기와 3/4분기 각각 전분기 대비 0.8%, 2.0% 증가한 282조 451억 엔, 287조 5,769억 엔을 기록함.

- 2/4분기에는 국채, 지방채 등 모든 자산이 증가하였고 3/4분기에는 회사채를 제외한 모든 자산이 증가함.

○ 한편, 2/4분기 대출금과 비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각각 1.5%, 5.1% 감소하였고 3/4분기에는 전분기대비 각각 0.5%, 1.6% 감소함.

나. 손해보험

〈보험료 현황〉

■ FY2013 3/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상해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6.0% 증가함.

〈표 14〉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엔, %)

구분		FY2012			FY2013		
		3/4	4/4	연간	1/4	2/4	3/4
화재	보험료 ²⁾	3,795	3,562	14,134	3,432	3,497	3,854
	증가율 ³⁾	5.0	0.6	2.6	0.2	4.3	1.6
	구성비	18.6	17.5	17.2	15.8	16.7	17.8
해상	보험료	475	520	1,979	562	528	531
	증가율	1.3	8.8	1.5	9.8	11.9	11.8
	구성비	2.3	2.6	2.4	2.6	2.5	2.5
운송	보험료	155	156	632	172	152	157
	증가율	0.6	1.3	1.6	0.6	1.3	1.3
	구성비	0.8	0.8	0.8	0.8	0.7	0.7
자동차	보험료	9,039	8,987	35,927	9,407	9,037	9,652
	증가율	3.0	3.0	3.4	3.1	2.9	6.8
	구성비	44.2	44.2	43.5	43.3	43.1	44.6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료	2,214	2,453	9,308	2,540	2,586	2,520
	증가율	-0.1	8.2	4.4	5.4	15.9	13.8
	구성비	10.8	12.1	11.2	11.7	12.3	11.6
상해	보험료	2,497	2,288	10,295	2,772	2,600	2,437
	증가율	-4.9	-5.0	-3.6	-3.8	-1.1	-2.4
	구성비	12.2	11.3	13.4	12.8	12.4	11.2
특종	보험료	2,270	2,366	9,648	2,828	2,549	2,512
	증가율	5.2	5.8	4.6	6.7	8.0	10.7
	구성비	11.1	11.6	11.5	13.0	12.2	11.6
합계	보험료	20,445	20,331	81,923	21,714	20,948	21,664
	증가율	2.2	2.6	2.5	2.6	4.9	6.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임. 그리고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일본의 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 기준임.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일반화재보험과 지진보험의 원수보험료의 증가로 2/4분기와 3/4분기 각각 전년동기대비 4.3%, 1.6% 증가함.
 - 화재보험은 자연재해 발생 빈도수가 증가함에 따라 FY2015까지 화재보험료가 3.0%에서 5.0%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2/4분기와 3/4분기 전년동기대비 11.9%, 11.8% 증가하며 각각 528억 엔, 531억 엔으로 집계됨.
 - 화물, 운송의 활성화로 3/4분기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보임.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2/4분기와 3/4분기 각각 전년동기대비 2.9%, 6.8% 증가함.
 - 자동차보험료는 비과세이지만 소비세율 인상으로¹⁶⁾ 인한 판매 대리점이나 정비업체 관련 수수료 발생으로 보험회사들의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도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함.
- 2/4분기와 3/4분기 자동차배상책임 원수보험료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15.9%, 13.8%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자동차배상책임 원수보험료는 2/4분기 2,586억 엔을, 3/4분기 2,520억 엔으로 집계됨.
 - 2013년 4월에 자동차책임보험료는 13.5% 인상되었고, 10월에는 임의보험료가 1.0~2.0% 인상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증가함.
- 반면, 2/4분기와 3/4분기 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1.1%, 2.4% 감소한 2,600억 엔, 2,437억 엔을 나타냄.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2/4분기와 3/4분기 각각 전년동기대비 8.0%, 10.7% 증가한 2,549억 엔, 2,512억 엔으로 집계됨.

16) 일본의 소비세율은 2014년 4월 1일부터 5%에서 8%로 인상되었음.

〈자산 현황〉

■ FY2013 3/4분기 손해보험 총자산은 현금 및 예금, 매입금전채권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환매조건부채권, 금전신탁과 유가증권 등의 증가로 전분기대비 1.6% 증가함.

- 현금 및 예금은 2/4분기에는 전분기대비 19.0% 증가한 반면, 3/4분기에는 13.9% 감소한 7,272억 엔을 나타냄.
- 2/4분기와 3/4분기 단기자금은 전분기대비 각각 16.1%, 2.5% 증가하며 증가세를 보임.
- 환매조건부채권 규모는 2/4분기에는 전분기대비 22.9% 감소하였지만, 3/4분기에는 전분기대비 14.7% 증가한 3,703억 엔을 나타냄.
- 매입금전채권 규모는 2/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4분기 15.8%, 3/4분기 4.1% 감소하였음.
- 금전신탁은 2/4분기 5.7% 감소하였지만 3/4분기에는 5.4% 증가함.
- 유가증권의 경우 2/4분기에는 국채, 지방채 등이 전분기대비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2.7% 증가하였고, 3/4분기에는 회사채 및 기타증권을 제외한 증권이 전분기대비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2.7% 증가함.
 - 2/4분기 말 국공채(국채 + 지방채)는 전분기대비 1.7% 증가하였고 3/4분기 말에는 전분기대비 0.1% 증가함.
- 대출금은 2/4분기와 3/4분기 전분기대비 각각 1.0%, 1.6% 줄어들며 감소세가 지속됨.
- 부동산은 2/4분기 1.3% 증가한 1조 429억 엔을 기록한 반면, 3/4분기에는 1.0% 감소한 1조 321억 엔을 기록함.

〈표 15〉 일본 손해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¹⁾

(단위: 억 엔, %)

구분		FY2012				FY2013					
		3/4		4/4		1/4		2/4		3/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6,909	-9.5	9,288	34.4	7,102	-23.5	8,448	19.0	7,272	-13.9
단기자금		3,590	-29.7	4,278	19.2	3,369	-21.2	3,913	16.1	4,012	2.5
환매조건부채권		2,930	0.9	4,289	46.4	4,188	-2.4	3,228	-22.9	3,703	14.7
매입금전채권		4,331	4.5	2,832	-34.6	3,023	6.8	2,547	-15.8	2,443	-4.1
금전신탁		555	-5.3	914	64.7	1,199	31.2	1,131	-5.7	1,192	5.4
유가증권	국 채 ²⁾	61,837	3.5	61,961	0.2	63,408	2.3	64,526	1.8	64,563	0.1
	지방채	3,634	-3.7	3,493	-3.9	3,516	0.7	3,554	1.1	3,575	0.6
	회사채	26,984	-3.2	26,708	-1.0	26,348	-1.3	26,568	0.8	26,048	-2.0
	주 식	55,109	14.7	63,484	15.2	67,114	5.7	70,172	4.6	73,634	4.9
	외화증권	47,918	5.2	47,534	-0.8	49,157	3.4	50,333	2.4	53,167	5.6
	기타증권	2,728	3.5	2,725	-0.1	2,402	-11.9	2,460	2.4	2,394	-2.7
	소 계	198,210	5.6	205,905	3.9	211,946	2.9	217,612	2.7	223,381	2.7
대출금		17,929	-1.9	17,589	-1.9	17,123	-2.7	16,957	-1.0	16,680	-1.6
부동산		10,461	-0.9	10,429	-0.3	10,291	-1.3	10,429	1.3	10,321	-1.0
운용자산		244,915	3.4	255,526	4.3	258,242	1.1	264,265	2.3	269,005	1.8
비운용자산 ³⁾		30,144	-5.7	29,071	-3.6	28,024	-3.6	26,278	-6.2	26,076	-0.8
총자산		275,060	2.3	284,598	3.5	286,267	0.6	290,544	1.5	295,082	1.6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누적 잔액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FY2013 2/4분기 말 국공채(국채 + 지방채)는 전분기대비 1.7% 증가한 6조 8,080억 엔이고 3/4분기 말 국공채는 전분기대비 0.1% 증가한 6조 8,138억 엔임.

3) 비운용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을 말함.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http://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http://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규계약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險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현황(主要資産運用状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險会社資金運用状況一覽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은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성보험과 단체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성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險)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險)으로, 단체성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險),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險), 재형보험(財形保險),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險), 의료보장보험(医療保障保險),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險)으로 분류함.
- 단체성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기타로 분류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險)	특종보험

4. 중국 동향¹⁷⁾

가. 중국 보험산업 총괄

〈수지상황〉

- 2013년 4/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는 3,79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함.
 -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었으나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하면서 전체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3년 연간 수입보험료는 인보험 실적이 회복되면서 1조 7,22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1.2% 증가함.
- 2013년 4/4분기 전체 지급보험금은 1,70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8.7% 증가함.
 - 한편, 2013년 지급보험금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2012년 20.2%보다 11.5%p 상승한 31.7%로 나타남.
- 2013년 4/4분기 사업비는 772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6.3% 증가함.
 - 한편, 2013년 연간 사업비는 2,5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5.1% 증가함.

17) 중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표 16〉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1),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2		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수입보험료	금액	3,412	15,488	5,151	4,362	3,920	3,790	17,222
	증가율 ³⁾	10.6	8.0	6.5	18.0	10.6	11.1	11.2
인보험	금액	2,073	10,157	3,638	2,748	2,426	2,199	11,010
	증가율 ³⁾	6.7	4.5	2.9	19.5	7.8	6.1	8.4
손해보험	금액	1,339	5,331	1,513	1,614	1,495	1,591	6,212
	증가율 ³⁾	17.1	15.4	16.3	15.4	15.7	18.8	16.5
지급보험금	금액	1,324	4,716	1,488	1,475	1,546	1,704	6,213
	증가율 ³⁾	25.4	20.2	27.0	35.2	36.8	28.7	31.7
인보험	금액	457	1,900	758	710	688	617	2,774
	증가율 ³⁾	27.7	9.1	26.5	59.9	72.1	35.0	46.0
손해보험	금액	866	2,816	730	765	858	1,087	3,439
	증가율 ³⁾	24.1	28.8	27.5	18.2	17.5	25.5	22.1
사업비	금액	664	2,171	546	585	596	772	2,500
	증가율 ³⁾	11.8	15.4	16.9	15.8	11.3	16.3	15.1

주: 1) 기간별 실적치 기준.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자산운용〉

■ 2013년 4/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2.9% 증가한 8조 2,887억 위안으로 나타남.

○ 이 중 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3.7% 증가한 7조 6,873억 위안, 비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5.6% 감소한 6,014억 위안임.

■ 운용자산 중 예치금의 비중은 전분기에 비해 줄어든 반면, 투자금의 비중은 늘어났는데 이는 중국 보험회사들이 기업채권, 부동산, 인프라 투자 비중을 확대하였기 때문임.

○ 예치금은 2조 2,641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1.0% 감소하였으며 총자산대비 예치금 비중은 전분기에 비해 1.1%p 감소함.

- 투자금은 5조 4,232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5.8% 증가하였으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63.7%에서 65.4%로 확대됨.
- 중국 생명보험회사들은 자산부채의 만기매칭 및 보험자금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업채권, 부동산,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였음.

〈표 17〉 중국 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1),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2		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운용자산계	금액	68,543	68,543	70,868	72,829	74,159	76,873	76,873
	증가율 ³⁾	7.5	23.6	3.4	2.8	1.8	3.7	12.2
	구성비	93.2	92.2	92.4	92.4	92.1	92.7	92.7
예치금	금액	23,446	23,446	23,992	23,405	22,879	22,641	22,641
	증가율 ³⁾	6.7	32.2	2.3	-2.4	-2.2	-1.0	-3.4
	구성비	31.9	31.9	31.3	29.7	28.4	27.3	27.3
투자금	금액	45,097	45,097	46,875	49,424	51,280	54,232	54,232
	증가율 ³⁾	7.9	19.5	3.9	5.4	3.8	5.8	20.3
	구성비	61.3	61.3	61.1	62.7	63.7	65.4	65.4
비운용자산계 ⁴⁾	금액	5,003	5,003	5,819	6,010	6,371	6,014	6,014
	증가율 ³⁾	-4.1	7.3	16.3	3.3	6.0	-5.6	20.2
	구성비	6.8	6.8	7.6	7.6	7.9	7.3	7.3
총자산	금액	73,546	73,546	76,686	78,840	80,530	82,887	82,887
	증가율 ³⁾	6.6	22.3	4.3	2.8	2.1	2.9	12.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말잔액기준.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3)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4) 비운용자산은 미수금, 장기주식투자, 유무형 자산 등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나. 인보험

〈수입보험료 현황〉

- 2013년 4/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2,199억 위안¹⁸⁾으로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함.
 - 한편, 2013년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 실적이 회복되고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이 급성장하면서 1조 1,01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8.4% 증가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세가 전분기에 비해 소폭 둔화되었으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13년 4/4분기 일시불 생명보험의 신계약 감소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하는 데 그쳤음.
 -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7.8% 증가한 266억 위안,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8.2% 증가한 97억 위안을 기록함.
 - 한편, 2013년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전년대비 5.8%, 30.2%, 19.5% 증가한 9,425억 위안, 1,123억 위안, 461억 위안임.
- 2013년 변액보험 수익률은 플러스를 기록하였으나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은 마이너스에 그침.
 - 귀진증권(Sinolink Securities)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77개 변액보험 투자계정의 평균수익률은 4.0%로 조사됨.
 - ICBC-AXA Life 및 Metlife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변액연금보험¹⁹⁾ 수익률은 각각 -3.1%와 -2.3%였음.

18) 인보험 수입보험료에는 인보험회사 수입보험료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의 단기의료보험과 상해보험, 연금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인보험 상품의 수입보험료가 포함됨.

19) 변액연금보험은 중국에서 2011년 8월부터 출시되었는데, 현재 이를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ICBC-AXA Life 및 Metlife 2개가 있음.

〈표 18〉 인보험 수입보험료^{1),2),3)}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2		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인보험	보험료	2,073	10,157	3,638	2,748	2,426	2,199	11,010
	증가율 ⁴⁾	6.7	4.5	2.9	19.5	7.8	6.1	8.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생명보험	보험료	1,799	8,908	3,224	2,332	2,033	1,836	9,425
	증가율 ⁴⁾	5.0	2.4	0.7	18.9	4.5	2.0	5.8
	구성비	86.8	87.7	88.6	84.9	83.8	83.5	85.6
건강보험	보험료	193	863	295	292	271	266	1,123
	증가율 ⁴⁾	21.4	24.7	28.9	23.2	32.9	37.8	30.2
	구성비	9.3	8.5	8.1	10.6	11.2	12.1	10.2
상해보험	보험료	82	386	119	124	122	97	461
	증가율 ⁴⁾	17.1	15.6	16.0	25.3	18.2	18.2	19.5
	구성비	4.0	3.8	3.3	4.5	5.0	4.4	4.2

주: 1) 기간별 실적치기준.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현황〉

■ 2013년 4/4분기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61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5.0% 증가함.

-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지급보험금은 각각 457억 위안, 129억 위안, 32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0.2%, 62.7%, 16.9% 증가함.
- 생명보험과 건강보험 급부금 만기 도래 및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증가로 2013년 4/4분기 인보험 지급보험금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2012년 4/4분기 27.7%에서 35.0%로 상승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에 판매된 10년 만기 생명보험과 2008년에 판매된 5년 만기 생명보험의 급부금은 약 500억 위안임.
 -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증가는 은행의 고수익 재테크 상품 등으로 수요가 이동하였기 때문임.
- 한편, 2013년 연간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2,774억 위안으로 전년대와 비교하여 46.0% 증가함.

〈표 19〉 인보험 지급보험금^{1),2),3)}

(단위: 억 원, %)

구분		2012		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인보험	보험금	457	1,900	758	710	688	617	2,774
	증가율 ⁴⁾	27.7	9.1	26.5	59.9	72.1	35.0	46.0
생명보험	보험금	351	1,505	644	594	558	457	2,253
	증가율 ⁴⁾	30.5	15.7	27.8	68.3	88.0	30.2	49.7
건강보험	보험금	79	298	89	92	101	129	411
	증가율 ⁴⁾	19.7	-17.2	22.0	33.3	31.6	62.7	38.0
상해보험	보험금	27	97	25	24	29	32	110
	증가율 ⁴⁾	12.5	18.3	11.4	14.3	10.0	16.9	12.9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3년 4/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소폭 하락한데 반해,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소폭 상승함.

○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92.8%로 전분기에 비해 1.3%p 하락하였으며,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7.2%로 전분기대비 1.3%p 상승함.

-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들 중 상위 3사는 AIA China, ICBC-AXA Life, Metlife로 나타남.

○ 한편,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²⁰⁾의 시장점유율은 68.4%로 전분기에 비해 2.1%p 감소함.

20)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는 중국런췌우생명, 신화생명, 중국평안생명, 중국타이핑양생명, 중국런민생명으로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3.1%, 14.6%, 14.5%, 8.5%, 7.6%임.

〈표 20〉 생명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3)}

(단위: %)

구분			2012		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인보험	중국계	상위 5사	67.8	71.0	70.1	68.9	70.5	68.4	69.5
		중소형사 ²⁾	25.5	24.3	25.7	25.3	23.7	24.4	24.9
		소계	93.3	95.2	95.8	94.2	94.1	92.8	94.4
	외국계		6.7	4.8	4.2	5.8	5.9	7.2	5.6

주: 1) 시장 점유율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2)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다.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현황〉

■ 2013년 4/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1,591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8.8% 증가함.

○ 자동차 판매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중국자동차협회(CAAM)에 따르면 2013년 4/4분기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610만 대로 전년동기대비 17.0% 증가함.

○ 한편, 2013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6,21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6.5% 증가함.

〈표 21〉 손해보험 수입보험료^{1),4)}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2		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보험	보험료 ²⁾	1,339	5,331	1,513	1,614	1,495	1,591	6,212
	증가율 ³⁾	17.1	15.4	16.3	15.4	15.7	18.8	16.5

주: 1)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2)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4)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현황〉

■ 2013년 4/4분기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1,08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5.5% 증가함.

○ 자연재해 증가, 인건비 및 자동차부품 가격 상승으로 2013년 4/4분기 손해보험 지급 보험금의 증가율은 2012년 4/4분기 24.1%에 비해 소폭 상승함.

○ 한편, 2013년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3,43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2.1% 증가함.

〈표 22〉 손해보험 지급보험금^{1),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2		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보험	보험금 ³⁾	866	2,816	730	765	858	1,087	3,439
	증가율 ⁴⁾	24.1	28.8	27.5	18.2	17.5	25.5	22.1

주: 1)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3년 4/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다소 하락한데 반해,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다소 상승함.

○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3/4분기에 비해 0.1%p 하락한 98.6%였으며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0.1%p 상승한 1.4%에 그침.

○ 손해보험회사 상위 3사인 중국런민재산, 중국평안재산, 중국타이핑양재산은 각각 33.0%, 19.3%, 12.3%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손해보험시장에서 64.6%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전분기에 비해 0.7%p 하락한 수준임.

○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들 중 상위 3사는 Liberty Mutual, AIG, Allianz China로 조사됨.

〈표 23〉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2)}

(단위: %)

구분			2012		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 보험	중국계	상위 3사	64.1	65.3	65.1	64.2	65.3	64.6	64.8
		중소형사 ³⁾	34.7	33.4	33.8	34.5	33.4	34.0	33.9
		소계	98.8	98.8	98.9	98.7	98.7	98.6	98.7
	외국계		1.2	1.2	1.1	1.3	1.3	1.4	1.3

주: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3)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라. 연금보험²¹⁾

■ 2013년 4/4분기 연금보험회사의 수탁보험료는 143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0.7% 감소하였고, 누적 운용보험료는 2,495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4.7% 증가함.

○ 중국 경제 성장 부진에 따른 기업연금 신규가입 증가세 둔화가 연금보험회사 수탁보험료 감소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2013년 4/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의 7.8%보다 다소 낮은 7.7%에 그침.

○ 한편, 2013년 연간 연금보험회사의 수탁보험료는 589억 위안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하였음.

21) 중국은 2004년 4월부터 연금보험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07년 10월부터 연금보험회사의 운용을 정식으로 허용함. 현재까지 전국에서 연금보험을 운용하는 보험회사는 타이핑, 평안, 린쇼우, 장장, 타이강 등 5개 회사임.

〈표 24〉 중국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및 자산 운용 현황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2			2013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수탁보험료 ²⁾	금액	127	160	662	167	146	132	143	589
	증가율 ²⁾	46.0	46.8	61.5	-19.2	-12.6	4.3	-10.7	-11.1
누적 운용 보험료	금액	1,842	2,009	2,009	2,180	2,312	2,384	2,495	2,495
	증가율 ³⁾	6.9	9.1	45.8	8.5	6.1	3.1	4.7	24.2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수탁보험료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3) 누적 운용보험료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수치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產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에서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주요 경영실적 등 경영지표 분석을 위해 보험산업경영 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를 사용함.
- 또한,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와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產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를 활용해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시도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보험연감〉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을 상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생명보험은 신종보험인 투자연동형보험, 만능형보험(유니버설), 배당형보험과 저축성 위주의 전통생명보험으로 분류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產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수보험(人壽保險)	생명보험
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부록 ▶ 터키 보험시장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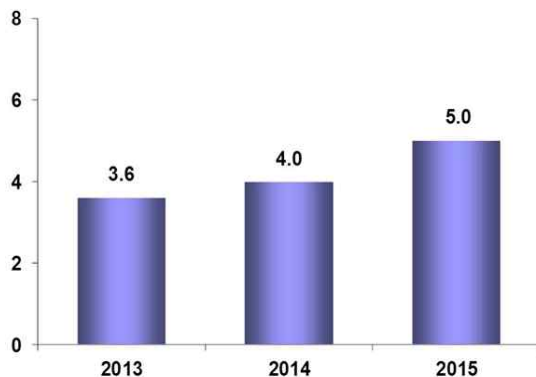
가. 최근 터키 경제 현황

■ 불안정한 세계 경제 · 금융환경에도 불구하고 2013년 상반기 터키 경제는 3.6% 상승하였고 터키정부는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민간 및 공공부문 소비, 그리고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성장한 것으로 평가됨.
- 2013년 터키의 1인당 GDP는 10,818달러로 추정되고 2015년에는 11,927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터키의 경제성장률 예상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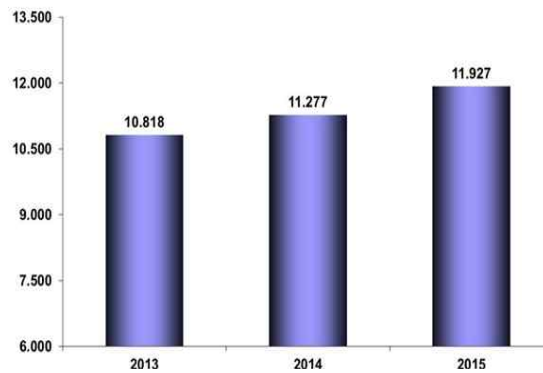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터키 정부.

〈그림 2〉 터키의 1인당 국내총생산 예상치

(단위: 미국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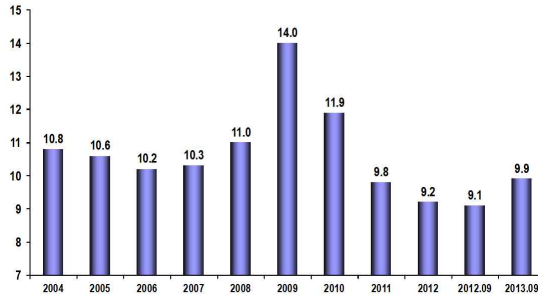
자료: 터키 정부.

■ 2013년 터키의 실업률은 전년대비 상승하였지만 2013년 3/4분기 인플레이션율은 전분기 대비 하락하였음.

- 2013년 9월 실업률은 9.9%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최근 4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임.
- 2013년 3/4분기 인플레이션율은 7.88%로 2/4분기보다 0.42%p 감소함.

〈그림 3〉 터키의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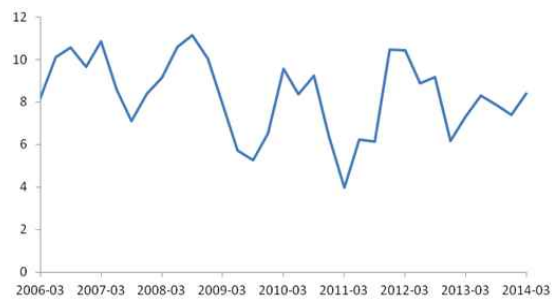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터키통계청.

〈그림 4〉 터키의 인플레이션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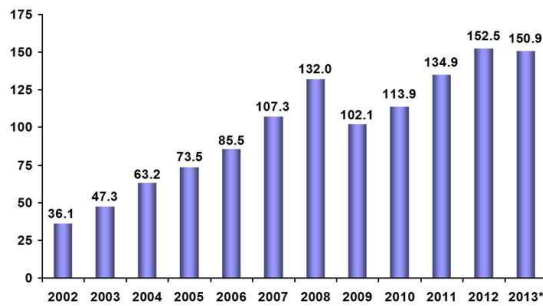


자료: 터키통계청, 터키중앙은행.

- 2013년 터키 무역수지의 경우 전년에 비해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증가함.
- 2013년 수출은 예상과 달리 둔화된 반면, 금을 제외한 수입 증가율은 4.2% 상승함.

〈그림 5〉 터키의 연간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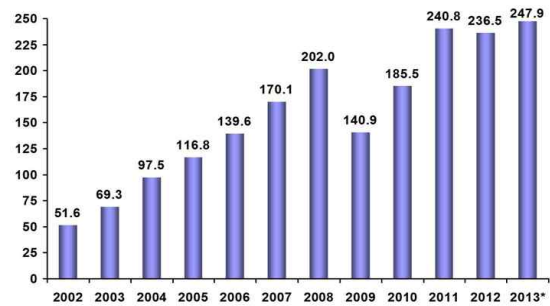
(단위: 10억 미국 달러)



주: 2013년 수출은 2013년 10월 수출을 연간화함.
자료: 터키통계청.

〈그림 6〉 터키의 연간 수입 추이

(단위: 10억 미국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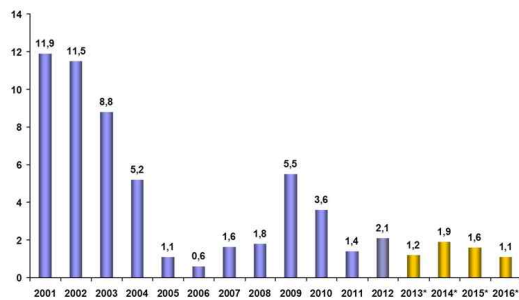
주: 2013년 수입은 2013년 10월 수입을 연간화함.
자료: 터키통계청.

- 2013년 중앙정부 예산적자는 GDP 대비 1.2%를 기록하여 예상치를 하회하였고 2012년 충부채는 GDP 대비 36.1%로 2011년에 비하여 3.0%p 감소함.

■ 2013년 11월 무디스와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는 터키의 투자 신용등급을 다음과 같이 상향함.

○ 무디스는 Baa3(안정적), 스탠다드앳앤푸어는 BB+(안정적), 피치는 BBB-(안정적)로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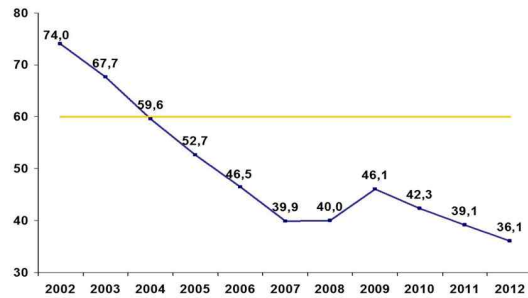
〈그림 7〉 터키 중앙정부의 GDP 대비 예산적자 추이
(단위: %)



주: 2014~2016년 자료는 터키 정부의 중기경제프로그램(Medium Term Program)의 전망치로 이 프로그램은 매년 수정되는 3개년 전망으로 국내 및 해외 시장을 전망함.

자료: 터키 재무부.

〈그림 8〉 터키의 GDP 대비 정부부채 추이
(단위: %)



자료: 터키 재무부.

나. 터키 보험시장

■ Swiss Re에 따르면 2012년 터키의 보험료 규모는 109억 달러로 세계 38위 수준임.

○ 1인당 보험료는 146달러로 세계 62위 수준이고 GDP 대비 보험료 규모는 1.37%로 전세계 평균 6.5%를 하회함.

〈표 1〉 전세계 보험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금액	비중
1	미국	1,270,884	27.55
2	일본	654,112	14.18
3	영국	311,418	6.75
8	우리나라	139,296	3.02
37	이스라엘	11,555	0.25
38	터키	10,882	0.24
39	칠레	10,491	0.23
	세계	4,612,514	100.00

자료: Swiss Re, Sigma No: 2/2013.

〈표 2〉 세계 보험시장 밀도

(단위: 미국 달러)

순위	국가	금액
1	스위스	7,522
2	네덜란드	5,985
3	덴마크	5,304
20	우리나라	2,785
61	중국	179
62	터키	146
63	불가리아	140
	세계	665.70

〈표 3〉 세계 보험시장 침투도

(단위: %)

순위	국가	비중
1	대만	18.19
2	아프리카	14.16
3	네덜란드	12.99
5	우리나라	12.12
71	필리핀	1.40
72	터키	1.37
73	러시아	1.33
	세계 평균	6.50

자료: Swiss Re, Sigma No: 2/2013.

- 2013년 3/4분기 터키의 총수입보험료는 약 178억 터키 리라,* 보험산업 총자산은 약 600억 터키 리라, 총자본은 104억 터키 리라 규모임.

* 2014년 4월 11일 기준 1리라는 488.8원임.

-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약 153억 터키 리라인 반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약 26억 터키 리라로 터키 보험산업의 경우 손해보험 비중이 큼.
-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 제3자 배상책임의 비중이 2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자동차(21%), 생명보험(15%), 화재 및 재난(13%), 건강보험(10%) 순으로 높음.

- 터키에는 총 61개 보험회사가 있는데, 그 중 손해보험회사는 36개, 생명보험회사는 6개, 연금회사는 18개, 재보험사는 1개가 운영되고 있음.

- 2001년 15개 해외 보험회사가 지분매입을 통해 진출하였고 2011년에는 44개사로 증가하였다가 2012년 39개로 감소하였음.

〈표 4〉 터키 보험시장 현황

(단위: 개, 터키 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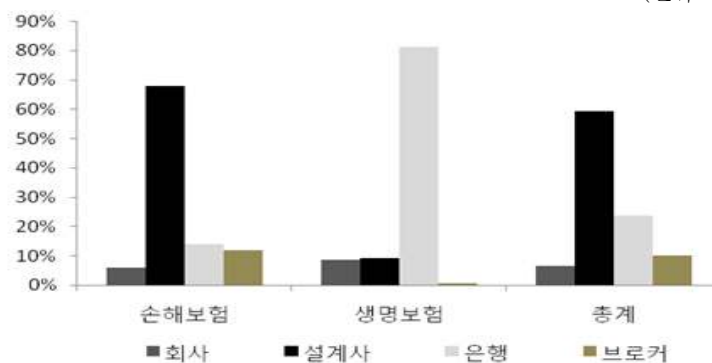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3Q
손해보험회사		28	30	32	34	35	35	36
생명보험회사		11	10	9	7	7	6	6
연금/생명보험 회사		10	12	12	16	16	17	18
재보험사		1	1	1	1	1	1	1
보험료	손해보험(백만)	9,600	10,203	10,469	11,940	14,475	17,114	15,249
	생명보험(백만)	1,331	1,576	1,812	2,190	2,688	2,714	2,611
	합계(백만)	10,931	11,779	12,281	14,130	17,163	19,828	17,860
1인당 보험료	손해보험	136	143	144	162	194	226	202
	생명보험	19	22	25	30	36	36	35
	합계	155	165	169	192	230	262	237
보험금 (백만)	기발생 손해(백만)	5,283	6,269	6,806	7,543	8,757	10,690	8,725
	손해보험(백만)	4,263	5,005	5,316	6,056	7,125	8,872	7,154
	생명보험(백만)	1,020	1,264	1,490	1,487	1,632	1,818	1,571
	지급보험금(백만)	4,949	5,697	6,687	7,106	8,470	9,666	7,456
	손해보험(백만)	3,939	4,471	5,219	5,653	6,905	7,938	5,977
	생명보험(백만)	1,010	1,226	1,468	1,453	1,565	1,728	1,479

자료: 터키 재무부.

- 판매채널의 경우, 손해보험 상품은 설계사를 통한 판매비중이 높고, 생명보험 상품은 은행을 통한 판매비중이 높음.

〈그림 9〉 터키 보험시장 판매채널

(단위: %)



자료: 터키 재무부.

다. 터키의 보험 감독기구와 보험 유관기관

- 터키의 보험 및 개인연금 회사는 터키 재무부 감독을 받으며 보험감독 기구는 보험시장의 규제와 감독을 담당하는 일반 보험부(General Directorate of Insurance)와 보험감독원(Insurance Supervisory Board)으로 구분됨.
 - 일반 보험부는 규제를 공포하고 피보험자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며 원격감독을 수행하고 보험감독원은 현장감독을 수행함.
- 터키 보험협회(Association of the Insurance, Reinsurance and Pension Companies of Turkey)는 보험법 No.5684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임.
 - 모든 보험회사가 협회 회원이며 총 64개사의 회원 중 62개사는 보험회사, 2개사는 재보험회사임.*
 - *터키에서 운영 중인 재보험회사는 1개이지만 비운영 중인 1개의 재보험회사가 있음.
 - 협회는 보험과 관련된 입법, 관세,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보험 산업 관련 이슈를 연구 조사함.
- 개인연금저축 및 투자 관련 법(Private Pension Savings and Investment Law)에 따라 2003년 7월 10일 연금감독센터(EGM: Pension Monitoring Center)가 설립되었음.
 - 연금감독센터(EGM)는 연금회사의 일별 계약 데이터 통합 및 저장, 그리고 연금회사의 활동을 감시하고 감독 당국에게 보고하는 업무와 연금관련 교육을 일반인 대상으로 실시하고 중개사·개인연금 설계사 자격시험을 시행함.
- 보험법 No.5684에 따라 가입자 또는 보험계약 수익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 해결을 위해 보험중재위원회(IAC: Insurance Arbitration Commission)가 설치되었고 보험중재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52개의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및 연금회사가 보험 중재센터 회원이며 중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보험법 No.5684, 30조항 개정¹에 따라 의무보험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보험 계약자는 관련 보험회사의 보험중재센터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중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보험정보센터(Insurance Information Center)가 보험법 No.5684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2011년 12월 3일 규정 개정으로 보험정보감시센터(Insurance Information and Surveillance Center)로 명칭이 바뀌었음.

- 생명, 건강/질병, 제3자 배상책임보험 및 의무보험 관련 보험회사 지점들이 동 센터의 회원임.
- 육상운송수단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보험(TRAMER: Third Party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for Land Vehicles)과 세 개의 하위 정보센터*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험금청구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치됨.

*건강보험정보감시센터(SAGMER, Health Insurance Information and Surveillance Center), 생명보험정보감시센터(HAYMER, Life Insurance Information and Surveillance Center), 보험청구모니터링감시센터(HATMER, Insurance Claim Monitoring and Surveillance Center).

부 록 I. 통계표

〈부록 표 I-1〉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1/4	2/4	3/4	4/4
국내총생산 성장률		3.1	2.6	2.4	2.1	2.1	2.1	2.7	3.4
경상수지		12,352	-746	11,605	16,887	23,089	10,458	20,805	23,782
수출		134,846	140,130	133,125	139,768	135,318	141,156	136,791	146,367
수입		133,671	130,431	125,652	129,831	129,732	126,758	126,034	133,062
실업률		3.8	3.3	3.0	2.8	3.6	3.1	3.0	2.8
금리	국고채(3년)	3.45	3.39	2.88	2.81	2.68	2.67	2.92	2.9
	회사채(3년)	4.28	4.04	3.44	3.31	3.07	3.04	3.33	3.33
소비자물가지수		105.9	106.12	106.42	106.7	107.55	107.41	107.87	107.84
환율	원/달러	1,131.47	1,151.81	1,133.54	1,090.86	1,084.08	1,122.15	1,112.18	1,062.10
	원/엔화	1,427.86	1,436.85	1,441.20	1,346.13	1,175.64	1,137.42	1,124.22	1,058.26
KOSPI		1972.55	1910.29	1902.32	1940.24	1985.40	1932.58	1917.71	2009.31
외환보유고		315,952	312,378	322,015	326,968	327,408	326,440	336,922	346,460

주: 1) 환율, 주가지수는 분기평균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부록 표 I-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2				2013				2014
	1/4	2/4	3/4	4/4	1/4	2/4	3/4	4/4	1/4
보험 ¹⁾	121,898	139,042	174,037	201,794	195,836	139,623	138,497	167,547	-
- 생보	96,401	105,806	145,350	169,906	166,114	109,365	108,554	135,447	-
수입보험료	223,891	245,286	281,233	313,339	313,227	245,003	240,001	287,363	-
지급보험금	127,490	139,480	135,883	143,434	147,113	135,639	131,447	151,916	-
- 손보	25,497	33,236	28,687	31,889	29,722	30,258	29,943	32,100	-
원수보험료	160,799	167,964	167,265	180,624	169,569	173,584	171,156	192,842	-
원수손해액	135,303	134,729	138,578	148,736	139,847	143,326	141,213	160,742	-
은행	269,108	120,525	113,355	104,974	123,354	182,746	-31,782	229,979	199,985
- 일반 ²⁾	190,485	108,131	54,395	118,680	48,120	147,443	-40,955	128,580	131,328
- 신탁	78,623	12,394	58,960	-13,706	75,234	35,303	9,173	101,399	68,657
증권 ³⁾	44,117	-33,365	67,718	-22,900	96,983	9,232	-5,597	-47,519	22,653
자산운용 ⁴⁾	50,029	83,820	32,104	21,299	183,595	44,093	-9,264	-41,835	172,988
종금 ⁵⁾	11,809	-490	-17,161	-2,493	-21,220	-11,420	1,082	2,444	6,668

주: 1)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실세총예금 + CD 순발행액

3) 고객예탁금 + RP매도 + CMA

4) 채권형 + MMF + 혼합형 + 주식형 + 기타

5) 발행어음 + CMA예탁금 + 어음매출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부록 표 I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및 구성비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1/4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⁴⁾
생존	보험료	58,357	89,359	91,316	97,580	336,612	53,144	53,996	55,496	162,636
	증가율	42.6	107.5	108.6	88.9	87.6	-8.9	-39.6	-39.2	-32.0
	구성비	23.8	31.8	29.1	31.2	29.2	21.7	22.5	19.3	21.1
사망	보험료	76,376	76,309	77,232	78,494	308,411	78,913	79,458	80,289	238,660
	증가율	6.8	6.5	7.6	8.8	7.4	3.3	4.1	4.0	3.8
	구성비	31.1	27.1	24.6	25.1	26.7	32.2	33.1	27.9	30.9
생사 혼합	보험료	46,073	54,615	52,905	68,084	221,677	47,606	46,222	45,910	139,738
	증가율	68.5	91.7	79.9	83.3	81.1	3.3	-15.4	-13.2	-9.0
	구성비	18.8	19.4	16.9	21.7	19.2	19.4	19.3	16.0	18.1
변액 보험	보험료	52,354	51,775	52,803	55,297	212,230	52,577	51,368	51,498	155,443
	증가율	-1.2	-5.4	1.3	4.1	-0.3	0.4	-0.8	-2.5	-0.9
	구성비	21.3	18.4	16.9	17.7	18.4	21.5	21.4	17.9	20.1
개인계	보험료	233,160	272,058	274,256	299,455	1,078,929	232,239	231,044	233,194	696,477
	증가율	20.9	37.5	39.1	39.9	34.6	-0.4	-15.1	-15.0	-10.6
	구성비	95.1	96.7	87.5	95.6	93.6	94.8	96.3	81.1	90.2
단체	보험료	12,126	9,175	39,083	13,772	74,156	12,765	8,957	54,169	75,891
	증가율	-32.0	1.5	-1.8	40.1	-3.1	5.3	-2.4	38.6	25.7
	구성비	4.9	3.3	12.5	4.4	6.4	5.2	3.7	18.9	9.8
합계	보험료	245,286	281,233	313,339	313,227	1,153,086	245,003	240,001	287,363	772,367
	증가율	16.5	35.9	32.3	39.9	31.3	-0.1	-14.7	-8.3	-8.0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연금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임.

3)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I-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 · 지급보험금 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1/4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⁴⁾
생존 보험	지급보험금	25,718	26,885	28,993	28,657	110,254	26,096	26,434	29,850	81,597
	증가율	15.3	2.7	12.4	8.4	9.5	1.5	-1.7	3.0	0.0
	지급률	44.1	30.1	31.8	29.4	32.8	49.1	49.0	53.8	50.2
사망 보험	지급보험금	42,030	43,438	42,291	45,951	173,710	42,868	42,859	44,217	127,759
	증가율	16.7	14.5	10.7	12.2	13.5	2.0	-1.3	4.6	0.0
	지급률	55.0	56.9	54.8	58.5	56.3	54.3	53.9	55.1	53.5
생사 혼합 보험	지급보험금	30,094	24,049	23,177	27,628	104,948	27,646	25,171	27,710	77,320
	증가율	145.7	84.7	75.2	90.1	97.9	-8.1	4.7	19.6	0.0
	지급률	65.3	44.0	43.8	40.6	47.3	58.1	54.5	60.4	55.3
변액 보험	지급보험금	27,824	29,795	30,903	30,318	118,839	26,178	28,021	32,989	88,522
	증가율	-17.0	13.4	31.7	-3.7	3.5	-5.9	-6.0	6.8	0.0
	지급률	53.1	57.5	58.5	54.8	56.0	49.8	54.6	64.1	56.9
개인 보험계	지급보험금	125,666	124,167	125,365	132,553	507,751	122,788	122,485	134,766	375,198
	증가율	20.7	20.0	24.5	16.9	20.4	-2.3	-1.4	7.5	0.0
	지급률	53.9	45.6	45.7	44.3	47.1	52.9	53.0	57.8	53.9
단체 보험계	지급보험금	13,814	11,716	18,069	14,560	58,159	12,851	8,963	17,151	43,599
	증가율	-51.1	-15.0	-53.9	3.4	-39.0	-7.0	-23.5	-5.1	0.0
	지급률	113.9	127.7	46.2	105.7	78.4	100.7	100.1	31.7	57.5
전체	지급보험금	139,480	135,883	143,434	147,113	565,911	135,639	131,447	151,916	418,797
	증가율	5.4	15.9	2.6	15.4	9.5	-2.8	-3.3	5.9	0.0
	지급률	56.9	48.3	45.8	47.0	49.1	55.4	54.8	52.9	54.2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I-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 · 사업비증가율 및 사업비율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1/4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⁶⁾
생존 보험	사업비	9,077	9,970	10,157	10,399	39,603	7,859	7,929	8,742	24,530
	증가율	3.1	9.1	15.1	13.4	10.2	-13.4	-20.5	-13.9%	-38.1
	사업비율	15.6	11.2	11.1	10.7	11.8	14.8	14.7	15.8%	15.1
사망 보험	사업비	21,511	22,634	23,625	25,280	93,050	23,143	23,723	25,309	72,174
	증가율	13.1	11.4	13.6	20.7	14.8	7.6	4.8	7.1%	-22.4
	사업비율	28.2	29.7	30.6	32.2	30.2	29.3	29.9	31.5%	30.2
생사 혼합 보험	사업비	5,972	5,678	6,101	5,947	23,698	4,712	4,529	4,908	14,148
	증가율	-1.4	-7.6	3.8	-4.3	-2.5	-21.1	-20.2	-19.6%	-40.3
	사업비율	13.0	10.4	11.5	8.7	10.7	9.9	9.8	10.7%	10.1
개인 보험계	사업비	36,590	38,253	39,882	41,626	156,351	35,714	36,181	38,958	110,852
	증가율	8.0	7.5	12.4	14.6	10.7	-2.4	-5.4	-2.3%	-29.1
	사업비율	15.7	14.1	14.5	13.9	14.5	15.4	15.7	16.7%	15.9
단체 보험계	사업비	1,117	1,213	1,136	1,221	4,687	1,005	1,083	1,334	3,422
	증가율	14.1	15.3	-6.0	8.9	7.5	-10.0	-10.8	17.4%	-27.0
	사업비율	9.2	13.2	2.9	8.9	6.3	7.9	12.1	2.5%	4.5
전체	사업비	37,707	39,466	41,018	42,847	161,038	36,719	37,263	40,292	114,274
	증가율	8.2	7.7	11.8	14.4	10.6	-2.6	-5.6	-1.8%	-29.0
	사업비율	15.4	14.0	13.1	13.7	14.0	15.0	15.5	14.0%	14.8

주: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임.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6)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I-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비중 추이^{1),2)}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4	3/4	4/4	연간	1/3	2/3	3/3	연간 ⁴⁾
화재	보험료	758	946	808	3,293	755	734	923	2,413
	증가율 ³⁾	26.7	24.8	23.2	25.0	-3.4	-3.1	-2.4	-2.9
	구성비	0.5	0.5	0.5	0.5	0.4	0.4	0.5	0.4
해상	보험료	2,217	2,165	1,493	8,230	2,122	2,257	1,638	6,016
	증가율	3.7	18.1	-36.1	-5.4	-9.9	1.8	-24.3	-10.7
	구성비	1.3	1.2	0.9	1.2	1.2	1.3	0.8	1.1
자동차	보험료	32,157	32,268	31,376	128,416	32,338	32,190	32,907	97,435
	증가율	-2.9	-1.6	-3.5	-1.5	-0.9	0.1	2.0	0.4
	구성비	19.2	17.9	18.5	18.7	18.6	18.8	17.1	18.1
보증	보험료	3,810	3,913	4,013	15,816	3,801	3,461	3,976	11,238
	증가율	4.8	0.1	-1.7	4.2	-6.9	-9.1	1.6	-4.8
	구성비	2.3	2.2	2.4	2.3	2.2	2.0	2.1	2.1
특종	보험료	11,867	12,063	12,249	48,557	13,064	11,673	12,435	37,172
	증가율	15.5	9.4	28.6	17.8	5.6	-1.6	3.1	2.4
	구성비	7.1	6.7	7.2	7.1	7.5	6.8	6.4	6.9
해외 원보험	보험료	1,147	1,314	1,418	4,876	1,390	1,688	1,762	4,840
	증가율	72.1	53.8	40.8	54.1	39.5	47.1	34.0	40.0
	구성비	0.7	0.7	0.8	0.7	0.8	1.0	0.9	0.9
장기 손해	보험료	100,619	99,782	103,114	401,896	103,238	106,053	106,187	315,478
	증가율	24.0	14.9	6.8	17.7	4.9	5.4	6.4	5.6
	구성비	60.2	55.2	60.8	58.6	59.5	62.0	55.1	58.7
개인 연금	보험료	10,296	10,707	10,628	41,489	10,622	10,573	10,633	31,829
	증가율	25.6	17.1	13.8	21.1	7.8	2.7	-0.7	3.1
	구성비	6.2	5.9	6.3	6.1	6.1	6.2	5.5	5.9
퇴직 보험	보험료	6	2	0	9	3	0	7	10
	증가율	48.5	-97.7	-100.0	-99.0	229.6	-100.0	233.6	18.8
	구성비	0.0	0.0	0.0	0.0	0.0	0.0	0.0	0.0
퇴직 연금	보험료	4,389	17,465	4,469	32,840	6,251	2,527	22,374	31,152
	증가율	102.3	-7.4	-1.7	3.3	-4.1	-42.4	28.1	9.8
	구성비	2.6	9.7	2.6	4.8	3.6	1.5	11.6	5.8
계	보험료	167,265	180,624	169,569	685,422	173,584	171,156	192,842	537,582
	증가율	17.8	8.7	5.5	12.4	3.3	2.3	6.8	4.2

주: 1)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 퇴직보험은 퇴직연금을 포함함.

2) 기간별 수치는 해당 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4) FY2013은 2013년 13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I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1),2),3)}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4	3/4	4/4	1/3	2/3	3/3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68.1	52.7	56.1	56.8 ⁴⁾	60.9	44.0
	사업비율	48.8	43.8	55.9	55.3	45.2	50.5
	합산비율	117.0	96.5	112.0	112.1	106.1	94.5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49.7	56.1	77.8	48.6	58.0	67.5
	사업비율	24.9	42.3	39.2	31.3	29.7	55.4
	합산비율	74.6	98.4	117.0	79.9	87.7	122.8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68.6	48.1	72.3	155.0	31.7	45.8
	사업비율	14.1	14.0	48.2	12.4	10.2	34.4
	합산비율	82.7	62.0	120.5	167.4	41.9	80.2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79.8	72.1	69.3	59.8	71.1	66.1
	사업비율	17.6	20.6	24.3	18.7	23.1	20.9
	합산비율	97.4	92.8	93.5	78.5	94.2	87.0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55.7	54.5	67.6	63.8	54.1	116.9
	사업비율	35.8	38.1	41.1	37.7	43.4	43.0
	합산비율	91.5	92.6	108.7	101.5	97.5	159.9
해외수재	경과손해율	57.3	47.4	65.6	59.8	60.0	52.8
	사업비율	28.7	60.1	1.9	30.3	27.6	30.1
	합산비율	85.9	107.5	67.5	90.1	87.6	82.9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82.1	91.9	83.7	84.4	89.3	90.3
	사업비율	21.9	21.6	21.4	21.2	19.1	22.5
	합산비율	103.9	113.5	105.2	105.6	108.4	112.8
장기보험 ³⁾	경과손해율	84.5	82.9	83.2	83.8	83.5	84.0
	사업비율	17.3	18.2	19.9	18.4	18.3	18.4
	합산비율	101.8	101.1	103.0	102.2	101.8	102.4
전체	경과손해율	82.4	82.3	81.6	82.5	81.8	82.5
	사업비율	18.7	20.0	21.1	19.5	19.2	20.4
	합산비율	101.1	102.3	102.7	102.0	101.0	103.0

주: 1) 기간별 수치는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이며, FY2011부터 IFRS가 적용됨.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임.

3) 경과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4) 재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 환급금을 일부 제외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부 록 II. 글로벌 이슈 발간 목록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66호 (1. 6)	고령화와 은퇴인구 확대 우려 (최원) · 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전 세계적인 은퇴인구 급증이 우려되고 있으며, 노동가능인구 보다 고령인구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연금 혜택의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시됨. ·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과도기적 단계의 연금시스템이 가지는 세대간의 갈등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나타남. (AP통신, 파이낸셜뉴스 등)
제266호 (1. 6)	터키 리라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과 시사점 (이아름) · 최근 터키 리라화 가치와 주가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터키 금융시장 불안이 재발함. · 경제개혁이 부진한 상태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단행으로 터키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면서 리라화 가치가 급락한 것으로 분석됨. ·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의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경우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다른 신흥국 시장에 부정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됨. (Bloomberg, Financial Times 등)
제267호 (1. 13)	2012년 전세계 상위 25개 보험회사 현황과 시사점 (김진억) · 2012년 세계적 경제·금융환경 악화에도 생명보험과 기업연금판매를 통해 성장한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사례는 생명보험상품의 경쟁력, 특히 퇴직연금보험의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Best Week 등)
제267호 (1. 13)	중국 지방정부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최근의 논란 (이소양) ·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투자자금의 회수 부진, 그림자금융 비중 확대, 부채 만기 집중의 문제로 중국 지방정부의 디폴트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함. · 그러나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부채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 디폴트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음. (WSJ, NYT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68호 (1. 20)	유로존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논란 (채원영) · 최근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초저금리 정책이 부동산 버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Financial Times 등)
제268호 (1. 20)	바젤위원회의 자본규제 완화조치 (이해량) · 2014년 1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레버리지비율과 유동성비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함. · 바젤위원회의 규제완화로 인해 레버리지비율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은행들의 자산매각이나 자본확충 압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은행, Financial Times 등)
제269호 (1. 27)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와 시사점 (이아름) · 최근 미국과 유로존 등 선진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1% 내외의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선진국 디플레이션 우려가 신흥국으로도 확산되고 있어 ECB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OECD, Financial Times 등)
제269호 (1. 27)	IMF의 세계경제전망 상향 조정과 정책권고 (이해량) · 국제통화기금(IMF)은 2014년 1월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WEO Update)를 발표하여 2014년 세계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함. · 국제통화기금은 선진국의 과도하게 낮은 인플레이션과 신흥국의 금융·자본시장 불안을 세계경제 위협요인으로 제시하며 선진국의 확장적 통화정책 지양을, 신흥국의 경우 잠재적 자본유출입 위험에 대한 대비와 긴축정책 고려를 권고함. (IMF, 기획재정부 등)
제270호 (2. 10)	2013년 중국 보험산업 현황 및 2014년 전망 (이소양) · 2013년 중국 보험시장은 보험료 증가율이 확대되고 영업 수익성이 개선되는 등 양호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 UBS의 량치칭(梁智勤) 보험부문 주관은 2013년 하반기부터 발표된 보험산업의 규제 완화 정책을 감안할 때 2014년 중국 보험산업의 성장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CIRC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70호 (2. 10)	EU 솔벤시 II 시행 일정 확정 (이아름) · 2014년 1월 31일 유럽보험연금감독청(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 Pension Authority, EIOPA)은 솔벤시 II(Solvency II) 이행기준(Implementing Technical Standard, ITS)과 가이드라인(guideline) 시행을 위한 추진일정을 확정하였음. · 이에 앞서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2013년 10월 최종 준비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여 2016년 완전이행을 가정한 솔벤시 II 준비 로드맵을 제안하였음. (EIOPA 등)
제271호 (2. 17)	최근 부각된 비트코인의 문제점과 시사점 (채원영) · 11월 7일 유럽중앙은행 ECB는 시장의 금리동결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0.5%에서 0.25%로 0.25%p 인하한다고 발표함. ·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ECB의 갑작스러운 금리인하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선진국의 저금리 기조가 더욱 지속될 것으로 보임. (Financial Times 등)
제271호 (2. 17)	영국 손해보험회사의 배당정책과 시사점 (이해랑) · 영국 Lloyd's의 계열사인 Beazley와 Catlin의 서로 다른 배당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음. · Beazley는 2013년 이익의 75%를 특별배당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Catlin은 신사업 투자를 위하여 특별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손해보험 산업의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한 상반된 전망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Financial Times 등)
제272호 (2. 24)	최근 일본의 경제성장을 둔화와 실질임금 하락 (최원) · 2013년 하반기 일본 GDP성장률이 크게 낮아졌으며 엔저에 따른 수입 비용 증가와 가계소비 부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 가계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기본급 인상이 선행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뚜렷한 기본급 인상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Financial Times, 연합뉴스 등)
제272호 (2. 24)	미국의 외국계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 (이아름) ·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는 2014년 2월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대형 은행들에게 미국 대형 은행들과 동일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통과시킴. · 새로운 규제안이 적용될 경우 미국에 진출한 대형 외국계 은행은 연준 감독을 받게 되며 리스크 관리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함. · 한편 이에 따라 유럽도 미국 연준과 비슷한 금융산업 규제강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융서비스업의 국경 간 이동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됨. (FRB, WSJ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73호 (3. 3)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신흥국 진출 현황 및 전망 (김진억) · 최근 유럽과 미국, 일본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자국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아시아 등 신흥국 보험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음. ·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보험회사들은 진출 대상국의 보험시장 발전단계와 시장경쟁 환경을 고려하여 회사의 전략에 부합하는 진출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임. (Deloitte 등)
제273호 (3. 3)	2013년 미국 생명보험산업의 경영성과 개선 (이소양) · 보험회사 신용평가기관인 A. M. BEST에 따르면 2013년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은 수익성 개선, 자본 증가 및 유동성 증가로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A. M. BEST는 생명보험 수요증가, 수수료 수입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 및 자본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대다수 생명보험회사의 향후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stable)” 이상으로 평가함. (BEST WEEK 등)
제274호 (3. 10)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과 향후 전망 (채원영) · 아베노믹스 정책의 영향으로 달러 대비 엔화가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 확대로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음. · 향후에도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또한 엔화 가치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경제회복을 지연시키고 외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응 능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니혼게이지, 연합뉴스 등)
제274호 (3. 10)	중국 양회의 주요 논의 내용 (이해량) · 2014년 3월 3일 개최된 중국의 양회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정부공장 보고를 통해 중국의 2014년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중국의 국민 경제와 사회발전 관련 지표들의 예상 목표치를 발표함. · 리커창 총리는 금융개혁과 관련하여서는 금리자유화,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 및 위안화 자유 태환, 예금보호제도 도입 등을 발표함. (Financial Times, WSJ, 연합뉴스 등)
제275호 (3. 17)	중국경제 둔화 우려와 시사점 (최원) · 2월 중국의 수출부진과 물가 하락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등 최근 중국의 경제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글로벌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둔화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연합뉴스, Bloomberg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75호 (3. 17)	유럽 대형은행의 미국 사업전략 변화 (이아름) ·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는 미국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대형 은행들에게 미국 대형 은행들과 동일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통과시켰. · 유럽계 대형 은행들은 미국 법인의 사업 중 일부를 유럽과 아시아 사업부로 편입시킬 가능성이 높아 향후 유럽과 아시아 국가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Financial Times, WSJ 등)
제276호 (3. 24)	EU의회,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안 승인 (김진역) · EU의회는 비EU국가로의 개인정보 이동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한 일반정보보호법의 최종 법률안을 승인함. · 본 법안은 향후 국경 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개인정보의 해외유출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국제정합성 측면의 검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European Parliament 등)
제276호 (3. 24)	중국 보험회사 개무건전성 감독체계 개혁 (이소양)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는 전세계적인 보험회사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제도 강화 추세 및 현행 중국 지급여력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중국 리스크중심 지급여력 제도(C-ROSS: China Ri나 Oriented Solvency System)」를 발표하였음. · C-ROSS가 순조롭게 시행될 경우 중국 보험시장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계보험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The Actuary 등)
제277호 (3. 31)	일본 국채시장의 위험요인과 아베노믹스 (채원영) · 12월 9일 중국 정부는 사적 사회보장체제인 기업연금 활성화를 위해 기업연금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 전문가들은 세법 개정으로 중국 기업연금기금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중국의 사례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적 부문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Sina, Xinhua 등)
제277호 (3. 31)	영국의 금융자문서비스 현황과 시사점 (이해량)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금융자문서비스 개선을 위한 소매판매채널 개선방안(RDR)을 2013년부터 시행해 왔으나 최근 금융자문서비스 비용 및 수수료 체계와 관련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국 금융 감독당국은 저소득층 대상 금융자문서비스 무료제공, 자문비용과 관련된 자문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음. (Financial Times 등)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 7
- 2011-5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오병국,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김해식,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강민규, 이해량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 김해식, 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 강성호, 김유미 2014.4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해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④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황진태,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황진태, 조재린 2013. 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변혜원, 황진태 2013. 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조영현 2013. 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 강성호, 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한기정,
최준규 2014.4

■ 연차보고서

- 제1호 2008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2호 2009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3호 2010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4호 2011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5호 2012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6호 2013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영문발간물

-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 제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1 / KIRI, 2012.8
제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2 / KIRI, 2012.10
제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2 / KIRI, 2012.12
제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2 / KIRI, 2013.4
제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3 / KIRI, 2013.11
제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윤성훈 2013.7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고령화리뷰 / 연 1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14년 봄호 (통권 69호)

발행일	2014년 4월
발행인	강 호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연락처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57, 3775-9059)로 연락하여 주십시오.